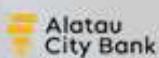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Kazakhstan-Korea Cooperation for Alatau City

2025.10.15 - 16 | Lotte Hotel Seoul



ALATAU RISE With Kazakhstan

October 15th (Wed) Program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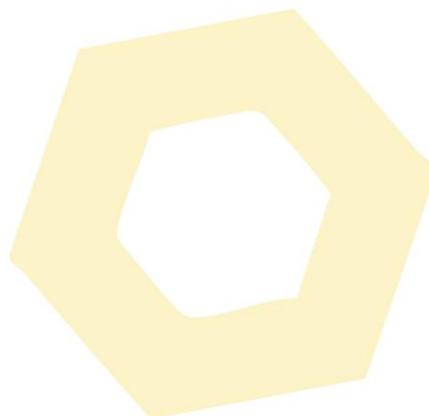
연사

10:00-10:40	개회사: The New Eurasian Haven - Alatau City 축사 1: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혁신 파트너십, 홍범도 장군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축사 2: 지속 가능한 Alatau City를 위한 양국간 협력 축사 3: 한국-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역사적 가치 기조연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Bozumbayev Kanat, 카자흐스탄 부총리 박홍근, 대한민국 국회의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곽상언, 대한민국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Tskhay Yuriy, 카스피안그룹 회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10:40-11:20	G2G & G2B MOU Signing Ceremony	
11:25-12:05	발제 1: Alatau City – a Hub of Low-Altitude Economy 발제 2: 스마트시티를 위한 한국-카자흐스탄 협력 발제 3: 수소경제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발제 4: 미래 모빌리티 제조 산업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Lastayev Talgat,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 이상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차관보 Ilyas Bakytzhan,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차관 이승렬,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Lunch	
13:10-14:30	발제 1: 미래 첨단 혁신 인재의 중심지, Alatau City 발제 2: Alatau City의 건설 산업 기반 발제 3: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4: Alatau 전력 공급을 위한 퓨얼셀 파워플랜트 개발 패널토의: 알라타우가 바라는 스마트시티: Give&Take를 통한 상호호혜적 협력	Nurbek Sayasat,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Saparbekov Olzhas,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차관 Issatayev Rustam,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부지사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EPC 총괄 신민석 (서울대학교 교수), Ilyas Bakytzhan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차관), Saparbekov Olzhas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차관), 이재용 (한국자동차 스파트주진실 실장(상무)), 정현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국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EPC 총괄)
	Coffee Break	
14:50-16:10	발제 1: KIND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Alatau City 개발 발제 2: 외국인 투자를 위한 AIFC의 법제도 개발 경험 발제 3: 도시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와 펀딩 계획 발제 4: 한국과 전세계 신도시 개발 성공사례 발표 발제 5: 인공지능 도시, Alatau City 패널토의: 한국과 Alatau City간 플라보레이션: Alatau City 개발을 통한 혁신과 성공	이무혁,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정책지원실 실장 Serikbay Nursultan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정책총괄이사 및 경영위원회 위원 Kim Yulja,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 오피스 대표 & 카자흐스탄 투자청 파트너 장현영, 한국친력기술 소장 Mun Dmitry, 디자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차관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Shokarkutov Berik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부회장), Serikbay Nursultan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정책총괄이사 및 경영위원회 위원), 이부학 (한국국제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실장), 장현영 (한국친력기술 소장), 박문구 (KPMG 전무)
	Coffee Break	
16:25-16:45	발제 1: Alatau City의 가치: K-PARK 발제 2: 한국의 국제문화홍보 정책	Kogay Maksim, 고려인협회 비서실장 한재혁, 순천향대학교 교수 및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카자흐스탄 정부와 Alatau City 기업인이 한국에게 전하는 메시지

1. KR-KZ 양자협력: Alatau City International Roadshow 2025 Seoul
2. 글로벌 혁신도시와 첨단 산업단지
3. Geo-Politics & Geo-Economics
4. 고려인 경제인 네트워크
5. Alatau City 혁신생태계: 미래 모빌리티, 수소·순환경제 갖춘 스마트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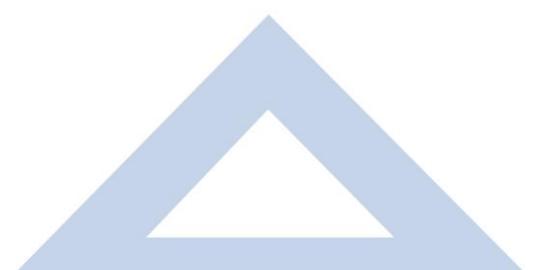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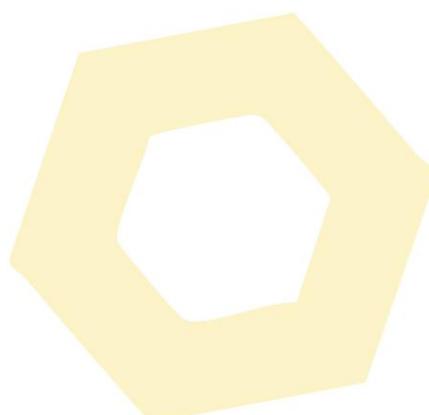
[KR-KZ 양자협력: Alatau City International Roadshow 2025 Seoul]

▪ 10/15~16 소공동 롯데에서 카자흐스탄 Alatau City 통해 양국협력 위한 국제로드쇼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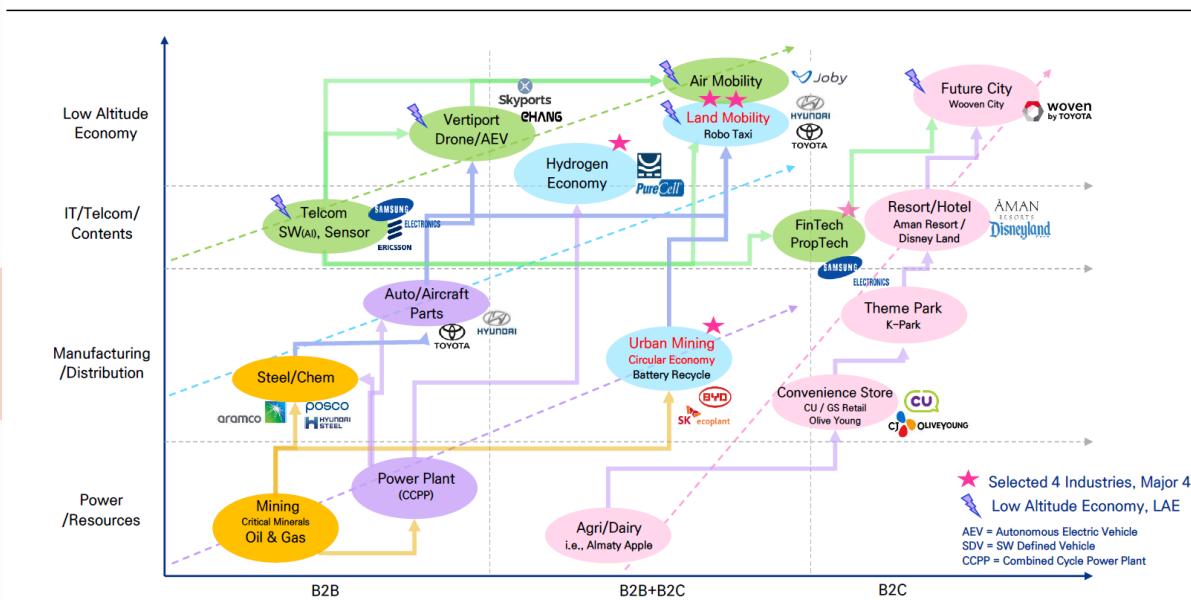
- 양국 G2G 채널 강화,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갖춘 첨단기업과 Biz Council 정례화, 한국(KR)에 축적된 산업발전 노하우를 카자흐스탄(KZ) 기회에 접목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Mr. Kanat Bozumbayev, 7개 부처 장차관, KZ 기업인 방한해, KR-KZ 양자협력 논의합니다.
-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 등 KR-KZ 양자협력 협의 위해 G2G/G2B 워킹그룹 설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 Shymkent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하는 KR기업들(두산, YPP)이 풍부한 핵심광물과 광활한 대지 위 태양광, 풍력발전을 추가 제안했고, Alatau City 수소 전력증추 설계 기회도 발굴 중입니다.

- KZ은 광물기반 배터리경제와 재생에너지기반 수소경제를 동시 추진 가능한 자원부국입니다.
- KR 협력해 전력증추(배터리vs.수소) 인프라를 산업화하면, CIS내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자율운항(물리적 AI), AI컴퓨팅파워, 첨단기술 교육, Multi-Sandbox R&D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the Innovation Industries and Global Anchor Companies Best for Alatau City?



- KZ 토지와 자본에 KR첨단기술이 더해지면, 혁신산업 기반 新실크로드 생태계가 탄생합니다.
- KZ는 풍부한 자원으로 인당 GDP가 높지만, 첨단제조업/혁신서비스 산업이 부족합니다.
- 항구 없는 약점을 보완 위해, 러시아 통과 않는 Dry Port로 자원 무역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 인근 우크라이나 광물 원하는 Trump정부가 KZ자원무역 위해 철도산업 투자를 시작합니다.
- KZ정부 이프라 예산 일부를 보조금으로 제공하면 KR기업이 조기 참여할 유인책이 됩니다

▪ 러-우 전쟁 장기화가 G2로 하여금 CIS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 ALL SECTIONS SEARCH

THE DIPLOMAT READ THE DIPLOMAT. KNOW THE ASIA-PACIFIC

Trump 2.0 and Central Asia: Optimism After Rubio's Comments

During his nomination hearing last week, now-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endorsed the annulment of the Jackson-Vanik amendment, although its removal is ultimately a Congressional task.

By Wilder Alejandro Sánchez January 27, 2025

[in](#) [f](#) [w](#) [x](#) [e](#)



TRAN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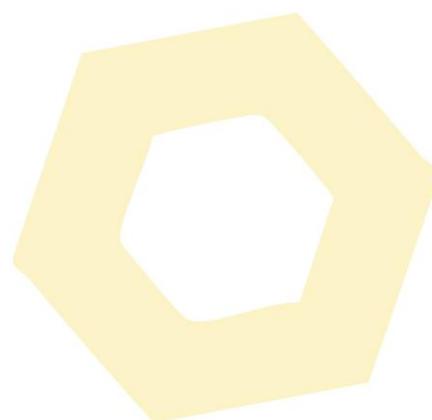
Kazakhstan's Silk Road and Middle Corridor Update (2024–2025)

By TBY | Kazakhstan | Aug 05, 2025

Share on: [f](#) [g](#) [t](#) [in](#)

In 2024 and early 2025, Kazakhstan made substantial strides strengthening its role as a pivotal transit hub on the modern Silk Road, particularly via the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also known as the Middle Corridor.

Throughout 2024, Kazakhstan invested heavily in logistics infrastructure under the Nurly Zhol program. Roads along the Western Europe–Western China corridor were upgraded, reducing transport time by up to 67%, increasing speeds, lowering costs, and generating tens of thousands of jobs during construction alone. At the same time, the ports of Aktau and Kuryk underwent significant modernization to boost throughput capacity and enhance multimodal rail-sea connectivity.



[글로벌 혁신도시와 첨단 산업단지]

▪ Alatau City는 실크로드 중심인 KZ에 글로벌 혁신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 1997년 신도시로 구축된 수도 Astana처럼, 글로벌산업 유치 위한 SEZ특별법을 제정합니다.
- 도시 건설을 넘어, 선순환 성장형 산업생태계 조성해야 글로벌 최고도시로 탄생할 것입니다.
- 첨단제조 위한 Multi-Sandbox, 조기진출 특혜 Early Bird Subsidy, Zero 법인세/관세입니다.

▪ 천연자원(Oil, Gas, 광물) 중심 경제를 첨단제조와 혁신서비스 산업으로 진화시킬 정책입니다.

- 시진핑 수석과 Tokayev 대통령이 Alatau City를 경제협력의 중요한 어젠다로 채택했습니다.
- Trump 및 Tokayev 대통령이 에너지와 핵심광물 무역 위한 철도차량 계약을 맺었습니다.
- 이러한 G2와 협의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막혔던 KZ가 New Silk Road로 부활함을 뜻합니다.

▪ Alatau City 발전과 성공에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KR기업과 첨단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경제발전 막는 GeoPolitics 최소화 위해, 러·중 의존 낮추고, 한·일·미 협력증대 필요합니다.
- 첨단제조업 발달한 한·중·일로부터 미래모빌리티·수소경제 등 첨단기술을 흡수해야 합니다.
- 특히 KR과 긴밀히 협력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는 성공적으로 동반성장을 이룩했습니다.

[Geo-Politics & Geo-Economics]

- 러-우 전쟁 후, 러시아 빈 자리를 중국 EV, 미국 자원무역, 한국 K-콘텐츠가 채우고 있습니다.
- 중국은 Belt & Road 2.0 통해 배터리경제(EV, 충전소), 저고도경제(UAM, 드론) 확산합니다.
- 미국 자원무역(가스, 희토류, 우라늄)엔 러시아 우회 Middle Corridor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 한국 K-콘텐츠 기반 B2C산업(문화, 푸드, 리테일), 신도시 개발 EPC산업, B2B 첨단제조 산업에서 KZ 시장기회 발굴, Joint Venture 공동투자, KZ-KR 성공모델 등을 수립 중입니다.



- 미국은 자원무역 위한 철도사업 개시했고, 중국은 Alatau City 신도시건설 통한 BRI2.0를 확산 원합니다.

22 September 2025
Trump and Tokayev Secure a Historic \$4.2 Billion Locomotive Deal



Image: U.S. Department of Commerce

Washington, D.C. – The United States and Kazakhstan have finalized the largest locomotive agreement in history, a \$4.2 billion deal that underscores American industrial strength and deepens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announcement came following a call betwe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Kazakhstan's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 which officials say directly helped bring the deal across the finish line.

Xi says China, Kazakhstan reliable partners for each other



f x in +

- Alatau City는 Tokayev 대통령의 Think Tank인 KZ 제1부호 Mr. Vyacheslav Kim 회장과 Mr. Yuriy Tskhay 회장이 글로벌도시 디자인 위한 최고 인사이트를 모은 국가프로젝트입니다.

- Astana처럼 글로벌이 신뢰하는 영미법 체계의 SEZ(Special Economic Zone) 법령제정
- 싱가폴 국영 엔지어링사 Surbana Jurong의 Master Plan
- 중국 CDI(China Development Institute)의 산업단지 육성 거버넌스
- 한국 첨단산업의 성장로드맵 벤치마킹 등 글로벌 최고의 전문성을 반영 중입니다.

- 고려인 경제인들은 KZ 산업주권 확립위해 중국과 KR 첨단기술을 병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인접 중국은 EV, UAM, AI Car, 수소경제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 KZ산업이 글로벌로 수출하려면, 중국 외 한·일·미 글로벌기업과 전략제휴도 필요합니다.
- 한국태생으로, 중국 거쳐, CIS 안착해 다양성 융합한 경험은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KZ 고려인 재벌들은 Alatau City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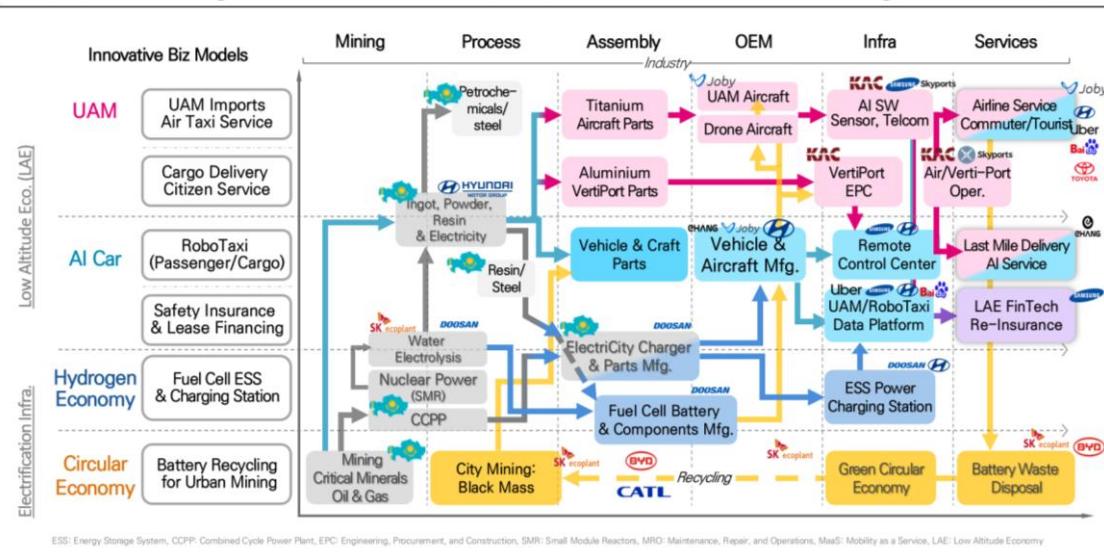
- 부동산재벌 Yuriy Tskhay 회장은 고려인 협회장으로서 고려인 경제인들은 단합시킵니다.
- 금융재벌 Vyacheslav Kim 회장은 디지털은행 1위 후, Alatau City 개발 금융에 집중합니다.
- 소비재 Andrey Shin 회장은 CU, CJ올리브영, 코스맥스 등 K-컨텐츠 도입에 열심입니다.
- 고려인 협회가 키우는 젊은 CEO, Ms. Yuliya Kim은 KR-KZ 경제를 연결할 Lady Ambassador로서, Mr. Sergey Khegay는 Joby, Ehang, KEPCO E&C, Skyports 등 Air Mobility 산업과 비즈니스를 논하는 미래 CIS 리더로서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Alatau City 혁신생태계: 미래모빌리티, 수소·순환경제 갖춘 스마트시티]

- Alatau City 혁신브랜딩을 위해 UAM, 로보택시, 수소경제, 순환경제 등 첨단기술과 혁신 서비스 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첨단혁신 산업이 태동하면, 자연스럽게 일반산업도 형성됩니다.
 - UAM은 Air Mobility이고, 로보택시는 Land Mobility로서 모두 원격관제가 중요합니다.
 - 원격관제엔 센서, 통신, AI SW가 필수이며, 지속적인 Machine Learning 체계가 수반됩니다.
 - 단지 Mobility 혁신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연관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 진정성 있는 수소경제 정책을 위해 생산산업 뿐만 아니라 활용산업 발전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 생산한 수소는 EU로 수출하거나 발전소 혼소발전(Hydrogen Dual-Fuel)에 사용할 것입니다.
 - 혼소발전은 국가 탄소감축과 수소생산 Scalability 달성(수소경제 수익성)에 기여합니다.
 - 현존하는 가스발전소에서 혼소발전 수준을 높이면, 수소생산량이 늘어나고, 더불어 대중교통의 수소버스, 충전소 등 수소활용 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Alatau City는 KR정부/기업이 축적한 산업발전 노하우를 배우고, 함께 성장할 모델을 만듭니다.
 - 국토부와 산업부의 신산업 육성정책 벤치마킹, R&D Sandbox로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원(예: KAIST) 통한 인재육성 체계가 필요합니다.
 - KR의 해외 인프라구축 노하우와 펀드를 갖춘 KIND, 원전과 CCPP 등 전력체계 설계노하우를 갖춘 KEPCO E&C와 KZ 시장기회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은 자동차와 항공기 제조를 넘어, AI 원격주행과 공간컴퓨팅 산업으로 확장됩니다. 이를 위해 KAC, 대한항공, 현대차와 협의하려 합니다.
 - 천혜자원 활용한 수소생산을 넘어, 수소버스 기반 신도시 대중교통, 수소트럭 기반 친환경 물류 등 수소활용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KEPCO E&C, KIND, 두산과 협의 중입니다.
- 현대차 새만금 스마트시티, 도요타 Wooven City는 두 거인의 수소경제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 Mobility 산업은 라이프스타일과 일자리를 연결하며, 사람들의 이동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 수소경제, 배터리경제를 전력중추에 반영해야 이동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 고로 현대차와 도요타는 Mobility 산업 범위를 도시설계와 이동경험 증강까지 확대합니다.
- Alatau City 디자인은 미래 Mobility 및 스마트시티 산업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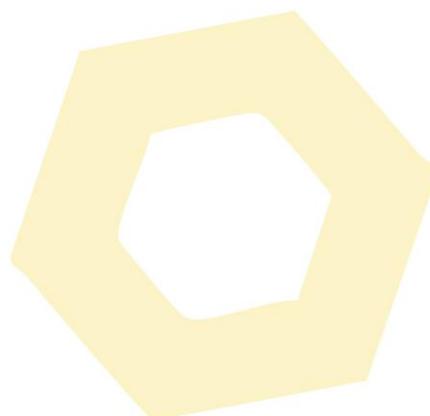
Linked with Existing Industries, 4 Advanced Tech Industries Shall Fill Out Missing Value Chains



- 혁신브랜딩 위한 4대 첨단기술은 Air/Land Mobility, Hydrogen & Circular Economy로 선정했습니다. 상기 첨단기술 갖춘 KR기업과 전략제휴 및 축적된 R&D 체계 갖춘 KR정부와 양자협력 원합니다.
- Air Mobility는 이미 론칭되어 Joby, Ehang, KAC, Skyports 등 글로벌기업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 Land Mobility는 AI Car (로보택시)를 포함하며,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과 협업 위해 노력 중입니다.
- Hydrogen Economy 수소생산은 독·중과 논의했으나, 수소를 활용하는 혼소발전, 대중교통 수소버스,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산업육성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 Circular Economy은 배터리경제의 약점을 보완할 배터리 리사이클링 R&D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Message to Korea from Kazakhstan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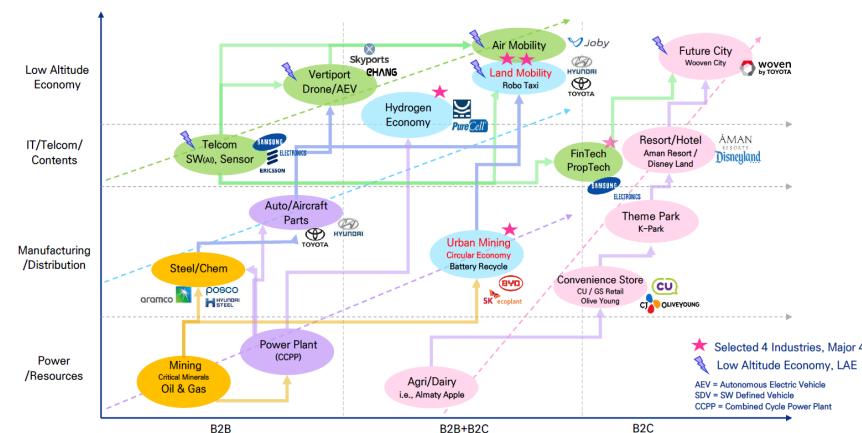
1. KR-KZ Bilateral Cooperation: Alatau City International Roadshow 2025
2. Global Innovation City and High-Tech Industrial Complex
3. Geo-Politics & Geo-Economics
4. Koryoin Economic Network
5. Innovation Eco: Smart City of Future Mobility, Hydrogen & Circular Economy



[KR-KZ Bilateral Cooperation: Alatau City International Roadshow 2025 Seoul]

- From October 15th to 16th, an international roadshow for Alatau City Development through Kazakhstan-Korea bilateral cooperation is being held at Lotte Hotel in Sogong-dong.
 - It aims to strengthen G2G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tablish regular 'Biz Council' with cutting-edge companies in the hydrogen economy and mobility sectors, and leverage Korea's (KR) accumulated industrial development expertise to various industrial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Kazakhstan.
 - Mr. Kanat Bozumbayev, along with seven vice-ministers and KZ entrepreneurs, will visit Korea to discuss Kazakhstan-Korea bilateral cooperation.
 - Establishment of a G2G/G2B working group to discuss KR-KZ bilateral cooperation will be addressed,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 KR companies (Doosan, YPP), building the Shymkent Combined Cycle Power Plant, have proposed additional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on the vast land with abundant core minerals, and are also exploring opportunities for designing a hydrogen power hub in Alatau City.
 - Kazakhstan is a resource-rich country capable of simultaneously pursuing a mineral-based battery economy and a renewable energy-based hydrogen economy.
 - By cooperating with KR to industrialize the power hub infrastructure (battery vs. hydrogen), we can lead the CIS in future mobility, autonomous driving/flying (physical AI), AI computing power, advanced technology education, and multi-sandbox R&D.

What Are the Innovation Industries and Global Anchor Companies Best for Alatau City?



- When Korea's advanced technology is combined with Kazakhstan's land and capital, a new Silk Road ecosystem based on innovative industries will emerge.
 - Kazakhstan has a high per capita GDP due to its abundant resources but lacks advanced manufacturing and innovative service industries.
 - To compensate for its lack of a por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ource trade route with a dry port that does not have to pass through Russia.
 - The Trump administration, seeking mineral resources from neighboring Ukraine, is beginning to invest in the railway industry to support resource trade in the Kazakhstan.
 - Providing a portion of the Kazakhstan government's infrastructure budget as subsidies will incentivize early participation by global and Korean companies.

- The prolonged Russian-Ukrainian conflict is causing the G2 to shift its stance on the CIS.

[ALL SECTIONS](#) [SEARCH](#)
THE DIPLOMAT
 READ THE DIPLOMAT, ANDREW THE ASIA-PACIFIC

Trump 2.0 and Central Asia: Optimism After Rubio's Comments

During his nomination hearing last week, now-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endorsed the annulment of the Jackson-Vanik amendment, although its removal is ultimately a Congressional task.

 By Wilder Alejandro Sánchez
 January 27, 2025

[in](#) [f](#) [t](#) [X](#) [b](#)

TRAN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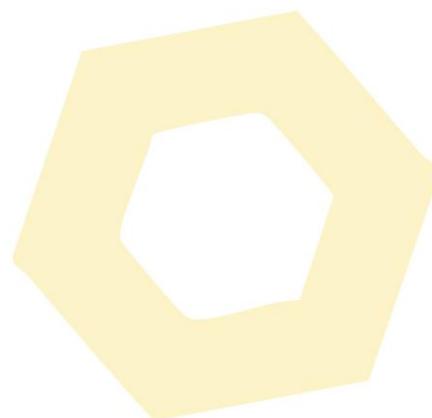
Kazakhstan's Silk Road and Middle Corridor Update (2024–2025)

By TBY | Kazakhstan | Aug 05, 2025

 Share on: [f](#) [g](#) [t](#) [X](#) [in](#)

In 2024 and early 2025, Kazakhstan made substantial strides strengthening its role as a pivotal transit hub on the modern Silk Road, particularly via the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also known as the Middle Corridor.

Throughout 2024, Kazakhstan invested heavily in logistics infrastructure under the Nurly Zhol program. Roads along the Western Europe–Western China corridor were upgraded, reducing transport time by up to 67%, increasing speeds, lowering costs, and generating tens of thousands of jobs during construction alone. At the same time, the ports of Aktau and Kuryk underwent significant modernization to boost throughput capacity and enhance multimodal rail-sea connectivity.



[Global Innovation City and High-Tech Industrial Complex]

- Alatau City is a project to build a global innovation city and high-tech industrial complex in the CIS region, a hub of the New Silk Road.
 - Like the capital city of Astana, which was established as a new city in 1997, a special SEZ law will be enacted to attract global industries.
 - Beyond urban development, a virtuous cycle of growth-driven industrial ecosystems will be fostered to become a leading global city.
 - These policies include a multi-sandbox for advanced manufacturing, an Early Bird Subsidy, and zero corporate tax and tariffs.
- This policy aims to transform the economy from a natural resource-centric (oil, gas, and mineral) economy to one focused on advanced manufacturing and innovative service industries.
 - President Xi Jinping and President Tokayev have adopted Alatau City as a key agenda for economic cooperation.
 - Presidents Trump and Tokayev signed a contract for railcars for energy and key mineral trade.
 - These agreements with the G2 signify the revival of the KZ, previously blocked by Russia and China, as a New Silk Road.
- KR companies leading advanced industries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are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and success of Alatau City.
 - To minimize geopolitics hindering economic development, we need to reduce dependence on Russia and China and increase cooperation among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It will be needed to absorb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future mobility and the hydrogen economy, from Korea, China, and Japan, which have developed

advanced manufacturing industries.

- Vietnam, Indonesia, and the UAE, in particular, have successfully achieved shared growth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KR.

[Geo-Politics & Geo-Economics]

- After the Russo-Ukrainian War, the void left by Russia is being filled by Chinese EVs, US resource trade, and Korean K-content.
 - China is expanding the battery economy (EVs, charging stations) and low-altitude economy (UAM, drones) through Belt & Road Initiative 2.0.
 - Middle Corridor infrastructure bypassing Russia is essential for US resource trade (gas, rare earths, uranium).
 - Korea is developing KZ market opportunities in K-content-based B2C industries (culture, food, retail), new city development EPC industries, and B2B advanced manufacturing industries (joint ventures, and successful KZ-KR models).



- The US has launched a locomotive vehicle project for resource trade, and China seeks to expand BRI 2.0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ity of Alatau City.



Xi says China, Kazakhstan reliable partners for each other



[Koryoin Economic Network]

- Alatau City is a national project where President Tokayev's think tank, Chairman Vyacheslav Kim and Chairman Yuriy Tskhay, have pooled their best insights on global city design.
 - Enactment of SEZ (Special Economic Zone) legislation based on a globally trusted common law system, like Astana
 - Master Plan by Singapore's state-owned engineering company, Surbana Jurong
 - Governance f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by China Development Institute (CDI)
 - Benchmarking the growth roadmap for Korea's high-tech industries
- Koryoin businesspeople emphasize the need to leverage both Korean and Chinese advanced technologies to establish KZ industrial sovereignty.
 - Neighboring China is competitive in various high-tech industries, including EVs, UAMs, AI cars, and the hydrogen economy.
 - For KZ industries to export globally, strategic partnerships with global companies in Korea, Japan, and the US are necessary.

- The experience of Koreans, with their parents born in Korea, have passed through China, and have established themselves in the CIS, and have integrated diverse technologies, will contribute to harmonious industrial development.
- Koryoin businesspeople in KZ have joined forces to transform Alatau City into a global city.
 - Real estate tycoon Yuriy Tskhay, chairman of the Koryoin Association, unites Koryoin businesspeople.
 - Financial tycoon Vyacheslav Kim, chairman of the Alatau City development finance, is focusing on establishing a leading digital bank.
 - Consumer goods tycoon Andrey Shin, chairman of CU, CJ Olive Young, and Cosmax, is actively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K-content.
 - Young CEOs fostered by the Koryoin Association include Ms. Yuliya Kim, a Lady Ambassador who will connect the KR-KZ economies. Mr. Sergey Khegay, a future CIS leader who discusses the air mobility industry and businesses, including Joby, Ehang, KEPCO E&C, and Skyports.

[Innovation Eco: Smart City with Future Mobility, Hydrogen & Circular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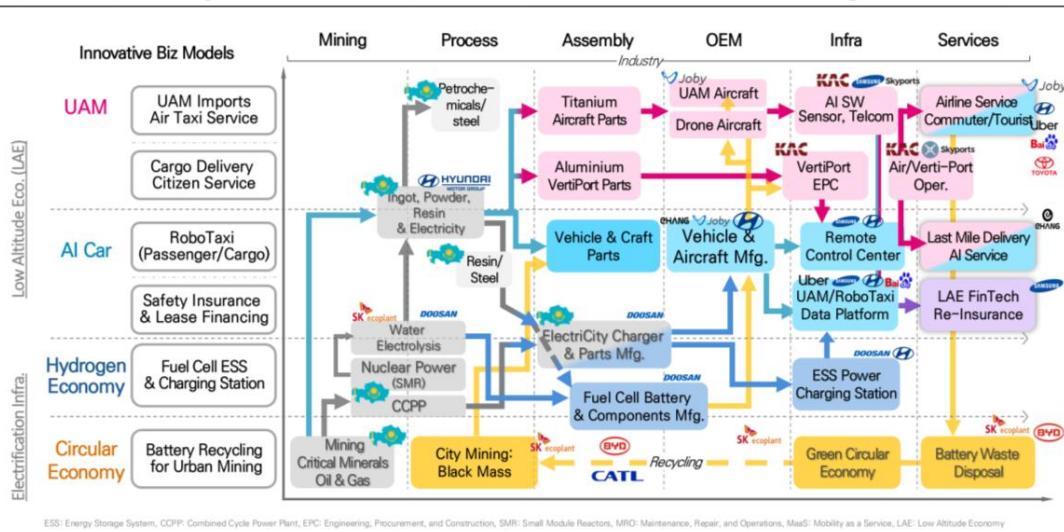
-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innovative service industries, including UAM, robotaxis, the hydrogen economy, and the circular economy, were selected for the Alatau City innovation branding. As cutting-edge innovation industries emerge, they are naturally accompanied by the increase of general industries.
 - Remote control is crucial for both UAM and robotaxi, the future mobility, requiring sensors, telecom, and AI SW, and involving continuous machine learning system.
 - We plan to go beyond simply providing mobility innovation services and foster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 To establish a genuine hydrogen economy policy, we are providing development plans for both production and utilization industries.
 - Produced hydrogen will be exported (EU) or used in power plant for hydrogen dual-fuel.
 - Co-firing contributes to national carbon reduction and achieving hydrogen production scalability (hydrogen economy profitability).
 - Improving co-firing at existing gas power plants will increase hydrogen production, and hydrogen-utilizing industries such as hydrogen buses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charging stations will be able to purchase hydrogen at lower prices.
- Alatau City will learn from the industrial development know-how accumul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create a model for shared growth.
 - Benchmarking the new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necessary, fostering a cutting-edge technology ecosystem through R&D sandboxes, and establishing a talent development system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s (e.g., KAIST).
 - Discussions regarding KZ market opportunities have begun with KIND (Korea Overseas Infra & Urban Development Corp.), which boasts KR's overse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pertise and funding, and KEPCO E&C, which possesses expertise in designing power system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CCPPs.
 -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encompassing both air and land, expands beyond automobile and aircraft manufacturing to encompass AI remote driving and spatial computing. To this end, we plan to discuss with KAC (Korea Airport Corp.), Korean

Air, and Hyundai Motor Company.

- Beyond hydrogen production utilizing natural resources, we will foster hydrogen-utilizing industries such as hydrogen bus-based new city public transportation and hydrogen truck-based eco-friendly logistics. To this end, discussions are underway with KEPCO E&C, KIND, and Doosan.
- Hyundai Motor Company's Saemangeum Smart City and Toyota's Wooven City demonstrate the sincerity of these two giants in the hydrogen economy.
 - The mobility industry connects lifestyles and jobs and meets people's mobility needs.
 - The hydrogen economy and battery economy must be integrated into the power grid to ensure a clean energy supply for transportation.
 - Hyundai Motor Company and Toyota are therefore expanding the scope of the mobility industry to include urban design and enhanced mobility experiences.
 -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 Alatau City design reflects innovative services for future mobility and smart city industries.

Linked with Existing Industries, 4 Advanced Tech Industries Shall Fill Out Missing Value Chains



- The four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innovation branding have been selected: Air/Land Mobility, Hydrogen, and Circular Economy. We seek strategic partnerships with KR companies equipped with these advanced technologies and b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KR government, which boasts robust R&D system and industry incubation experience.
 - Air Mobility has already been launched, and discussions with global companies such as Joby, Ehang, KAC, and Skyports have begun.
 - Land Mobility includes AI cars (robotaxis), and we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global companies such as Hyundai Motor Company. Hydrogen production has been discussed with Germany and China (by Ministry of Energy), but subsidy polici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for hydrogen duel-fuel (co-firing) power generation, hydrogen buses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hydrogen fuel cell power generation, as well as for advanced technology companies.
 - The Circular Economy plans to foster battery recycling R&D to address the weaknesses of the battery economy in the process toward net zero (carbon reduction) economy including hydrogen.

Alatau City 관련 언론보도

뉴스 1

“카자흐는 기회의 땅, 알마티에 韩 스마트기술 심는다”

2025년 5월 18일 | 출처: 한국경제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3290?sid=101>)

카스피안그룹의 유리 즈카이(Yuriy Tskhay) 회장은 2세 고려인으로, 알마티 인근 880km² 규모의 대형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 ‘알라타우 시티(Alatau City)’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를 첨단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적 비전으로, 즈카이 회장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핵심 기반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카스피안그룹의 한국 법인 ‘카스피안 코리아’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알라타우 라이즈 2025(Alatau Rise 2025)’ 로드쇼를 개최한다. 즈카이 회장은 이번 로드쇼를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미래를 연결하는 전략적 가교”로 규정하며 양국 협력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뉴스 2

“카자흐는 기회의 땅, 알마티에 韩 스마트기술 심는다”

2025년 5월 19일 | 출처: 한국경제 (원문: 한국경제 2025년 5월 19일 인물 33면)

한국경제

“카자흐는 기회의 땅 … 알마티에 韩 스마트시티 기술 심을 것”

✓ Zoom In ‘고려인 2세’ 최유리 카스피안그룹 회장

일흔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최유리 카스피안그룹 회장(77)사진의 눈빛엔 열정이 가득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2세인 그는 자신의 인생을 ‘투쟁의 연속’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8일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드러냈다. 회장은 “내 뿌리는 한국에 있고, 국경제신문화와의 인터뷰에서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 그게 경쟁인지 몰랐다”고 했다.

복싱 선수 출신으로 1990년대 초반 한국 복싱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그는 40대에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렇게 2004년 창업한 카스피안그룹은 현재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투자회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사업 영역도 건설비 헬기, 시멘트, 자동차 제조, 도시 개발까지 다양하다. 회장은 “쉬운 길을 가고 싶지 않았고, 계속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로 보니 어느새 지금 위치에 와 있다”며 웃었다.

최 회장의 별명은 ‘중앙아시아의 정주영’이다. 엔스로 사업을 일군 과정과 저돌적인 사업 스타일이 현대그룹 창업주와 비슷해 붙은 별명이다. 최 회장은 “정예회장 같은 분과 비교된다



금융과 산업, 물류부터 관광·휴양 등을 아우르는 도시 구성을 19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1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카스피안그룹은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알라타우시티는 카자흐스탄을 자원 수출 중심 경제에서 산업 국가로 발돋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러시아 진출 기업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이전에 관심을 두면서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삼정KPMG 와 손잡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도 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자금 유치는 다른 국가에서 하더라도 알라타우시티를 구축하는 근간인 스마트시티 기술만큼은 한국 기업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며 “카자흐스탄과 한국에 진 마음의 빛을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모두 갖고 싶다”고 말했다. (23.3x15.6cm)

유리 즈카이 카스피안그룹 회장(77)은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2세로, ‘중앙아시아의 정주영’이라 불릴 만큼 개척 기업가로 평가받는다. 복싱 선수이자 국가대표팀 코치 출신인 그는 40대에 사업가로 전향해 2004년 카스피안그룹을 설립, 건설·철강·도시개발 등 다방면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것이 내 소명”이라며, K-컬처 확산과 함께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이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그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함께 부산보다 큰 880㎢ 규모의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이 도시는 산업·금융·물류·관광이 융합된 스마트 신도시로, 190만 명 수용과 1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최 회장은 "알라타우시티는 자원 의존형 카자흐스탄 경제를 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스마트 시티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삼정KPMG와 함께 서울에서 투자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 3

글로벌 교역 재편 속 '실크로드의 신흥축' 카자흐스탄 부상

2025년 6월 12일 | 출처: KBS 뉴스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68987?sid=104>)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카자흐스탄이 핵심 에너지 공급처 이자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역사적 실크로드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은 국제 자본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장 10년 체류를 허용하는 투자비자 제도를 도입했으며, '중앙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지향하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를 설립했다.

AIFC는 지난 7년간 80여 개국 약 4,000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외국 자본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기업도 행보를 넓히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알마티에서 생산을 개시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폭을 키웠다. 유리 츠카이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있다. 유리한 입지 덕분에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4

카자흐스탄에 '부산' 크기 신도시 짓는 고려인..."韓 기업엔 기회의 땅"

2025년 7월 14일 | 출처: 한국일보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5741?sid=102>)

유리 즈카이 카스피안그룹 회장과 카스피안 코리아의 율리아 김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알라타우 시티가 카자흐스탄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마티 인근에 조성되는 대규모 하이테크 도시인 알라타우 시티는, 석유·가스 중심의 경제에서 도심 항공교통(UAM), 자율 물류등 차세대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으며, 즈카이 회장은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역사와 회복력을 기리는 '문화 추모공원'조성 구상을 재차 밝혔다.

이는 그의 가족사와 맞닿은 개인적이면서도 공공적인 프로젝트로, 도시 개발 과정에 역사·문화적 가치도 함께 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뉴스 5

카자흐에 에어택시 나는 도시 건설 "한국 기업에도 기회"

2025년 7월 14일 | 출처: 한국일보

(원문: 한국일보 2025년 7월 14일 인물 23면)

한국일보

카자흐에 에어택시 나는 도시 건설 "한국 기업에도 기회"

신도시 짓는 고려인 2세 뉴욕 보도 '도시 건설 꿈' 현실화 경제 수도 알마티에 첨단 신도시 부산보다 큰 알라타우 프로젝트

“천연자원 의존 산업 생태계 전환 삼성·현대LG 등韓 기업 진출”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2세 회유리(77)씨는 1979년 미국 뉴욕을 찾았을 때 드킨 커피를 자금도 빚지 못한 했다. 푸른 선수 출신으로 1970년대 소련 북시리아 페트로 콜트를 맡아 여러 나라를 가본 그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뉴욕은 차원이 달랐다. 수많은 고층 빌딩과 최신 기술로, 잘 차려놓은 사람들은 그때 대로 해인 자신의 서 터를 찾았던 그는 가족·한류에 꿈을 대 초조하였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개념도 찾지 못했다.

40여년이 지난 현재 그 꿈은 진짜 행운이다. 2004년 카스피안그룹을 세우고 기업인으로 변신한 회사는 건설, 철강, 시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카자흐스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주류(Gurbana Jurong)' 측이 최 회장에게 "크게 생각 경제 수도 알마티에 신도시 알라타우를 짓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가스 같은 원자재로 카자흐스탄 축적이 됐지만 여기에 기대다보니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 했거나" "알라타우 사업에 신뢰(신뢰) 산업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카스피안그룹 회장과 김 대표는 10년 전 구 푸르호트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카스피안그룹은 알라타우 시티 '저고도 경제(Low-Altitude Economy)' 허브로 구축 계획이다. 이 아름과 고려인의 문화·인류 등을 기념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난다. 그는 "고려인을 반영한 카자흐스탄 정부와 각 사의 뜻을 염두하고 우편을 걸친 선조"라고 했다.

최 회장은 알라타우 사업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리스너에게 말하면서 그는 감지지 않은 말과 우려(카자흐스탄)의 문제"라며 "제일 쉬워요"라고 했다. 천연자원 수출에 의한 산정한 PMG와 함께 한국 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고 강조했다. 신도시는 독립국가연합(CIS)과 중국, 러시아와는 개념이 시장과 기회로 유통된다. 특히 중국국제화학(ICI)과 중국과 벽준석(기자)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2세 유리 즈카이 카스피안그룹 회장(77)은 1979년 뉴욕을 본 뒤 "언젠가 카자흐스탄에 이런 도시를 짓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로부터 40여년, 그는 현재 부산보다 큰 880km²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천연자원에 의존해온 카자흐스탄 경제를 산업 중심 국가로 전환하겠다"며 알라타우를 첨단 산업·물류·금융이

결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 중이다.

프로젝트는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드론 물류 등 '저고도 경제(Low-Altitude Economy)' 기반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하며, 10월에는 삼정KPMG와 함께 서울에서 한국 기업 대상 투자 로드쇼를 개최한다.

또한 그는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2027년)을 맞아 'K-Park'(약 10만m²)을 조성,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유리 즈카이 회장은 "카자흐스탄 자원과 한국 기술이 만나면 세계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6

코트라, CIS지역 수출 전략 점검..."제2의 '몽탄' 만들자"

2025년 7월 16일 | 출처: 뉴시스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65482?sid=101>)

뉴스레터 구독 PICK

코트라, CIS지역 수출 전략 점검..."제2의 '몽탄' 만들자"

유희석 기자 | 입력 2025.07.16. 오전 11:00 | 수정 2025.07.16. 오후 12:23 | 기사원문

추천 댓글

중앙아시아, 한국형 모델 확산 주력
코카서스 3국도 미개척 시장 공략
리셋 비즈니스로 러시아 재진입 대비
북극항로 진출 기반 조성 박차



[서울=뉴시스] 서울 코트라 본사. (사진=코트라) 2025.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코트라(KOTRA)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을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1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CIS 지역 무역·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주제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지각변동은 새로운 대체시장 발굴의 신호탄"이라며 "제2, 제3의 몽골 신도시를 중앙 아시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7개국 10개 무역관이 참석해 지정학 리스크 대응과 수출·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몽탄(몽골+동탄)' 비즈니스 모델을 역내에 확산하는 방안이 집중 조명됐다.

KOTRA는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을 수출 교두보로 삼기 위한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CIS 지역 무역·투자 확대 전략회의'에서 강경성 KOTRA 사장은 "유라시아 대륙의 지각 변동이 대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형 성공 모델 확산, 카스피 3국(조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미개척 시장 진출, 한·러 경제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한류(Hallyu)를 기반으로 한 '몽탄(몽골+동탄) 모델'의 중앙아시아 확산에 주목하며, 편의점·프랜차이즈·의료·바이오 등 소비 인프라 분야의 진출과, 한류 엑스포·현지 유통망 협력을 통한 시장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조지아에 트빌리시 무역관 신설, 키르기스스탄에 공동 물류센터 구축등 거점 확대 계획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태스크포스 운영과 북극항로(북극해 항로) 활용 지원도 지속한다. 강 사장은 “CIS는 수출 교두보로서 가치가 높지만 지정학 리스크로 진출 확대가 제한됐다”며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에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7

[매경춘추] 잊힌 비단길을 잇다

2025년 7월 24일 | 출처: 매일경제(기고)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0754?sid=110>)

카자흐스탄 알마티 북부에 조성되는 비전형 스마트시티 알라타우 시티가, 고대 실크로드의 교역·문화 융합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있다. 기원전 2세기 한(漢)과 로마를 잇던 실크로드는 16세기까지 번성하며 중앙아시아를 문명 교류의 용광로로 만들었다. 한동안 잊혔던 이 길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알라타우 시티가 서 있다.

부흥의 핵심에는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약 30만 고려인 공동체가 있다. 척박한 환경을 개척해 모범적 소수자로 평가받은 그들은,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찬사처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집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기업가정신과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연결 고리역할을 하며, 알라타우 시티의 문화·경제적 매력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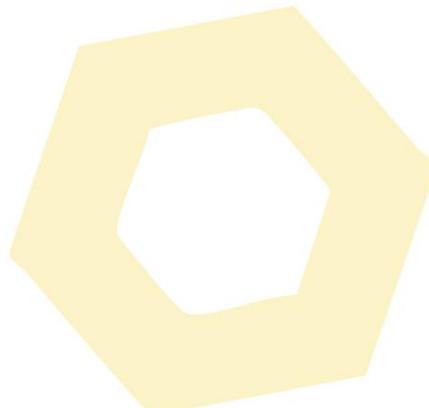
알라타우 시티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더불어 문화 추모 공간조성을 병행해 동서 교류의 현재적 의미를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도시 개발·스마트 기술 역량이 더해지면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관문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뉴스8

[매경춘추] 잊힌 비단길을 잇다

2025년 7월 25일 | 출처: 매일경제(기고)

(원문: 매일경제 2025년 7월 25일 인물 20면)



매경춘추

강경성 KOTRA 사장



실크로드는 인류 역사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였다. 기원전 2세기 한나라와 로마제국의 교역 투트로 시작돼 16세기 해상부역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동서양 간 문명 교류와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다. 그 비단길의 한가운데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단순히 물품 전달의 통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하는 중개자로서 변신했다.

실크로드의 흥망성쇠와 함께 '잊힌 비단길'이 됐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특히 과거부터 연이 깊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역에

3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해하려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만나보라

고 했던가. 그래서 이번 중앙아시아 출장에서 특히 만나고 싶었던 이들이 바로 고려인 기업가들

이었다. 잊힌 비단길을 잊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역사은 1937년 옛 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17만명의 한민족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절박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활동으로 개척하고 점단농장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꾸준하게 보선 땅에 뿌리를 내렸다.

몇 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고려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를 없었을 것"이라고 칭송했을 정도로,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은 각 나라의 '모범 소수민족'으로 자리를 빛내고 있다. 이들은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

리 기업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여는 기교 역할도 하고 있다.

좋은 예로 약 2년 카자흐스탄에 1호점을 낸 편의점 CU의 현지 파트너는 중앙아시아 최대 아이스크림 제조사이자 고려인 2세 기업이다. 양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 카자흐스탄에 CU를 500호점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해 의존해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지닌 뿐 아니라 한류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 소비자 수출이 유망하다. 아울러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국내 무관세의 이점을 활용해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시장으로의 수출 확장성도 크다. CU의 사례처럼 현지 고려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진출 초기 마케팅과 유통망 진입이 한결 수월할 것이다.

출장에서 만난 고려인 3~4세 기업가들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국의 발전에 대한 열망도 높았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기업 카스피안 그룹이 한국과의 협력을 주제로 출장에서 특히 만나고 싶었던 진 중인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

는 최대 도시인 알마티 옆에 첨단산업·물류·금융이 결합된

신도시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술과 도시 개발 경험을 보유한 한국에는 진출 확대의 기회인 동시에 카자흐스탄에는 자원 의존형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이 곧 서로 다른 문화를 융합하던 비단길의 재현이 아닐까.

어느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에 끝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잊힌 비단길 끝에 만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의 기회이며, 새로운 길을 함께할 친구다.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는 중앙아시아 땅에 자랑스러운 고려인 동포들이 있음이 드는다. 대한민국이 중앙아시아의 신(新)실크로드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11.9×28.9cm)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다시 세계 경제의 교차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에는 약 3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며, 이들은 1937년 옛 소련의 강제이주 속에서도 정착해 각국의 '모범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인 기업가들은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이자 새로운 실크로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2세 기업이 CU와 협력해 5년 내 500개 점포 확장을 추진 중이다. 한류 확산과 소비 성장세, EAEU 무관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에 소비재 수출 및 유통 진출의 기회가 크다. 특히 카스피안그룹이 추진하는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근에 첨단산업·물류·금융이 결합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이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잊힌 비단길의 끝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이제 과거의 교류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뉴스9

광복 80주년, 고려인의 ‘알라타우 시티’

2025년 8월 13일 | 출처: 디지털타임스 [기고]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5327?sid=110>)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1937년 한인 강제이주 9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 성장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상징이 바로 카자흐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 '알라타우 시티(Alatau City)'다.

이 사업은 카스피안그룹 창립자 유리 츠카이(Yuriy Tskhay)회장을 비롯한 고려인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현지 법인 카스피안 코리아(Caspian Korea)가 IT, 인프라, K-컬처를 중앙아시아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카스피안그룹은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K-파크(K-Park)'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27년 알라타우 시티 내 개관을 목표로 하는 한-카 문화 복합 허브로, 양국 후세대가 공유할 국제적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뉴스10

광복 80주년, 고려인의 ‘알라타우 시티’

2025년 8월 13일 | 출처: 디지털타임스 [기고]

(원문: 디지털타임스 2025년 8월 14일 오피니언 23면)



고려인 3세인 필자는 올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자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을 앞둔 해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긴다.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17만여 명의 고려인들은 낯선 땅에서도 근면과 교육으로 터전을 일구며, 오늘날 카자흐스탄 각계 리더로 성장했다.

이 정신을 계승해 고려인 2세 최유리 회장이 이끄는 카스피안그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함께 알마티 북부 880km²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 '알라타우 시티(Alatau City)'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산업·기술·문화가 융합된 복합 도시로, 특별경제구역(SEZ) 지정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속한 카스피안코리아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며, K-파크(K-Park) 등 한·카 문화·비즈니스 복합공간 건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알라타우 시티는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양국의 공동 번영과 차세대 교류의 상징이자, 고려인 후손들이 이어가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자리할 것이다.

뉴스11

25兆 규모 '알라타우 시티' 본격화...카자흐, 우수 기술력 보유한 韩에 러브콜

2025년 8월 31일 | 출처: 디지털타임스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9147?sid=101>)



● 디지털타임스 구독
25兆 규모 '알라타우 시티' 본격화...카자흐, 우수 기술력 보유한 韩에 러브콜
2025년 8월 31일 | 출처: 디지털타임스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9147?sid=101>)

25兆 규모 '알라타우 시티' 본격화...카자흐, 우수 기술력 보유한 韩에 러브콜

주제별 기자
입력 2025.08.31. 오후 5:26 수정 2025.09.01. 오전 9:36 기사원문

카자흐스탄, 세 성장 동력에 스마트시티 낙점
세계해박·특례법 행정 간소화 '3박자'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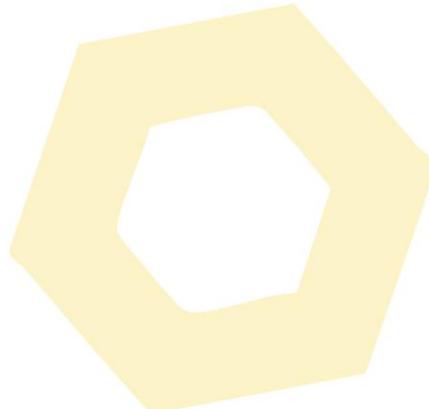
카자흐스탄 토키에프(원쪽 두번째) 대통령과 최유리(오른쪽 네번째) 카스피안그룹 회장 등 관계자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카스피안그룹 제공]

카심-조마르트 토키에프(원쪽 두번째) 대통령과 최유리(오른쪽 네번째) 카스피안그룹 회장 등 관계자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카스피안그룹 제공]

세계적 수준의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카자흐스탄은 25조원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시티 '알라타우 시티'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탈소중립 흐름에 맞춰 자원 중심 경제를 벗어나 '기술과 산업' 중심의 스마트 국가로 도약하려는 모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 민간 기업 카스피안 그룹이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카자흐스탄이 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다변화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 북쪽에 터를 잡았다. 부산(771㎢)보다 약 1.14배 큰 880㎢ 규모로 총 252㎢를 들어 개발에 나선다. 금융과 산업, 물류부터 관광·체육 등을 아우르는 도시 구성으로 19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1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카자흐스탄이 알마티 북부에 총사업비 25조 원(약 250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알라타우 시티' 건설을 본격화했다. 880km² 부지에 조성되는 이 신도시는 완공 시 190만 명의 인구 수용, 1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도시에는 도심 항공교통(UAM), 스마트교통(ITS), 프롭테크(PropTech), 그린에너지, 첨단 의료·교육산업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핵심 파트너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경동나비엔, 롯데월풀드, 대우조선해양건설등 50여 개 한국 기업이 알마티 산업단지에 이미 진출해 활동 중이다.

정부는 알라타우 시티를 '경제자유구역(SEZ)'으로 지정해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간소화된 비자 제도, 원스톱 행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알라타우 시티를 "중앙아시아의 싱가포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15~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LATAU RISE With Kazakhstan' 로드쇼는 한국 기업들이 이 초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뉴스 12

세계 최초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카자흐스탄에 건립

2025년 9월 12일 | 출처: 디지털타임스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1775?sid=101>)

● 디지털타임스  

세계 최초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카자흐스탄에 건립

주형연 기자  입력 2025.09.12. 오전 10:41·수정 2025.09.12. 오전 11:21  기사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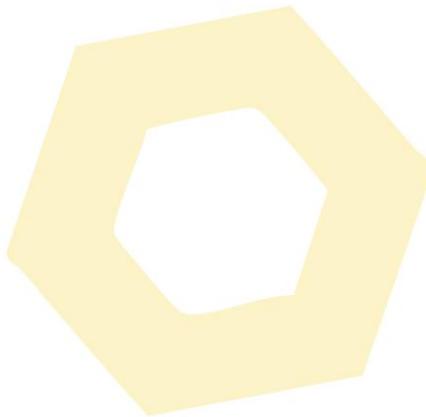
12일 한-카자흐 문화·비즈니스 복합공간 K-파크 준공
총 3만250평 조성...유라시아 허브에 열린 '한류' 거점



K-파크가 조성될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시티의 그런 디스트릭트(예시) 조감도. [카스피안코리아 제공]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푸드, K-뷰티, K-컬처 등 K-산업을 복합적으로 체험하고 교류 할 수 있는 글로벌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K-파크)가 외국 중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설립된다.

카자흐스탄 투자청과 카스피안그룹은 12일 카자흐스탄 옛 수도 알마티 주(洲)에서 약 25km 떨어진 알라타우 신도시에 전 세계 최초로 K-파크 착공식을 개최했다.



카자흐스탄이 세계 최초의 한류 문화·산업 융합 단지 'K-파크(K-Park)' 건설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알마티 북쪽 25km 지점에 위치한 알라타우 스마트시티(Alatau Smart City)내에서 카자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카스피안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총 10헥타르(약 3만2천 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는 K-파크는 K-컬처존, K-푸드·라이프스타일존, K-비즈니스·이노베이션허브로 구성된다. 문화·산업 협력의 랜드마크로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이번 착공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착 9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양국의 역사적 우정과 문화적 유대가 응축된 공간으로, 2025년 10월 서울에서 열릴 'ALATAU RISE With Kazakhstan' 투자 로드쇼를 통해 스마트 인프라, 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분야의 한국 기업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 K-파크 착공식 관련 언론 보도 리스트

No.	일자	매체	헤드라인
1	09/12	디지털타임스	세계 최초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카자흐스탄에 건립
2	09/12	더팩트	'유라시아 허브'에 한류 문화산업 거점 생긴다... 카자흐스탄 'K-파크' 건립 첫 살
3	09/12	매일일보	카자흐에 전 세계 최초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건립
4	09/13	EBN	카스피안그룹,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서 세계 최초 'K-파크' 착공
5	09/15	시장경제	카자흐스탄에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 K-파크 건립
6	09/12	신경제신문	카자흐스탄에 세계 최초로 한류문화산업융복합단지 'K-파크' 조성된다
7	09/12	비즈워크	카자흐스탄에 전 세계 최초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건립된다
8	09/12	오피니언뉴스	카자흐스탄에 세계 최초로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건립
9	09/12	위크리스크한국	카자흐스탄, 세계 최초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건립
10	09/12	한국건설신문	카자흐스탄에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건립된다

뉴스 13

기회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0143?sid=101>)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심가의 편의점 CU에는 한국어 인사와 함께 라면·김밥·빼빼로 등 한국 제품이 진열돼 있다. 이는 한국 문화와 산업이 현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카자흐스탄은 25조 원 규모의 국책 개발 사업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 산업국으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며,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알라타우 시티는 알마티 북부 880km² 부지에 조성 중인 중앙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로, 전체 부지의 90% 이상이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돼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이 제공된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카스피안그룹은 한국 내 법인 '카스피안코리아'를 설립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상징적 공간인 'K-파크(K-Park)'는 고려인 유산을 기리고 한류·한국 비즈니스·라이프스타일을 융합한 10헥타르 규모 복합단지다. 유리 츠카이 회장(고려인 2세)은 "K-파크는 감사·기억·유산을 상징하며, 한국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말했다.

뉴스 14

기회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알마티 도심의 편의점 CU에서는 한국어 인사와 함께 라면·김밥·빼빼로 등 한국 제품이 일상처럼 자리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가 카자흐스탄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은 알마티 북부 880km² 규모, 25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알라타우 시티(Alatau City)'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도시는 UAM·드론·자율주행·그린에너지·첨단 의료·교육 인프라가 통합된 미래형 도시로, 약 190만 명의 인구와 110만 개 일자리를 수용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부지의 90% 이상이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돼 외국 기업은 세제 혜택과 간소화된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카스피안그룹은 한국 내 법인 **'카스피안코리아'**를 설립했다.

핵심 문화 거점인 K-파크(K-Park)는 고려인 유산과 한류, 한국 비즈니스를 융합한 10헥타르 규모 복합단지로, 2025년 9월 착공식을 통해 첫 단계가 시작된다. 유리 즈카이 카스피안그룹 회장은 "K-파크는 감사와 유산의 상징이자, 한국 기업의 안정적 활동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기획의 땅, '알라타우 시티'가보니...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경이코노미

(원문: 매경이코노미 2025년 9월 24일~30일/제2328호 70~72P.)

뉴스 15

비극 딛고 일어난 고려인...카자흐 땅 'K-파크'서 미래 주역으로

2025년 9월 21일 | 출처: 뉴시스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94734?sid=102>)

뉴스 구독

비극 딛고 일어난 고려인...카자흐 땅 'K-파크'서 미래 주역으로

조성화 기자 | 입력 2025.09.21. 오전 6:00 | 수정 2025.09.21. 오전 6:00 | 기사원문

8 3

"고려인 성공사 보여줄 것"...알라타우 착공 현장 르포
K-컬처 푸드 한자리...카자흐에 세워질 한류 복합단지



[알마티(카자흐스탄)=뉴시스] 1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근 알라타우 신도시에서 열린 K-파크 착공식에 주춧들이 보이고 있다. 무게 7.5t에 달하는 거대한 주춧들 선면에는 'K-파크'라는 글자 아래 '감사·기억·유산'이라는 한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카스피안그룹 제공) 2025.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937년 빙순으로 황무지에 내던져졌던 고려인의 후손들이 이제 카자흐스탄의 미래 산업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강제이주 90주년을 앞두고 첫 삽을 뜯 'K-파크'는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는 한국 디아스포라의 기념비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알마티(카자흐스탄)=뉴시스] 조성화 기자 = 1937년 가을, 연해주 한인 17만명은 소련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 명령에 따라 기차와 실려 중앙아시아로 내던져졌다. 눈보라가 물어치는 황무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범씨를 뿌리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세월은 어느덧 90년을 앞두고 있다.

한때는 '이방인'으로 불렸던 고려인들은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치·경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특히 고려인 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K-파크)' 조성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국책 사업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출발점으로 부각되며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경제수도 알마티의 신도시 알라타우에서 열린 K-파크 착공식은 고려인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강제이주라는 아픈 과거를 품은 고려인 사회가 이제는 국가 전략 사업의 중심에 서며 미래 도시 건설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이다.

K-파크는 알라타우 신도시 내 약 3만2500평(10ha) 부지에 들어선다. 고려인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기념 체험관과 함께 K-컬처와 K-푸드, 비즈니스 허브가 한데 모이는 세계 최초 한류 문화산업 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한 회장은 이날 착공식 전 한국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K-파크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며 "비슷한 의미를 지닌 장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만큼,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파크는 흥법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한편, 1937년 강제이주 당시 고려인을 따뜻하게 맞아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첫 완공 시점을 강제이주 90주년에 해당하는 2027년 9월로 정했다.

강제이주를 직접 겪은 1세대의 자녀도 어느덧 원로가 되어 소회를 전했다. 고려인 2세로 자신을 소개한 텐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79)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스히 맞아준 카자흐 국민께 고려인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며 "K-파크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착공식의 절정은 기념 주춧돌을 제자리에 놓는 의식이었다. 현지 언론이 몰려온 가운데 최 회장과 술단 가지예프 마랏 알마티 주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안전모를 쓴 이들은 레드카펫 위에 나란히 서서 삽을 들어 올렸다. 무게 7.5t에 달하는 거대한 주춧돌 전면에는 'K-파크'라는 글자 아래 '감사·기억·유산'이라는 한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카자흐스탄 국민의 환대에 대한 감사, 강제이주의 역사에 대한 기억, 고려인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전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K-파크로 한데 모인 고려인...멸판에 올려 퍼진 '아리랑'



카자흐스탄 한인들의 역사와 노동과 창조의 역사였다.'
대성 회연에 강제이주주를 담은 영상 내레이션이 흘러나오자, 전국 각지에서 조성된 '백발의 원로들은'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과 그 핵심 측인 K-파크 조성을 모두 이끄는 주역은 고려인 2세 최유리(77) 카스피안그룹 회장이다.
현지에서 '중앙아시아의 정주영'으로 불리는 그는 1992년 카스피안그룹을 창업해 카자흐스탄 10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14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50명의 사업가' 중 한명으로 꼽기도 했다.
상인의원을 지낸 그는 이번에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돼, 기업가를 넘어 지역 정치·사회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착공식 전 한국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K-파크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며 "비슷한 의미를 지닌 장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만큼,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파크는 흥법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한편, 1937년 강제이주 당시 고려인을 따뜻하게 맞아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첫 완공 시점을 강제이주 90주년에 해당하는 2027년 9월로 정했다.
강제이주를 직접 겪은 1세대의 자녀도 어느덧 원로가 되어 소회를 전했다. 고려인 2세로 자신을 소개한 텐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79)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스히 맞아준 카자흐 국민께 고려인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며 "K-파크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착공식의 절정은 기념 주춧돌을 제자리에 놓는 의식이었다. 현지 언론이 몰려온 가운데 최 회장과 술단 가지예프 마랏 알마티 주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안전모를 쓴 이들은 레드카펫 위에 나란히 서서 삽을 들어 올렸다. 무게 7.5t에 달하는 거대한 주춧돌 전면에는 'K-파크'라는 글자 아래 '감사·기억·유산'이라는 한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카자흐스탄 국민의 환대에 대한 감사, 강제이주의 역사에 대한 기억, 고려인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전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강제이주 90년 만에 고려인의 후손들이 카자흐스탄의 미래 산업과 문화를 상징할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에 나섰다. 2025년 9월 12일 알마티 신도시 알라타우에서 열린 'K-파크(K-Park)' 착공식은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를 기리고 한국-카자흐스탄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자리였다. 약 10헥타르 규모로 조성되는 K-파크는 고려인 역사기념관, K-컬처·K-푸드 존, 비즈니스 허브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로,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한-카 경제협력의 상징적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유리 츠카이(77) 카스피안그룹 회장은 "K-파크는 고려인의 감사·기억·유산을 담은 세계 유일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완공 목표를 강제이주 90주년인 2027년 9월로 제시했다.

K-파크가 들어서는 알라타우 시티(880km²)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조성 중인 초대형 스마트시티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중앙아시아의 싱가포르"로 선언했다. 프로젝트 주체인 카스피안그룹과

32















고려인 기업들은 UAM·수소 에너지·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첨단 산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카자흐 투자청과 함께 서울에서 'Alatau RISE with Kazakhstan' 국제 로드쇼를 열어 한국 기업 참여를 확대 할 예정이다. 마라트 술탕가지예프 알마티 주지사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알라타우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고, K-파크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새로운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6

"중앙亞 최대 한류공원에 고려인 역사 담을 것" – [누르갈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인터뷰]

2025년 9월 24일 | 출처: 매일경제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4349?sid=104>)

매일경제 구독

"중앙亞 최대 한류공원에 고려인 역사 담을 것"

김재관 기자 | 입력 2025.09.24. 오후 5:57 | 수정 2025.09.24. 오후 7:34 | 기사원문

1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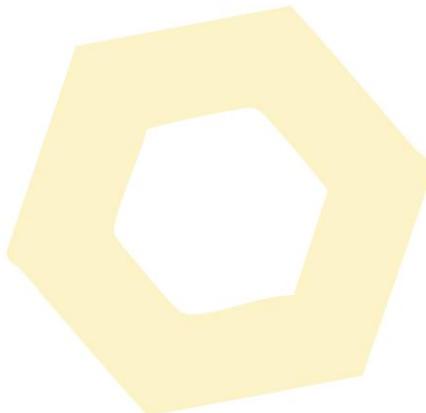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스마트 신도시 '알라타우'에서
K컬처-푸드 공간 척공식 열어
한국 소프트파워 보여줄 기회
카자흐가 최고의 파트너 될 것



"새로 만드는 스마트 시티에 한국 음식점, 상점 등 한류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K파크(K-PARK)를 만들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관광·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싶어요."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지난 22일 매일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 사업인 '알라타우(ALATAU) 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K파크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K파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25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인 알라타우 시티 내 약 3만250평(10ha) 용지에 들어선다. 지난 12일 알라타우 현지에서는 K파크 척공식이 열렸다.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알라타우 시티(Alatau Smart City)내에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글로벌 복합문화공간 'K-파크(K-Park)'를 조성하고 있다. 총사업비 25조 원(약 180억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문화·관광·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프로젝트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Nurgali Arystanov)는 인터뷰에서 "K-파크는 한국 음식, 상점, 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양국 간 협력을 상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K-파크는 알마티 북쪽 25km 지

점, 10헥타르(약 3만2천 평) 부지에 들어서며 9월 12일 착공식을 통해 본격 추진됐다.

알라타우 시티는 880km² 규모로 부산보다 크며, 자원 중심 경제에서 고기술 산업 구조로 전환하려는 카자흐의 대표 사업이다. 금융·물류·관광·교육·문화·여가가 결합된 통합 스마트 생태계로 개발되고 있다.

아리스타노프 대사는 “알마티는 카자흐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이곳에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미 870여 개 한국 기업이 활동 중인 만큼, 한국은 가장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네덜란드에 이어 카자흐스탄의 3대 투자국으로, 누적 투자액은 12억 달러(약 1조6천억 원)에 달한다.

뉴스17

“중앙아 최대 한류공원에 고려인 역사 담을 것” – [누르갈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인터뷰]

2025년 9월 25일 | 출처: 매일경제

(원문: 매일경제 2025년 9월 25일 인물 29면)

매일경제

“중앙아 최대 한류공원에 고려인 역사 담을 것”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스마트 신도시 ‘알라타우’에서 K컬처·푸드 공간 착공식 열어

한국 소프트파워 보여줄 기회
카자흐가 최고의 파트너 될 것



시티 내 약 3만 250평(10ha) 용지에 들어선다. 지난 12일 알라타우 협력에서는 K-파크 착공식이 열렸다.

“새로 만드는 스마트 시티에 한국 음식점, 상점 등 한류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K파크(K-PARK)를 만들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관광·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싶어요.”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지난 22일 매일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 사업인 ‘알라타우(ALATAU)’ 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K파크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K파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25조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인 알라타우

카자흐스탄 정부가 기존 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첨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바꾸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최대 규모 신도시다. 면적은 880km²로 부산(771km²)보다 넓으며, 금융·산업·물류·관광은 물론 교육·문화·레저까지 아우르는 복합 스마트 시티로 설계됐다.

아리스타노프 대사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이자 경제·문화적 중심지인 알마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알라타우에 첨단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새로운 메가 시티를 만들려 하고 있는데,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 자연스럽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리스타노프 대사는 “K는 카자흐스탄을 뜻할 수도,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뜻할 수도 있다”며 “K파크에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박물관과 체험관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K가 붙은 것이라면 음식, 화장품, 드라마 등 모든 것이 인기”라고 강조했다.

K파크가 들어서는 알라타우 시티는

2025년 09월 25일
29면 (인물)

김제관 기자
(17.9×13.8)cm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알라타우 시티(Alatau Smart City)’ 내에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글로벌 복합문화공간 **‘K-파크(K-Park)’**를 조성하고 있다. 총사업비 25조 원(약 18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문화·관광·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사업으로, 9월 12일 착공식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Nurgali Arystanov)는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K-파크는 한국 음식, 상점, 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파크는 알마티 북쪽 25km 지점, 10헥타르(약 3만2천 평) 부지에 들어서며 9월 12일 착공식을 통해 본격 추진됐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Nurgali Arystanov)**는 “K-파크는 한국 음식, 상점, 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알마티 북쪽 25km 지점 10헥타르(약 3만2천 평) 부지에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알마티는 카자흐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한국은 870여 개 기업이 활동하는 가장 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의 누적 투자액이 12억 달러(약 1조6천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18

삼정KPMG,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 개최

2025년 9월 24일 | 출처: 아시아경제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56576?sid=101>)

아시아경제  구독

삼정KPMG,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 개최

김대현 기자  TALK
입력 2025.09.24. 오전 7:50 · 수정 2025.09.24. 오전 7:51 [기사원문](#)



삼정KPMG는 24일 "다음 달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및 카자흐스탄 대표기업과 함께, 한국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Alatau City) 신도시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자흐스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4.9%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평균 성장률(4.1%)을 상회했다. 2022년 3.2%, 2023년 5.1%, 지난해 4.8%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견고하다. 카자흐스탄의 국내총생산(GDP)도 지난해 약 400조원에서 2027년 약 56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전 세계 주요국의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알라타우 신도시 로드쇼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 모멘텀을 반영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카자흐스탄 대표 기업, 삼정KPMG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카자흐스탄 부총리와 산업건설부, 교통부, 에너지부 차관이 방한해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와 알라타우 개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삼정KPMG는 오는 10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시티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카자흐 정부 및 주요 국영기업과 공동 주최로,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은 신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급부상했다.

2025년 상반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4.9%로 CIS 평균(4.1%)을 웃돌며, 2022년 3.2%, 2023년 5.1%, 지난해 4.8%에 이어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GDP는 2024년 400조 원(2,900억 달러)에서 2027년 560조 원(4,05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로드쇼는 카자흐 정부의 대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알라타우 시티'추진과 맞물린 행사로, 카자흐 부총리 및 산업·건설·교통·에너지 부처 차관 등이 방한해 한국 정부·공공기관·기업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에서는 G2G(정부 간 협력)프레임워크와 스마트시티 도시 개발 전략이 다뤄지며, 삼정KPMG 박문구 파트너가 '카자흐스탄 미래 산업 디자인과 한국 기업 협력' 세션을 진행한다.

■ 로드쇼 개최 공지 관련 언론 보도 리스트

No.	일자	매체	기사
1	09/12	뉴시스	삼정KPMG, 다음달 '카자흐스탄 신도시 로드쇼' 개최
2	09/24	아시아경제	삼정KPMG,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 개최
3	09/24	머니투데이	삼정KPMG, 내달 '카자흐스탄 신도시 로드쇼' 개최
4	09/24	이데일리	삼정KPMG, 내달 '카자흐스탄 신도시 로드쇼' 개최
5	09/24	헤럴드경제	삼정KPMG, 카자흐 정부·기업과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 개최
6	09/24	조세일보	삼정KPMG, 10월 15일 '카자흐스탄 신도시 로드쇼' 개최
7	09/24	와이드경제	삼정KPMG, 다음달 '카자흐스탄 신도시 로드쇼' 개최

뉴스19

[르포] '강제이주의 땅'에서 '미래의 공간'으로... 카자흐스탄에 고려인 공원 들어선다

2025년 10월 1일 | 출처: 한국일보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0269?sid=104>)



[르포] '강제이주의 땅'에서 '미래의 공간'으로... 카자흐스탄에 고려인 공원 들어선다

한국일보 2025.10.01. 오전 9:00 기사원본

한마디 K-Park 학술제
알라타우 신도시 300명 규모
공원 한복 등 복합문화공간
'90년 90년 2027년 완공
'주류 고려인 위상 보여줘'

K-파크 프로젝트는 고려인 최유리(77) 카스피안그룹 회장이 이끌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인 그는 "카스피는 90년 동안 고려인들이 어렵게 살고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카자흐스탄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데 '한국'이라며 '전 세계 고위인들이 찾아와 강제이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지 정·재계 인사와 고려인 등 300여 명이 들어온 행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전통 한여장 '고비즈'가 연주하는 어려움이 물리되었다. 마라 암마스바치 아길라호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부의장은 "K-파크의 대규모 공원은 새로운 휴식·여가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낯선 타국 땅에 창작곡 춤동체 짐단(마이소프리아산·薩丹) 1기념 공연을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는 한지 사회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 2024년 카자흐스탄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부자 1위는 최대 은행인 카스피 은행의 김 베체슬라브 회장이었다. 상위 500인 중 7인이 고려인이다. 고려인 인구 비중은 0.6%로 절대 고려인에 비해 적다. 1,300개 민족으로 이뤄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이 4대 주요(월등)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한다.



9월 12일 열린 K-파크 창작 춤동체 짐단(마이소프리아산·薩丹) 1기념 공연에서 고려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카스피 안코리아 제공

고려인 기업인들은 카자흐스탄 산업 구조를 탈바꿈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핵심 인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5조 원을 빌어 부산(771㎢)보다 큰 신도시를 짓고 '에어버시' 같은 도심형공공교통(UAM)부터 자상 자동주행차, 드론 등 신(新)산업의 베카로 키우려 한다. 또 석유·연안가스 등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짐단 산업과 복합·금융 등이 결합한 경상 아시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카스피안그룹은 전국에 법인을 세우고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에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인세 면제 등을 내걸었다. 솔단기지에만 마리 알로시조치 알마티 주지사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과 특권이 제공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카자흐스탄은 한국 내 제조적 규제에 실험개발·상용화가 쉽지 않은 모빌리티, 수소 경제 등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1937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17만 명의 고려인. 88년이 흐른 오늘, 그 아픔의 땅에 'K-파크(K-Park)'라는 이름의 희망의 공간이 세워진다.

알마티 북동쪽 25km 지점 알라타우 스마트시티(Alatau Smart City)내 10헥타르 부지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고려인 기념관, 한국 전통 마을, 문화공원을 포함해 1937년 이주의 90주년이 되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이는 카자흐스탄 대표 대기업 카스피안그룹의 유리 츠카이(Yuriy Tskhay) 회장이다. 그

36















는 “K-파크는 고려인이 역경을 극복해 성공으로 나아간 여정을 보여주며, 우리를 품어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추방의 상징이었던 땅이 한-카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약 11만 명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카스피은행 회장 비아체슬라프 김 (Vyacheslav Kim)등 국가 최고 부호와 영향력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25조 원 규모의 알라타우 스마트시티는 ‘중앙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지향하며,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자부심으로 바꾸는 역사와 혁신의 교차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스20

[르포] ‘강제이주’ 아픔 서린 공간에 열매 맺은 ‘고려인 공원’

2025년 10월 1일 | 출처: 한국일보

(원문: 한국일보 2025년 10월 1일 경제 19면)

한국일보

‘강제이주’ 아픔 서린 공간에 열매 맺은 ‘고려인 공원’

전문용·전표끌라·전명진= 9월 1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전 알렉
산드르 폐도보비치(79)는 점을 재기 안
주마다에서 빛바랜 빼모지 한장을 끼
냈다. 세상을 떠난 그의 부친이 한글로
작은 조상의 이름이 담겨 있다. 알렉
산드르는 러시아어로 ‘증조 할아버지
지아쁨이전문숙’이라 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2세다. 1937년 10월, 봄모의 조부모는
러시아 연해주를 떠나 이전 알마티에
도착했다. 소련 지도자 스탈린이 연해주
에 살던 고려인 17만여 명을 잠재적
일본 침자로 보고 강제이주 명령을 내
렸기 때문.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켜
긴장이 높아지면서 떠났다. 영원도 모른
채 물불과 가족·반용 열차에 몸을 실



은 고려인들은 한 달 넘게 6,500km를
횡단해 중앙아시아로 뿌려졌다.

이날 카자흐스탄의 경제수도 알마
티주(州)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
진 알마티에서 강제이주 역사
를 기억하기 위한 ‘K-파크(K-Park)’
작공식이 있었다. 이전 강제이주 기념
을 기록한 고려인 수십여 명이 모였다.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죽은 열차에
탔던 고려인 1세들이 있다. 죽구장 14
개를 합친 37.9만m²의 부지에 현
대식 공원은 물론 박물관과 한옥마을,
수영장, 비즈니스 센터 등이 이설에
정다. 강제이주 90주년이 되는 2027
년에 완공 예정이다.

K-파크 프로젝트는 고려인 2세 최유
리(77) 카스피안그룹 회장이 일궜다.
그는 “K-파크는 고려인의 역경 극복과 카자
흐스탄에 대한 감사의 상징”이라며, “과거 추방의 땅을 한-카 협력의 상징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현지 사회의 주류로 자리매김

한 고려인의 위상과 무관치 않다. 2024
년 카자흐스탄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부자 1위는 회의 회장인
카스피은행의 김 배체슬라브 회장이었
다. 삼위 50인 중 7인은 고려인이다. 고
려인 인구 비중이 0.6%인 점을 고려하
면 예제작이다. 130개 민족으로 이뤄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이 4대 주(族)를
撐하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고 한다.

고려인 기업인들은 카자흐스탄 산업
구조를 탈바꿈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핵심 인사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통해
25조 원을 들여 부산(771㎢)보다 큰
신도시를 ‘코리아시티’ 같은 도심형
광교촌(UAM)부터 지상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등 신(新)산업의 메카로 기
우려 한다. 또 석유화학·가스 등 이온
하는 경제 구조를 험난 산업과 물류·금
융 등이 결합한 중앙 아시아의 싱가포
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카스피안그룹은 한글에 밟을 수 세우
고 대입장 힘을 추진 중이다. 카자
흐스탄 정부도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슬련카자프 마릿 일사시(57) 카자
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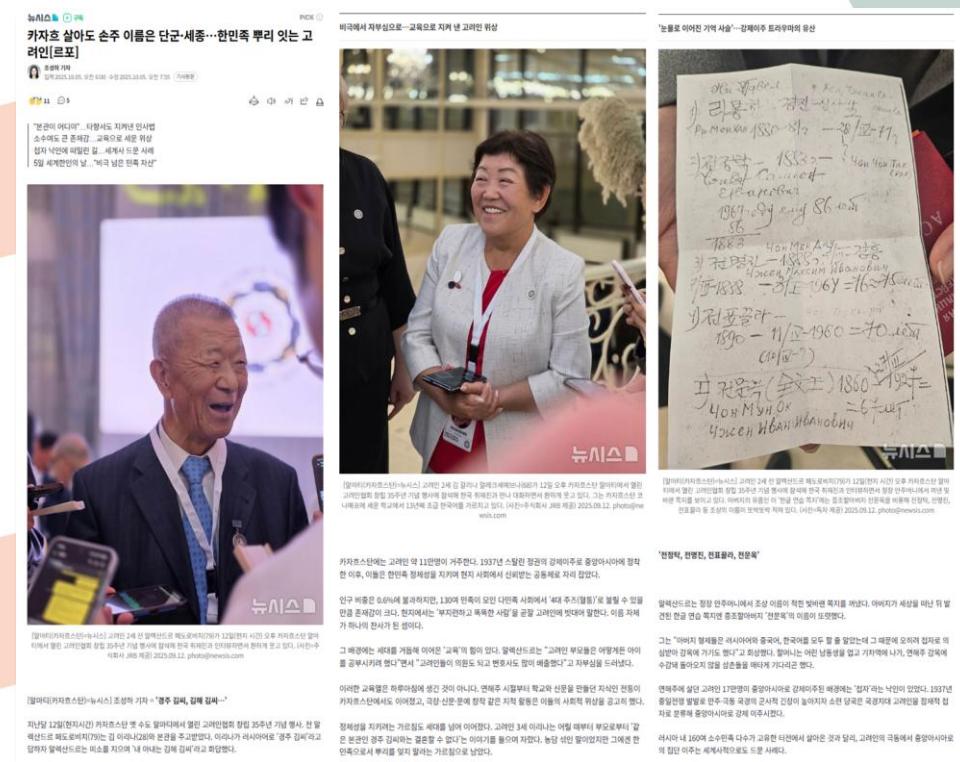
카자흐스탄 기관인 알라타우 신도시 부지
를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며
25년 동안 법과 세제 면제 등을 내걸었다.

뉴스21

카자흐 살아도 손주 이름은 단군·세종...한민족 뿌리 잇는 고려인[르포]

2025년 10월 5일 | 출처: 뉴시스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23394?sid=102>)



1937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강제이주된 지 88년.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공동체(Koryo-saram)는 여전히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약 11만 명의 고려인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가장 존경받는 집단으로 꼽힌다. 세대가 바뀐 지금도 손주 이름을 '단군', '세종'이라 짓는 가족이 있을 정도로 깊은 민족적 자부심이 살아 있다.

비극으로 시작된 역사는 이제 자립과 성취의 서사로 바뀌었다. 초기 정착민들은 생존의 열쇠가 교육이라 믿고 자녀를 공부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 카자흐 사회의 정치인, 의사, 기업인 다수가 고려인 출신이다.

고려일보와 고려극장은 여전히 한국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으며, 코나예프 등 일부 도시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운영 중이다.

비록 그들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망향가'처럼 이주의 슬픔이 남아 있지만,

이제 그 기억은 자부심의 근원으로 바뀌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은행 회장 비아체슬라프 김을 비롯한 여러 고려인을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다.

강제이주에서 세계적 성공으로 이어진 그들의 여정은 "디아스포라가 상실을 유산으로 바꾸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Media Exposure on Alatau City

News 1

Chairman Yuriy Tskhay Speaks to Korea Economic Daily

2025.05.18

Source: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802141>

Caspian Group Chairman Yuriy Tskhay, a second-generation ethnic Korean, is spearheading the Alatau City project

Caspian Group Chairman Yuriy Tskhay, a second-generation ethnic Korean, is spearheading the Alatau City project - an ambitious 880 km²smart city development near Almaty aimed at transforming Kazakhstan's oil-dependent economy into a hub for high-tech industries. Deeply committed to strengthening ties between Kazakhstan and Korea, Chairman Tskhay is actively promoting Korean smart city technologies as a foundation for the project. To encourage Korean corporate participation, Caspian Korea - the Group's local affiliate - will host the Alatau Rise 2025 roadshow in Seoul this October, positioning the project as a strategic bridge between the two nations' futures.

News 2

Kazakhstan – A Rising Star on the Silk Road Amid Global Trade Shifts by KBS News

2025.06.12

Source: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7361>

With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Kazakhstan's geopolitical significance in Central Asia come into focus. The region is gaining attention as a key energy supplier and logistics hub. Strategically located at the crossroads of the historic Silk Road, Kazakhstan is leveraging its position to attract international investments.

To bolster its appeal, Kazakhstan has introduced an investment visa system granting up to 10 years of residency to foreign investors. The country has also established the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AIFC), aiming to position itself as the "Singapore of Central Asia." Over the past seven years, the AIFC has attracted investments from approximately 4,000 companies across more than 80 countries, solidifying Kazakhstan's role as a magnet for foreign capital.

Korean companies are also seizing opportunities in Kazakhstan, with Hyundai Motor launching production in Almaty in 2024, marking a significant step in expanding economic ties.

Yuriy Tskhay,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in Kazakhstan, emphasized the country's strategic advantage: "Kazakhstan is located at the very heart of Central Asia. Its position is extremely favorable, which is why it is attracting significant attention today."

News 3

Pivotal role of Alatau City in shaping Kazakhstan's industrial future by Hankuk Ilbo

2025.07.14

Sourc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15220004127>

Chairman Yuriy Tskhay and CEO of Caspian Korea Yuliya Kim recently gave an interview to Hankuk Ilbo, highlighting the pivotal role of Alatau City in shaping Kazakhstan's industrial future.

Chairman Tskhay also shared his vision for a cultural memorial park within Alatau City to commemorate the history and resilience of relocated ethnic Koreans - a deeply personal project rooted in his family's legacy.

The development of Alatau City — a large-scale, high-tech urban hub near Almaty — aims to transition Kazakhstan's economy away from its reliance on oil and gas and toward next-generation industries such as urban air mobility and autonomous logistics. The project actively seeks participation from Korean companies, positioning it as a strategic opportunity for both Kazakhstan and Korea.

Chairman Tskhay also shared his vision for a cultural memorial park within Alatau City to commemorate the history and resilience of deported ethnic Koreans — a deeply personal project rooted in his family's legacy.

News 4

KOTRA Strengthens Strategy to Enter CIS Region... “Let’s Create the Second ‘Mongtan’” by Maeil Economy **2025.07.16**

Source: [코트라, CIS지역 진출 전략 강화...“제2의 ‘몽탄’ 만들자” - 매일경제](#)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has taken steps to positio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region as a “foothold for exports.”

On the 16th, KOTRA President Kang Kyung Sung, speaking at the *CIS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Strategy Meeting* held in Almaty, Kazakhstan, said, “The tectonic shifts in the Eurasian continent signal the need to discover new alternative markets.”

Participants discussed strategies to expand Korean-style business success models in Central Asia, approaches to entering untapped markets such as the three Caucasus countries (Georgia, Armenia, and Azerbaijan), and ways to strengthen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spreading the successful Mongtan (Mongolia + Dongtan) business model—based on the Korean Wave (Hallyu)—to Central Asia. KOTRA plans to expand entry into convenience stores, franchises, and the medical and bio sectors leveraging Hallyu consumption, while improving market accessibility through Hallyu expos and local retail network participation.

KOTRA also plans to increase activities in the three Caucasus countries. In Georgia, a new Tbilisi trade center will be established to generate short-term results aligned with the local government’s strategies, such as medical infrastructure projects. In Kyrgyzstan, a joint logistics center will be set up to strengthen the export foundation.

Currently, KOTRA continues to operate the *Russia-Ukraine Emergency Response Task Force*, monitoring local developmen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Russia-Ukraine situation, while also supporting entry via the Northern Sea Route.

President Kang stated, “Although the CIS region has high value as a foothold for exports, geopolitical risks have limited the expansion of entry,” adding,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ensure stable business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domestic companies in the CIS region, which is a strategic hub for diversifying export markets.”

News 5

Alatau City Revives Silk Road Heritage with Koryo-saram Legacy by Maeil Economy **2025.07.24**

Source: <https://m.mk.co.kr/news/contributors/11376826>.

Alatau City, a visionary smart city near Almaty, Kazakhstan, is reawakening the ancient Silk Road’s storied past as a center of global trade and cultural fusion. Emerging in the 2nd century BCE as a trade route between the Han Dynasty and Roman Empire, the Silk Road thrived until the 16th century, with Central Asia serving as a melting pot of civilizations. Once faded, this “forgotten Silk Road” is now resurging, and Alatau City stands at its heart, blending history with innovation.

Central to this revival is the Koryo-saram community—approximately 300,000 ethnic Koreans forcibly relocated to Central Asia in 1937 by the Soviet government. Overcoming adversity, they transformed barren lands into vibrant communities, earning acclaim as a “model minority.” Uzbekistan’s president recently lauded their impact, stating their efforts were crucial to the nation’s development. These resilient descendants are now bridging ties with South Korea, their ancestral homeland, through entrepreneurial spirit and cultural pride. Their presence strengthens Alatau City’s appeal as a cultural and economic hub, reflecting a legacy of resilience that dates back generations.

With plans to integrate high-tech industries and a cultural memorial, Alatau City honors this heritage while looking to the future. Supported by South Korean urban expertise, it promises to reconnect East and West in a modern context.

News 6

Alatau City: A Symbol of Koryo-saram Legacy and Central Asia's Future by Digital Times
2025.08.13.

Source: [\[기고\] 광복 80주년, 고려인의 '알라타우 시티'](#)

This year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and approaches the 90th anniversary of the forced relocation of Koreans to Kazakhstan. Despite immense hardships, Koryo-saram (ethnic Koreans) preserved their identity and became key contributors to Kazakh society and economy, while fostering exchanges with Korea.

Now, Korea and Kazakhstan are moving beyond simple exchange and cooperation toward shared growth and a concrete vision for the future. A symbolic example of this is the Alatau City project, a national initiative of the Kazakh government in which Koryo-saram entrepreneurs, led by Caspian Group founder Yuriy Tskhay, play a central role. Caspian Korea, a Korean affiliate of Kazakhstan Caspian Group, facilitates Korean investment and collaboration, bringing IT, infrastructure, and K-culture to Central Asia.

To commemorate the history of Koryo-saram in Kazakhstan, Caspian Group is building **K-Park**, a Kazakh-Korean cultural hub, set to open in 2027 in Alatau City. As a result, Alatau City will offer Korean companies a foothold in Eurasia while serving as an international platform for future generations of Koreans and Kazakhs.

This project embodies the vision of Koryo-saram descendants to create a "Second Silk Road," linking Eurasia through commerce, innovation, and culture.

News 7

Kazakhstan Launches \$25B Alatau City Smart City, Invites Korean Partners by Digital Times
2025. 8. 31

Source: [25兆 규모 '알라타우 시티' 본격화...카자흐, 우수 기술력 보유한 韩에 러브콜](#)

Kazakhstan is developing \$25B Alatau City north of Almaty, spanning 880 km². When completed the project will provide housing for up to 1.9M people and create 1.1M jobs. The smart city will feature such industries as urban air mobility, ITS, PropTech, green energy, and advanced healthcare and education.

Korea is set to become a key partner in building up of the new city, recognized for its excellence in global smart city construction. Korean companies like KD Navien, LOTTE Wellfood, and DSME Construction already have operations in Kazakhstan, with 50 firms being active in Almaty's industrial zone.

Designated as a Special Economic Zone (SEZ), Alatau City offers investors various benefits including tax exemptions, simplified visa procedures, and streamlined one-stop administration services. President Tokayev envisions Alatau city as the "Singapore of Central Asia."

The upcoming **ALATAU RISE With Kazakhstan** event (Oct 15-16, 2025) will provide Korean firms a platform to explore opportunities to take part in this ambitious project.

News 8

Kazakhstan to Host the World's First K-Park — a Global Convergence Hub for Korean Culture and Industry by Digital Times
2025.09.12

Source: [세계 최초 한류 문화산업 융복합단지 'K-파크', 카자흐스탄에 건립](#)

Kazakhstan has begun construction of K-Park, the world's first global convergence complex for Korean culture and industry, within the Alatau Smart City, located 25 kilometers north of Almaty. Led by Caspian Group with full government support, the project marks the first phase of Kazakhstan's \$25 billion national smart city initiative. Spanning 10 hectares, K-Park will integrate the K-Culture Zone, K-Food & Lifestyle Zone, and K-Business & Innovation Hub, serving as both a cultural landmark and a strategic platform for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The project also commemorates the 90th anniversary of the Koryo-in (ethnic Korean) settlement in Central Asia, symbolizing the shared history and friendship between the two nations. Through the upcoming "ALATAU RISE With Kazakhstan" Investment Roadshow in Seoul (Oct 15–16), Caspian Group and Kazakh Invest aim to attract leading Korean companies in smart infrastructure, mobility, and green energy to participate in the broader Alatau City Project, envisioned by President Tokayev as the "Singapore of Central Asia."

No.	Date	Media	Headline
1	09/12	Digital Times	World's First Korean Cultural & Industrial Convergence Complex "K-Park" to Be Built in Kazakhstan
2	09/12	The Fact	A Hub for Korean Cultural Industry Emerges in the "Eurasian Gateway"… Kazakhstan Breaks Ground on 'K-Park'
3	09/12	Maeil Ilbo	Kazakhstan to Build the World's First Korean Cultural & Industrial Convergence Complex "K-Park"
4	09/13	EBN	Caspian Group Begins Construction of World's First "K-Park" in Alatau Smart City, Kazakhstan
5	09/15	Market Economy	Kazakhstan to Build K-Park, a Convergence Complex for Korean Culture and Industry
6	09/12	New Economy Newspaper	Kazakhstan to Establish the World's First Korean Cultural & Industrial Convergence Complex "K-Park"
7	09/12	Biz Work	Kazakhstan to Construct the World's First Korean Cultural & Industrial Convergence Complex "K-Park"
8	09/12	Opinion News	Kazakhstan to Build the World's First Korean Cultural & Industrial Convergence Complex "K-Park"
9	09/12	Weekly Risk Korea	Kazakhstan Launches the World's First Korean Cultural & Industrial Convergence Complex "K-Park"
10	09/12	Korea Construction News	Kazakhstan to Build the World's First Korean Cultural & Industrial Convergence Complex "K-Park"

News 9

Kazakhstan's Miracle Embracing K-Tech [Global] by Maekyung Economy
2025.09.19

Source: [K-기술 품을 '카자흐스탄의 기적' \[Global\]- 매경ECONOMY](#)

Stepping into a CU convenience store in central Almaty, one is greeted in Korean and surrounded by Korean products like instant noodles, kimbap, and Pepero. The store mirrors Seoul outlets, showing how Korean culture and business are already embedded in local life.

Korea is emerging as a key partner in Kazakhstan's ambitious *Alatau City Project*, a 25-trillion-won smart city north of Almaty spanning 880 km²—larger than Busan. Designed as a futuristic city, it integrates urban air mobility (UAM), drones, autonomous vehicles, green energy, and advanced medical and educational infrastructure into city life. The city aims to accommodate 1.9 million residents and create 1.1 million jobs, while fostering a *Low-Altitude Economy*.

Over 90% of Alatau City has been designated a Special Economic Zone (SEZ), offering tax exemptions, streamlined residency procedures, and legal protection for foreign investors. Korea, with its smart city technologies, has been identified as a key partner, and Caspian Group has established *Caspian Korea*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 key cultural and business centerpiece is *K-Park*, a 10-hectare hub celebrating Koryo-saram heritage and promoting Hallyu culture, Korean business, and lifestyle. The groundbreaking ceremony took place on **12 September 2025**, marking the official start of construction and symbolizing the 1st phase of development. In an interview, Caspian Group Chairman **Yuriy Tskhay** said: "K-Park embodies gratitude, memory, and legacy. It honors the sacrifices of first-generation Koryo-saram and creates a safe environment for Korean companies to operate. Through Alatau City, Korean firms can expand business while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Promising sectors for Korean investment include UAM and drone infrastructure, the hydrogen economy, future mobility, and digital industries like fintech and proptech. Experts see Alatau City as a rare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to export K-Tech, expand global supply chains, and participate in a high-tech industrial hub in Central Asia.

News 10

Koryo-saram's "K-Park" Groundbreaking in Kazakhstan's New Alatau City by Newsis 2025.09.21

Source: [비극 딛고 일어난 고려인...카자흐 땅 'K-파크'서 미래 주역으로](#)

Project marks 90 years since forced relocation and highlights role of Korean diaspora in nation's future

Nearly 90 years after ethnic Koreans were forcibly relocated to Central Asia, their descendants are building a new landmark in Kazakhstan's future industries. On September 12,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K-Park, a Korean cultural and business complex, was held in Alatau, Almaty's new satellite city.

K-Park will occupy 10 hectares within the Alatau Smart City project, featuring a memorial and experience center on Koryo-saram history, alongside hubs for K-culture, K-food, and business. The site is designed not only as a cultural landmark but also as a bas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azakhstan and Korea.

The project is led by Yuriy Tskhay (77), Chairman of Caspian Group and head of the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Often dubbed the "Chung Ju-yung of Central Asia," Tskhay has grown Caspian into one of Kazakhstan's top companies since 1992.

"Through K-Park, we can show how Koreans succeeded in Kazakhstan," Tskhay said. "There is no place like this anywhere else in the world, and it will attract visitors from across the globe."

The ceremony, attended by 300 guests, looked back at the community's tragic past, with elders moved to tears as a video on the 1937 relocation played. A foundation stone engraved with the words "Gratitude, Memory, Legacy" was laid to symbolize remembrance and future vision. Completion of the first phase is set for September 2027, the 90th anniversary of the relocation.

Alatau: Toward a "Singapore of Central Asia"

K-Park is part of the Alatau City project, Kazakhstan's largest new city initiative backed by \$18 billion in state investment. Covering 880 km², larger than Busan, the smart city aims to house 1.9 million people and create 1.1 million jobs, with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 vowing to make it the "Singapore of Central Asia."

Caspian Group and other Koryoin companies are key partners, helping to attract advanced industries including urban air mobility, hydrogen energy, and battery recycling. Next month, Caspian will co-host the "Alatau RISE" international roadshow in Seoul with Kazakhstan's Investment Agency to explore cooperation with Korean firms.

Almaty Governor Marat Sultangaziyev welcomed the initiative, saying: "With Alatau now granted legal status, we will actively provide incentives for investors. K-Park will set a new cultural standard and become a space for citizens to enjoy modern leisure."

News 11

"We Will Embed the History of Koryoin in Central Asia's Largest K-Culture Park" by Maeil Business Daily 2025.09.24

Source: ["중앙포 최대 한류공원에 고려인 역사 담을 것"](#)

Kazakhstan is developing K-Park, a global cultural and business hub dedicated to Korean culture within Alatau Smart City, the largest smart city project in Central Asia. The initiative, valued at 25 trillion won (approx. USD 18 billion), aims to strengthen cultural, tourism, and economic tie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Maeil Business Newspaper, **Nurgali Arystanov, Ambassador of Kazakhstan to Korea**, said: "We hope to build K-Park—a space that brings together Korean restaurants, shops, and cultural experiences—within the new smart city to promote mutual cooperation between our two nations."

Located 25 kilometers north of Almaty, K-Park will occupy a 10-hectare (approx. 32,500-pyeong) site within Alatau City. The groundbreaking ceremony was held on September 12, 2025, marking the project's official start. Ambassador Arystanov emphasized that K-Park will not only showcase Korea's soft power but also commemorate the history of Koryo-saram (ethnic Koreans in Central Asia).

"The 'K' can represent both Kazakhstan and Koryo-saram. We plan to include a museum and cultural center honoring their legacy," he said, noting that Korean food, beauty products, and dramas are already extremely popular among Kazakh youth.

Alatau Smart City, which spans 880 km²—larger than Busan, is Kazakhstan's flagship project to transition from a resource-based economy to a high-tech industrial one. The city will integrate finance, logistics, tourism,

education, culture, and leisure into a comprehensive smart ecosystem.

"Our goal is to create a cutting-edge smart city near Almaty, Kazakhstan's economic and cultural heart," said Arystanov. "With many Korean companies already active in Kazakhstan, Korea is naturally positioned to become our most strategic partner." Korea currently ranks as Kazakhstan's third-largest investor, following Russia and the Netherlands, with USD 1.2 billion invested and over 870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country.

News 12

Samjong KPMG to Host 'Alatau New City Development' Roadshow in Kazakhstan by Asia Economy 2025.09.24

Source: [삼정KPMG,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로드쇼 개최](#)

Samjong KPMG announced on the 24th that it will host the "Kazakhstan Alatau City Global Roadshow" on October 15 at Lotte Hotel in Sogong-dong, Seoul,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and Kazakhstan's leading enterprises, targeting Korean public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Kazakhstan has rapidly emerged as a new global business hub.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Kazakhstan's real economic growth rate reached 4.9%, surpassing the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verage of 4.1%. The country has maintained solid growth—3.2% in 2022, 5.1% in 2023, and 4.8% last year—with GDP projected to expand from KRW 400 trillion (USD 290 billion) in 2024 to KRW 560 trillion (USD 405 billion) by 2027.

As Eurasia's new logistics network centers around Kazakhstan, major global investment flows are increasingly directed toward the region.

The Alatau City Roadshow is part of a large-scale national development initiative reflecting this momentum. Co-hosted by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leading Kazakh enterprises, and Samjong KPMG, the event will bring together Kazakhstan's Deputy Prime Minister and vice ministers from the Ministries of Industry and Construction, Transport, and Energy, who will visit Korea to discuss cooperation on the Alatau City development project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Korean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 the afternoon session, discussions will cover government-to-government (G2G) cooperation frameworks and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Alatau Smart City. Partner Park Moon-gu of Samjong KPMG will moderate a panel on "Kazakhstan's Future Industrial Design and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No.	Date	Media	Headline
1	09/24	Asia Economy	Samjong KPMG to Host 'Alatau New City Development' Roadshow in Kazakhstan
2	09/24	Edaily	Samjong KPMG to Hold 'Kazakhstan New City Roadshow' Next Month
3	09/24	Herald Economy	Samjong KPMG, Together with Kazakh Government and Corporates, to Host 'Alatau New City Development' Roadshow
4	09/24	Jose ilbo	Samjong KPMG to Hold 'Kazakhstan New City Roadshow' on October 15
5	09/24	Money Today	Samjong KPMG to Host 'Kazakhstan New City Roadshow' Next Month
6	09/24	Newsis	Samjong KPMG to Hold 'Kazakhstan New City Roadshow' Next Month
7	09/24	Wide Economy	Samjong KPMG to Hold 'Kazakhstan New City Roadshow' Next Month

News 13

[On-site Report] From the Land Scarred by Forced Deportation to a Space of the Future — A Koryo-saram Heritage Park to Rise in Kazakhstan by Hankook Ilbo

2025.10.01

Source: [\[르포\]‘강제이주’ 아픔 서린 땅이 미래 공간으로...카자흐스탄에 고려인 공원 들어선다](#)

Eighty-eight years after the forced deportation of 170,000 Koreans from Russia's Far East to Central Asia, Kazakhstan has begun construction of **K-Park**, a heritage and cultural complex honoring the Koryo-saram community.

Located in Alatau Smart City, 25 kilometers northeast of Almaty, the 10-hectare site will include a museum, traditional Korean village, and cultural park, commemorating the 90th anniversary of the deportation in 2027.

The project is led by Yuriy Tskhay, chairman of Caspian Group, one of Kazakhstan's largest conglomerates. "K-Park will show how Koryo-saram turned hardship into success and express our gratitude to Kazakhstan," he said.

The initiative symbolizes how the once-exiled community has become part of Kazakhstan's national fabric. Today, about 110,000 Koryo-saram live in the country, and several, including Vyacheslav Kim, chairman of Kaspi Bank, rank among Kazakhstan's wealthiest and most influential figures.

Built within the \$25 billion Alatau Smart City, envisioned as the "Singapore of Central Asia," K-Park connects history and the future — transforming a land of sorrow into a space of pride and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News 14

Even While Living in Kazakhstan, Their Grandchildren Are Named Dangun and Sejong... Koryo-saram Continuing the Korean Heritage [On-site Report] by Newsis

2025.10.05

Source: [카자흐 살아도 손주 이름은 단군·세종...한민족 뿌리 잊는 고려인\[르포\]](#)

Eighty-eight years after the forced deportation of Koreans from Russia's Far East, the Koryo-saram community in Kazakhstan continues to preserve its Korean roots.

Today, around 110,000 ethnic Koreans live across the country — a small minority, yet one of its most respected. Even generations later, families still name their children Dangun and Sejong, reflecting deep cultural pride. What began as tragedy in 1937 has become a story of resilience and achievement. Early Koryo-saram settlers believed education was the key to survival, producing lawmakers, doctors, and business leaders who now play major roles in Kazakh society.

Institutions such as the Koryo Ilbo newspaper and Koryo Theater still preserv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le schools in cities like Konaev teach a new generation of Korean speakers.

Though the memory of exile remains — with families keeping old letters and songs of longing like Manghyangga — the community has turned pain into pride. According to Forbes Kazakhstan, several Koryo-saram rank among the nation's most influential figures, including Vyacheslav Kim, chairman of Kaspi Bank.

Their journey from deportation to distinction stands as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examples of how a displaced people transformed loss into legacy — and redefined what it means to be Korean in the modern world.

News 15

Doosan Enerbility's 1GW Combined-Cycle Power Plant in Kazakhstan Progressing on Schedule by Press9

2025.08.05

Source: [두산에너지리티, 카자흐스탄 1GW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순항 - PRESS9](#)

Doosan Enerbility is advancing construction of the 1GW combined-cycle power plant in Turkistan, Kazakhstan, with completion targeted for 2026. Sünget Yesimkhanov, Deputy Minister of Energy, recently inspected the site and the existing Kentau CHP plant, confirming ongoing maintenance on units 5 and 6.

The project is a Korea-Kazakhstan public-private partnership, jointly executed by Doosan Enerbility and local

builder Bazis Construction, with PGU Turkestan as the client. Kazakhstan's sovereign fund, Samruk-Kazyna, oversees the project through its construction arm, ensuring regional power supply stability in the south.

News 16

Busan City Council Signs Friend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with Almaty City Council by Bridge Economy 2025.08.07

Source: [부산시의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와 우호교류협약 체결 - 브릿지경제](#)

Busan, South Korea – On September 6, the Busan City Council officially visited the Almaty City Council in Kazakhstan to sign a friend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strengthening ties in maritime, economic, cultural, tourism, and environmental sectors.

The agreement follows the November 2023 official visit of the Almaty delegation to Busan, where both sides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expand bilateral exchanges. After months of discussions and preparation, the agreement was formalized at Almaty's invitation.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Busan City Council Chairman An Seong-min, vice-chairpersons, and committee heads, alongside Almaty City Council Chairman Otinshiyev and ten other council members, including key committee leaders.

Chairman Otinshiyev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the agreement, stating, "We are honored to establish an official friendship with the Busan City Council, and we hope this agreement serves as a foundation for meaningful cooperation between our cities."

Chairman An added, "This agreement is a milestone in parliamentary diplomacy and enhances Busan's global profile. The City Council will continue to promote Busan's policies, urban competitiveness, and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With this addition, Busan City Council now maintains formal friendship agreements with eight overseas city councils, including Shanghai, Fukuoka, Vladivostok, Hamburg, Ho Chi Minh City, Los Angeles, Ulaanbaatar, and now Almaty.

News 17

Gyeonggi Province Invites Descendants of Overseas Independence Activists for 80th Liberation Anniversary by Financial News 2025.08.12

Source: [경기도,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 80주년 기념식' 초청](#)

Gyeonggi Province announced on August 12 that it will invit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residing abroad to the Liberation Day commemoration on August 15, under the theme "Honoring the Light We Regained."

The guests include families of Huh Wi (1854–1908), Gye Bong-woo (1880–1959), and Lee Dong-hwa (1896–1934), who currently live in Kyrgyzstan, Kazakhstan, and China. The province seeks to honor their sacrifices and express gratitude to their descendants.

Huh Wi, a leader of the Eulmi and Eulsa righteous armies, organized nationwide resistance before his execution in 1908. Gye Bong-woo, a scholar-activist in North Gando and the Russian Far East, devoted himself to Korean language and history education in Kazakhstan after liberation. Lee Dong-hwa, a member of Illyeodan, trained in bomb-making and led anti-Japanese operations before his death in 1934.

Seven descendants—including Huh Wi's grandson Vladislav Huh (75), Gye Bong-woo's granddaughter Datsiyana Gye (75) and her family, and Lee Dong-hwa's granddaughter Ju Yong-yong (68) and her family—will attend the ceremony at the Gyeonggi Arts Center in Suwon to commemorate the legacy of independence. They will also visit historic and cultural landmarks such as Suwon Hwaseong Fortress, the Korean Folk Village, and Gyeongbokgung Palace.

Jo Byung-rae, Director of Gyeonggi's Local Administration Bureau, said, "Inviting these descendants reflects our commitment to remembering our ancestors' sacrifices and passing on the light we regained."

News 18

Samsung Launches Factory in Kazakhstan, Entering Central Asia with 'Localized Production' Strategy 2025.08.19

Source: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공장 가동...'현지 생산'으로 중앙아시아 뚫는다 - 글로벌이코노믹](#)

Samsung Electronics has launched its first local production plant in Kazakhstan, marking a major step in its Central Asia strategy. The move leverages Kazakhstan's investment-friendly policies and Samsung's localization approach, positioning the factory as a gateway to the CIS market.

Located in Saran, Karaganda Region, the 'Silk Road Electronics' facility officially began producing smart TVs and washing machines compatible with the IoT platform SmartThings. The washing machines feature AI-driven optimal washing modes and remote control, while all TV models support streaming services and smart home integration. Plans are also underway to start QLED TV production.

Karaganda Governor Yermaganbet Bulekpayev praised the project as a driver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job creation. Samsung's regional head, Jung Yoo-jin, emphasized that quality standards will be maintained with active involvement from the Korean headquarters.

The plant is expected to reduce logistics costs, overcome tariff barriers, and serve as an export hub for Russia, Eastern Europe, and the Middle East. In the medium term, Samsung plans to expand production to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and other home appliances, establishing Kazakhstan as a key manufacturing base in Central Asia.

News 19

South Korea Sends Water Industry Delegation to Kazakhstan Amid High External Dependence on Water by Yonhap News

2025.09.01

Source: ['수자원 45% 외부 의존' 카자흐스탄에 물산업 협력 사절단 파견](#)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ispatch of a **water industry cooperation delegation** to Kazakhstan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domestic water technology companies. The delegation, visiting **Almaty and Astana from September 1–5**, includes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rea Environmental Corporation, Korea Water Forum, and KOTRA**, along with representatives from 13 South Korean water companies.

The delegation will discuss **collaboration on upcoming water development projects** announced by the Kazakh government and participate in the **Korea-Kazakhstan Water Industry Cooperation Forum** and **business consultation meetings**.

Kazakhstan, located downstream of major Central Asian rivers such as the **Syr Darya and Amu Darya**, relies on **45% of its water resourc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increasing demand for advanced water management technologies. This initiative builds on the **2021 Korea-Kazakhsta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Water Cooperation**, strengthening bilateral collaboration in the water sector.

News 20

Pyeongtaek City Strengthens Ties with Central Asia Through Multilateral Engagements by Maeil Ilbo

2025.09.03

Source: [중앙아시아와 교류 강화 나선 평택시, 고려인부터 주지사까지 다각적 만남 - 매일일보](#)

From Korean Communities to Regional Governors in Kyrgyzstan and Kazakhstan

Pyeongtaek City announced on September 2 that a delegation led by Mayor Jeong Jang-seon paid an official **five-night, seven-day visit to Central Asia** beginning August 24. The visit included in-depth exchanges with local Korean communities and discussions on friendship and cooperation with **Osh City (Kyrgyzstan), Almaty Region, and Konaev City (Kazakhstan)**.

The initiative aimed to strengthen Pyeongtaek's city diplomacy and economic-cultural capacity by linking with the strategically vital Central Asian region, while also supporting the large number of ethnic Koreans (Koryoin) residing in Pyeongtaek in maintaining their identity and sense of belonging.

During the visit, the delegation met with the **Association of Descendants of Independence Patriots in Kazakhstan** and other Koryoin groups, expressing gratitude for their efforts to preserve cultural identity. At a roundtable with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such as Choi Jae-hyung and Yi Dong-hwi—the city honored their forebears' legacy, listened to current challenges, and explored support measures. Mayor Jeong pledged to convey their concerns directly to Korea'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ivic-level exchanges also advanced: the **Pyeongtaek Social Welfare Council** discussed welfare collaboration with the independence descendants' association, and the **Pyeongtaek Cultural Center** agreed with the Almaty Korean Cultural Center to strengthen cultural ties through ongoing communication.

On the intercity front, Pyeongtaek explored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culture and the economy with **Osh City** on August 25, followed by talks with the **Almaty Region and Konaev City** on August 29. These discussions represent an initial expression of intent; formal sister-city agreements will proceed with city council approval. Once finalized, the agreements are expected to provide a platform for both administrative and private-sector exchanges.

Mayor Jeong noted:

"We witnessed firsthand the determination of Koryoin communities in Central Asia to preserve their roots and identity. Pyeongtaek will continue supporting their pride and fostering a strong sense of belonging among Koryoin residents in our city."

He added:

"By deepening cooperation with key Central Asian cities, we will work to create new opportunities across the economy, industry, and culture."

News 21

"Law, Justice, and Korean Identity Are the Roots of My Life" by Yonhap News

2025.09.04

Source: "법과 정의, 고려인 정체성을 내 삶을 지탱하는 뿌리"

Georgy Kim, Senior Statesman of Kazakhstan, at the World Korean Politicians Forum

Georgy Kim (72), a member of the Senate Council of Kazakhstan and a leading figure in the country's legal and political history, stressed that law, justice, and Korean identity are the foundations of his life.

A third-generation lawyer, Kim has served as Deputy Prosecutor General, Justice Minister, and Presidential Adviser. As Justice Minister in 2002, h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and played a key role in drafting Kazakhstan's Language Law, ensuring ethnic minorities—including Koryoin (ethnic Koreans)—could preserve their identity.

Recently honored by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 with the *Order of Nobility*, Kim said he is proud to act as a bridge between Kazakhstan and Korea. He emphasized that the next challenge is helping younger generations of ethnic Koreans carry forward their culture and language with pride.

"Law, justice, and Korean identity are the pillars of my life—and the legacy I will pass to the next generation," he said.

2025.10.15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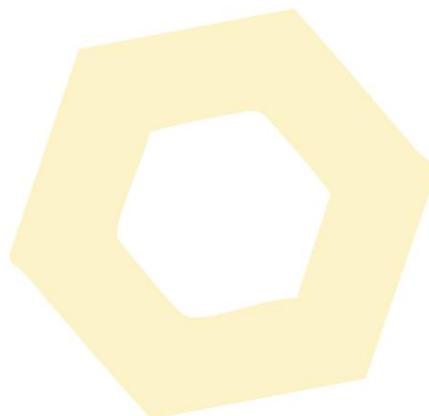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카자흐스탄-한국 주요 협력 의제 브리핑



카자흐스탄 정부 부처-한국 주요 협력 의제 브리핑

1. 알라타우 시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
2. 저고도 경제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3. 수소경제: 수소 생산-활용의 균형 있는 발전
4.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의제 1: 알라타우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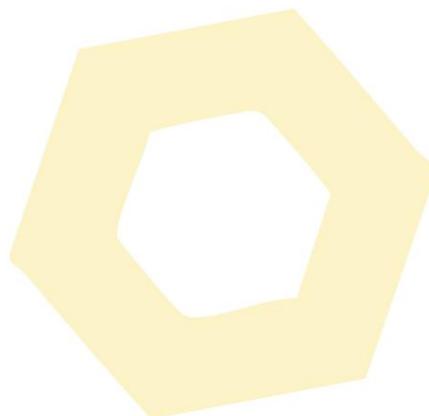
- 알라타우 시(Alatau City)를 중심으로 저고도경제(Low Altitude Economy), 미래 모빌리티(Future Mobility),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등 첨단 신산업을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첨단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산업이 원활히 작동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심형 스마트시티 인프라(Urban Smart City Infrastructure)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알마티 시 (Almaty Region)는 알라타우 시 도시계획 및 산업지구 개발의 실질적 실행기관으로서, 도시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교통·에너지 시스템 통합 운영을 총괄합니다.
 -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는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발전소, 제조공장 등 산업 관련 건설사업을 관할하며, 스마트 인프라 구축 표준 제정, 산업·건설 기술정책 수립, 도시–산업 연계형 프로젝트의 관리 및 승인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 알마티시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알라타우 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의제 1	스마트시티 및 미래 모빌리티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카 정부 간 G2G 협력 채널 구축)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양국 간 제도적 협력체계 및 정책협의 채널 정립 ▪ (스마트 인프라 구축 협력) 스마트 시티 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교통, 에너지, 환경 등) 설계 및 운영 노하우 공유 ▪ (공공-민간 협력 투자모델 설계) 양국 공공 및 민간 자본을 연계한 인프라 투자모델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도심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기반 대중교통 등 차세대 모빌리티 인프라 실증 및 확산 협력

의제 2

신산업단지 및 관광 중심지 조성을 위한 전력 인프라 및 수소 기반 발전 협력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계·운영·건설 협력) 알라타우 신산업단지 중·단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공급체계 구축
- (관광 및 신산업 지역 전력 연계 강화) 주요 관광지 및 신산업 단지(산업지구 등)에 대한 전력공급 효율화 및 도시 전력망 통합 운영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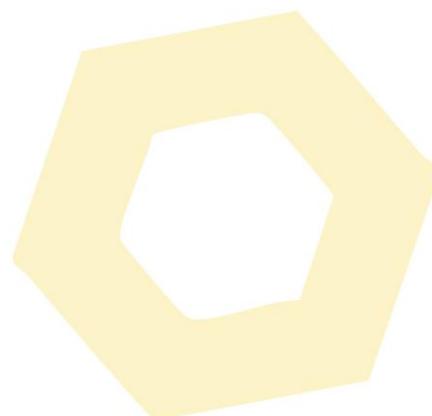


[의제 2: 저고도 경제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 카자흐스탄 정부와 알라타우 시의 핵심 산업인 저고도 경제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저고도경제는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택시, 드론 물류 등 항공·지상 교통이 융합된 신산업 영역으로, 알라타우 시를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실증·혁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는 저고도항공 및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정책수립, 제도정비, 실증사업 추진, 국제협력 조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교통부와 저고도 경제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협력 어젠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의제 1	저고도 경제 (UAM 및 로보택시) 기술 공동개발 및 실증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모빌리티 기술 데이터 표준화) 로보택시 및 UAM 운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구축 및 양국 간 기술표준 정합성 협의 ▪ (AI 기반 항공·자율주행 기술 공동개발) 인공지능(AI) 센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충돌회피 알고리즘 등 차세대 저고도 모빌리티 핵심 기술 공동 연구 및 개발 추진.
의제 2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실증·산업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UAM 실증사업을 위한 다중 규제 샌드박스 구역 지정 및 제도적 협력체계 마련 ▪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유치 기반 마련) 부품·인프라·서비스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정책 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 협력 ▪ (UAM 운항·관제 시스템 협력) 저고도 항공 교통관리(AAM/ATM) 시스템 설계, 운항 데이터 관리 및 안전관리 협력

의제 3	수소 모빌리티를 포함한 수소경제 정책 및 로드맵 공동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경제 로드맵 공동수립) 수소 발전용량(GW) 및 수소버스·트럭 보급 목표 등 구체적 정책지표 설정 및 단계별 이행계획 협력 ▪ (충전 및 운행 인프라 확충 협력) 수소충전소, 수소공급체계 등 기반시설 구축 및 교통 네트워크 연계 방안 논의 ▪ (친환경 교통·에너지 통합정책 수립) 수소 교통수단과 도시 에너지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통합형 친환경 교통정책 모델 개발 	
의제 4	저고도경제 및 첨단 모빌리티를 위한 교통 인프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교통체계 통합계획 수립) 도시 내 UAM, 수소버스,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통합 운영계획 및 친환경 교통 네트워크 지원 ▪ (지능형 교통인프라 데이터 연계) AI 기반 교통 모니터링 및 관제시스템 설계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 ▪ (PPP 기반 인프라 투자 모델 개발) 공공-민간 협력(PPP) 구조를 통한 인프라 개발·운영 모델 설계 및 투자촉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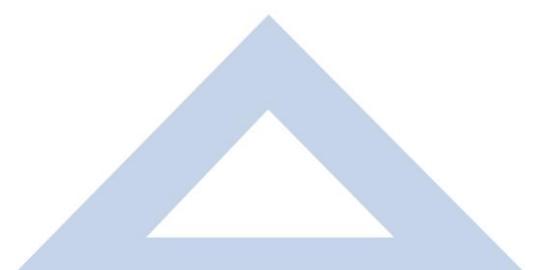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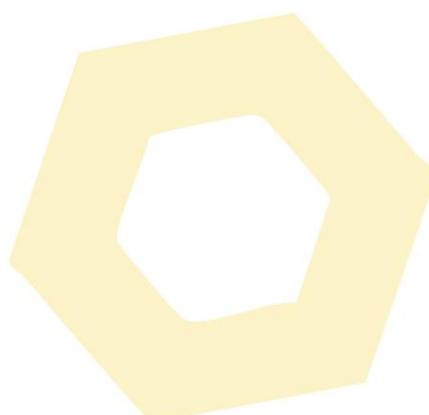


[의제 3: 수소경제: 수소 생산-활용의 균형 있는 발전]

-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는 알라타우 시가 강조하는 저고도 경제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의 기반(Backbone)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히, 생산(Production)-저장(Storage)-운송(Transport)-활용(Consumption)에 이르는 전 주기적(value chain) 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소 기반 전력공급, 수소 모빌리티(버스·트럭·UAM 연료) 등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는 가 산업다각화 전략 및 신산업 육성정책의 종합기획을 담당하며, 수소산업과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거시정책 조정 역할 수행을 합니다.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는 소 생산 및 전력연계 인프라 정책을 총괄하고, 재생에너지-수소 연계 발전 모델 구축 및 산업 인프라 확충을 주도하는 부처입니다.
-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와 에너지부는 알라타우시 첨단산업의 기반(Backbone), 수소경제 산업 및 기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의제 1	카자흐스탄의 국가 수소경제 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소경제 로드맵 공동 설계) 카자흐스탄의 중장기 수소경제 발전전략을 국제 기준 및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공동 설계 ▪ (정책·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양국 정부 및 연구기관 간 정책설계, 제도정비, 기술표준 수립에 관한 역량강화 워크숍, 공동연구, 정책세미나 추진 ▪ (민관 협력 기반 조성) 정부·산업·학계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확대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의제 2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구체적 정책목표 수립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경제 정책 수립 협력)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발전 용량(GW), 수소차량(버스·트럭) 보급대수,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 등 구체적 정책 목표가 포함된 정책 벤치마킹 및 정책 수립 협력 ▪ (생산-저장-운송-활용의 균형발전 모델 구축) 수소생산(재생에너지 연계), 저장 및 압축기술, 운송체계, 활용(전력·모빌리티) 단계별 정책조정 체계 마련
의제 3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생산 및 도시형 전력망 구축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혼소 발전 및 연료전지 발전 기술협력) 수소혼소 가스터빈 발전 및 연료전지 발전소 설계·운영 기술 공유를 통한 친환경 전력공급 기반 마련 ▪ (도시형 수소연료전지 분산전력 시스템 구축) 알라타우 시 및 주요 산업·관광지구에 수소연료전지 기반 분산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도입 ▪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및 실증 확대) 수소 기반 전력공급 실증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모범사례 창출



[의제 4: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 저고도경제(Low Altitude Economy), 미래 모빌리티(Future Mobility),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등 첨단 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지 인재양성(Human Capital Development) 또한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기술기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Digital) 및 인공지능(AI) 중심의 전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모델 구축,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고등교육 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대학-산업 연계 교육 시스템 설계 등을 주도하며, AI 및 디지털 전문인력 배출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 **카자흐스탄 인공지능·디지털 개발부** (Minist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및 AI 기술개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및 산업 디지털화 정책을 총괄하며, 첨단 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정책 기반을 담당합니다.
-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인공지능·디지털 개발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알라타우시 신산업 (저고도경제,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제 1	한-카 과학기술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술인재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및 연구협력 기반 강화) 첨단 기술 분야(예: AI, 로보틱스, 신재생에너지 등)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연구자 교류를 통한 혁신 역량 제고 ▪ (국가 간 정책 연계 및 제도적 협력 확대) 교육정책·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의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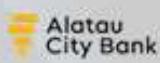
알라타우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AI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

- (AI 및 디지털 기술 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카자흐스탄 내 R&D 테스트베드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한국의 우수 교육과정 및 산업연계형 커리큘럼을 도입
- (산학연계형 전문인재 육성) 미래산업(모빌리티, 에너지, 금융, 거버넌스 등)에 특화된 AI·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전문자격제도 운영
- (공동 학위 및 교환 프로그램 추진) 양국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공동 학위·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기술인재 배출 및 국제 공동연구 기반 마련

2025.10.15 - 16

ALATAU RISE With Kazakh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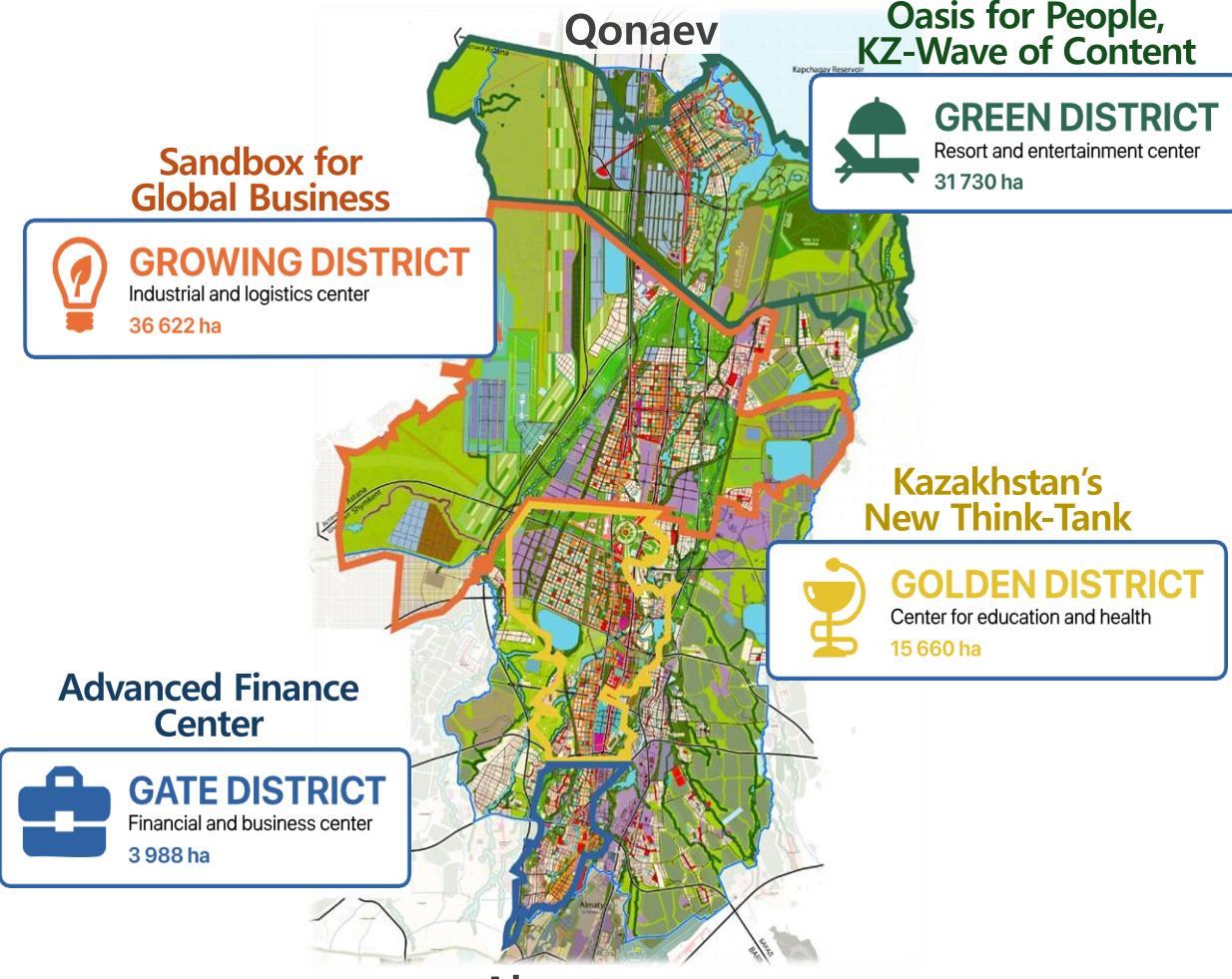
부 록



Appendix 1.

Alatau City Emerges as a Global Hub for Innovation and Advanced Industries

Master plan of Alatau City



ALATAU
RISE With
Kazakhstan

Alatau is a cutting-edge smart city consisting of **4 modern themed districts**

Designed for innovation, sustainability and comfortable urban living.

SJ SURBANA JURONG

The concept of the master plan was developed by Surbana Jurong

KPMG

The concept of the Industrial Zones was developed by KPMG



Total jobs
1.1 MLN



Touristic flow
4.4 MLN people per year



Total Population
2.2 MLN

Alatau City

Alatau City Priority Zones



□ Growing Industrial Zone

- ① LAE¹ - UAM (Joby, US / KAC² Korea), Drone (E-Hang, China), Robotaxi (HMG³), Korea,
- ② Hydrogen economy (GGGI⁴ Doosan, Korea),
- ③ Urban mining (BYD, China)



△ Gate Business&Finance Zone

- ① Koyankus Apt. (Nest stroy, German),
- ② Business Center (CSCEC⁵, China),
- ③ Smart city MP (KIND⁶, Korea)

Each district will begin its development with priority zones along Almaty-Qonaev highway.

📍 Total area of Priority zones 2 405,4 HA

565,6 ha

530,3 ha

152,5 ha



○ Green Recreation Zone

- ① Iconic Building
- ② Embankment on the coast of Kapchagay (WATG⁷), US



◇ Golden Culture Zone

- ① K-park (Association of Koreans of Kazakhstan)
- ② Lotte Hotel Chain Business (Caspian Integrity)

Special Status of Alatau City, SEZ, One-stop Service

SPECIAL STATUS of an independent ecosystem



Independent
Regulator



Court

Independent legal system



Arbitration
Center



Stock
Exchange

SPECIAL ECONOMIC ZONE

Alatau SEZ Benefits & Preferences



- ✓ Zero Corporate Income Tax
- ✓ No Value Added tax (import)
- ✓ Lower Land & Property taxes
- ✓ No Customs duties



▪ Availability of international
standard infrastructure &
social facilities



▪ Simplified procedure for
hiring foreign talents

ONE-STOP SERVICE

- Business Registration & Issuance of Permits
- Informational Support & Accompaniment
- Partnership Platform & Network of Contacts
- Land Issues & Infrastructure
- Immigration & Personnel Issues
- Direct Communication with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KAZAKH INVEST
NATIONAL COMPANY



Alatau City
Management
Group

Alatau City Bank - Committed Institutional Partner

Platform Services
& Data Infrastructure
B2B / G2B / G2C

Digital Construction
Management & Quality
Oversight
B2B / G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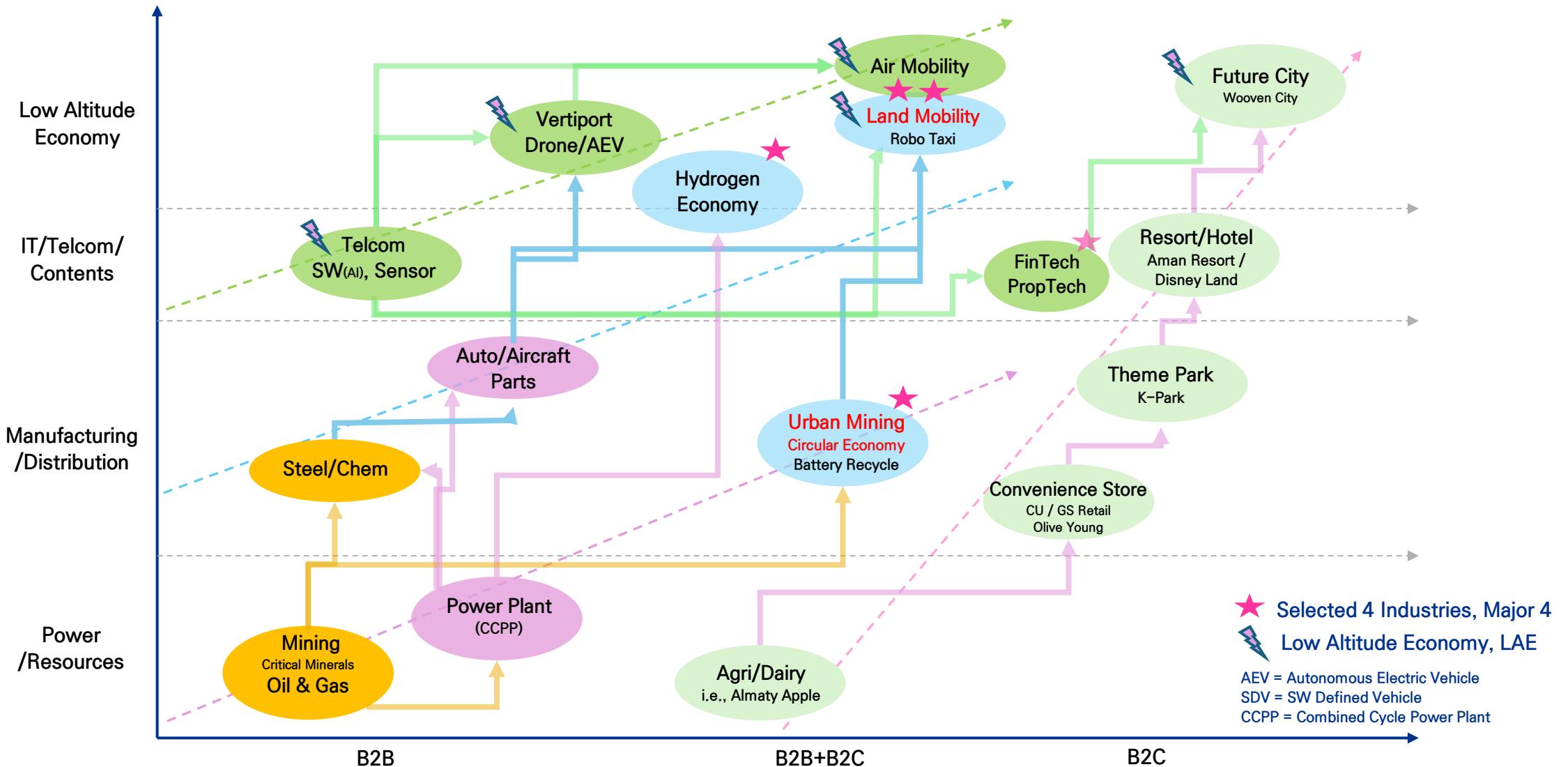
Smart Mobility & Urban Logistics
B2C / B2B

Real Estate Transactions
& Asset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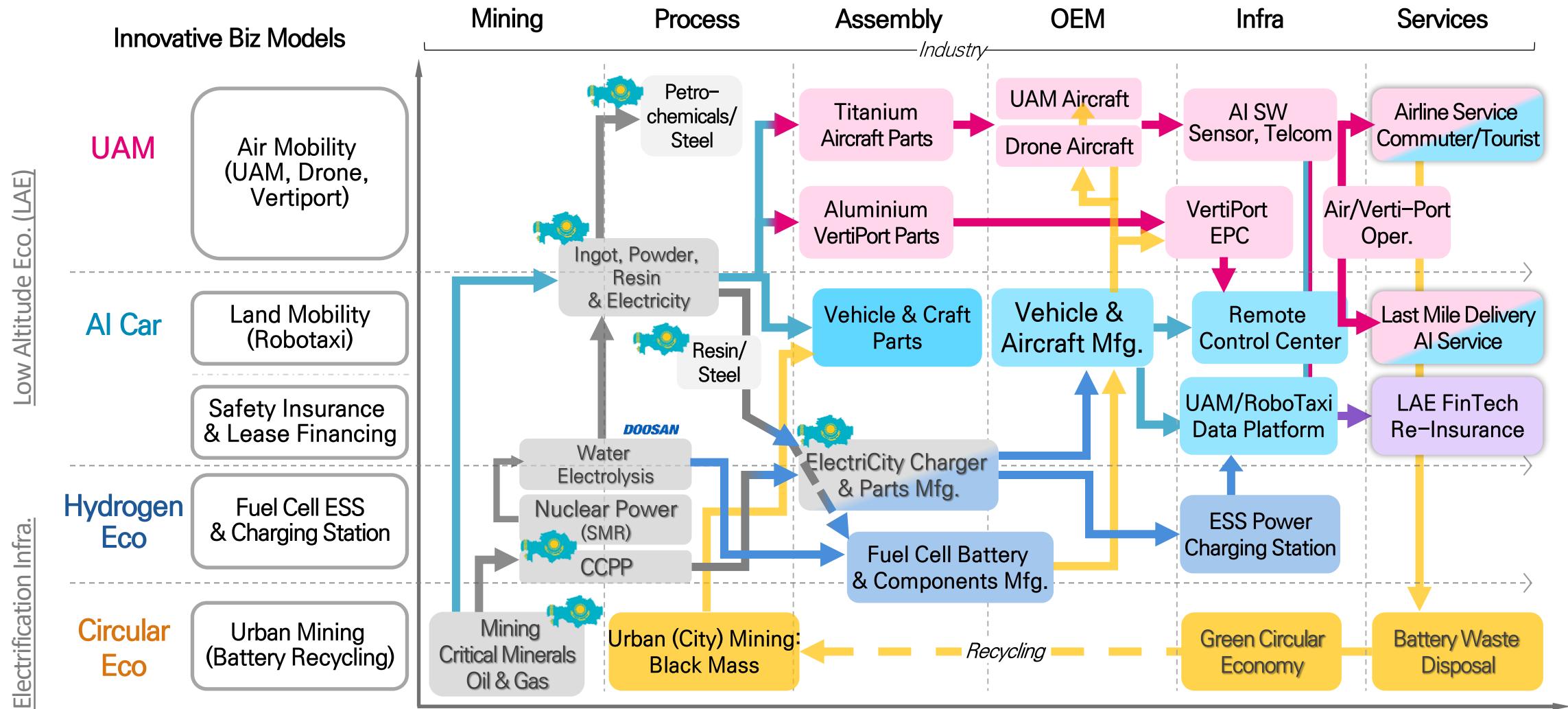
B2C / B2B

Housing Finance
& Risk
Management
B2C / B2B

Alatau City Project는 천연자원(Oil, Gas, 광물) 중심의 카자흐스탄 경제를 첨단제조와 혁신서비스 산업으로 진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저고도경제 (UAM, Robotaxi), 수소경제와 순환 경제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업과의 협력기회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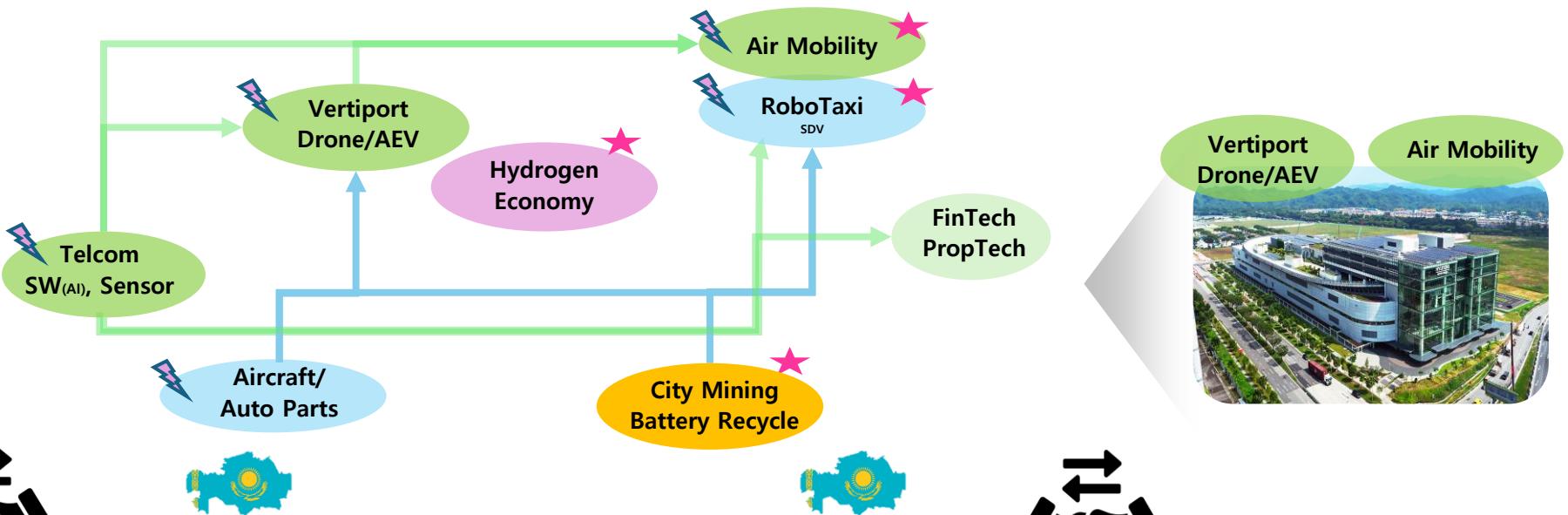


Alatau City에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stablishing Alatau R&D Center

- Remote Real-time Frontier Control
 - 4/5G Network & Device (Telcom)
 - AI Camera, Lidar, Radar (Sensor)
 - CNSi / Navigation (SW)
- Engineering & Construction
 - Green Building (Net Zero Carbon)
 - Harmonious Collab. w CSCEC
 - Smart SOC(Airport, Highway, Plant)



FinTech/PropTech Policy/Budget

- Policy Design & Budget for Insurance FinTech & Actuaries
 - Digital Tech Enabling Actuaries Stats.
 - Ally w SwissRe, Tesla for Insurance Policy and Export to CIS/ EU
- Engineering & Construction
 - PropTech enabled Building
 - Science & Tech Education in City
 - Young generation convening for Jobs



Policy/Budget for RoboTaxi in Top 3 Cities over CIS/East EU

- Using AI/Digital (RoboTaxi) Budgets
 - AI RoboTaxi Service for KZ People
 - Link w Univ Education & Job Train
 - Increasing National Competency
- Digital Industry: AI-led Telcom, Sensors
 - KZ Competency in Digital Capacity
 - Combining Fragmented Techs to Develop Digital Experience Ma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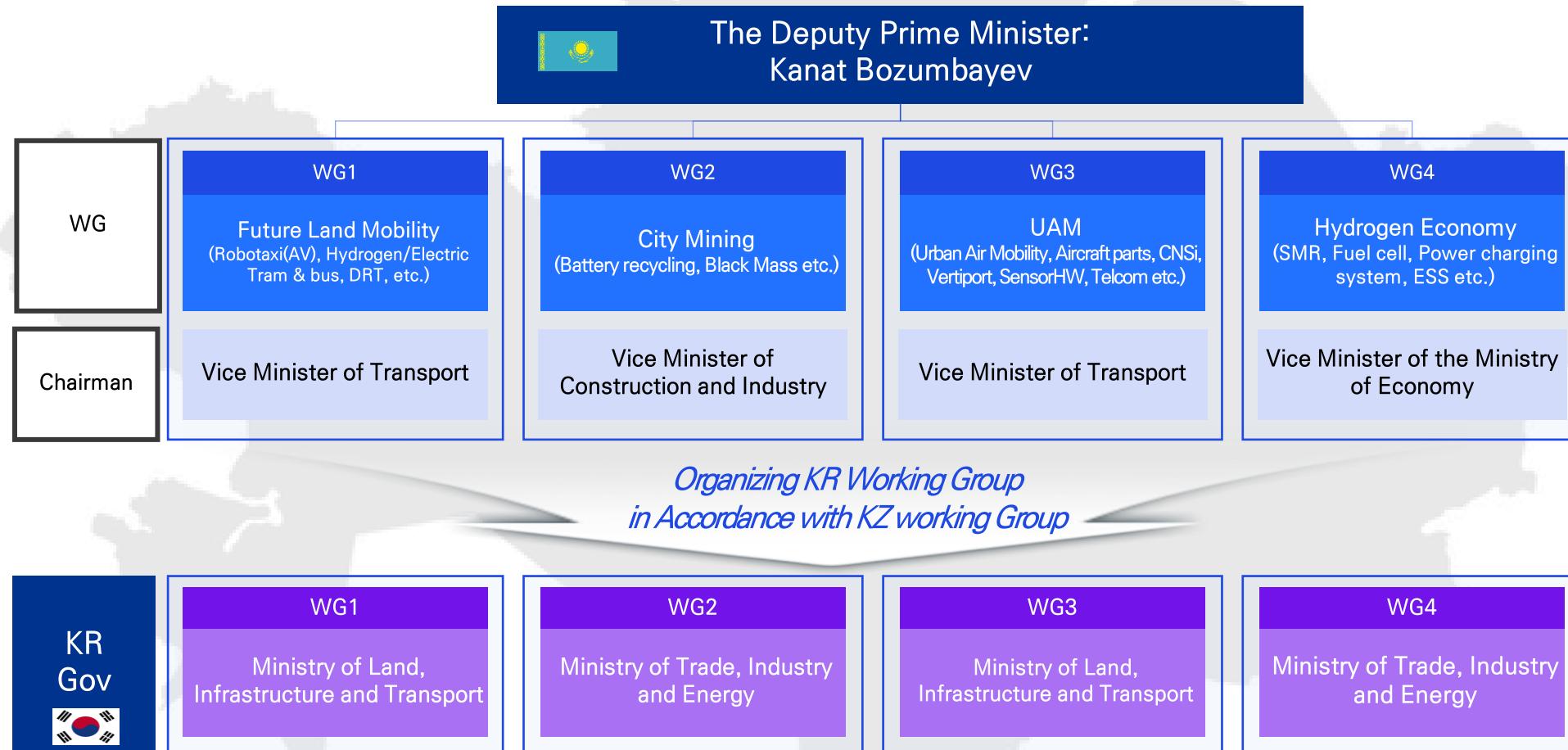


Incubating AAM, Advanced Service & Manufacturing

- AAM for Taxi, Tour, e-Commerce
 - Innovation Branding over CIS/EU
 - JV w. Global Anchors for Jobs, Education, Population Increase
 - Service Knowhow Exports to CIS
- Aircraft Parts, SW(AI) Supply Chain
 - Parts Manufacturing: Motor, Battery
 - Tech Collab w Univ: Carbon Fiber
 - Dev of SW Algorithm & Telcom



10월 15-1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Alatau RISE with Kazakhstan는 양국 G2G 채널 강화,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갖춘 첨단기업과 Biz Council 정례화, 한국(KR)에 축적된 산업발전 노하우를 카자흐스탄(KZ) 기회에 접목시키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blog.naver.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facebook.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youtube.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organization.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timeliness, no guarantee can be given that the information is complete, accurate as of the date received, or will remain accurate in the future. Participants should not act on this information without seeking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situation.

Th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name and logo are used exclusively for this event and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 2025 ALATAU RISE With Kazakhstan. All rights reserved. Th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name and logo are the property of the organizers and may not be used, reproduced, or distribute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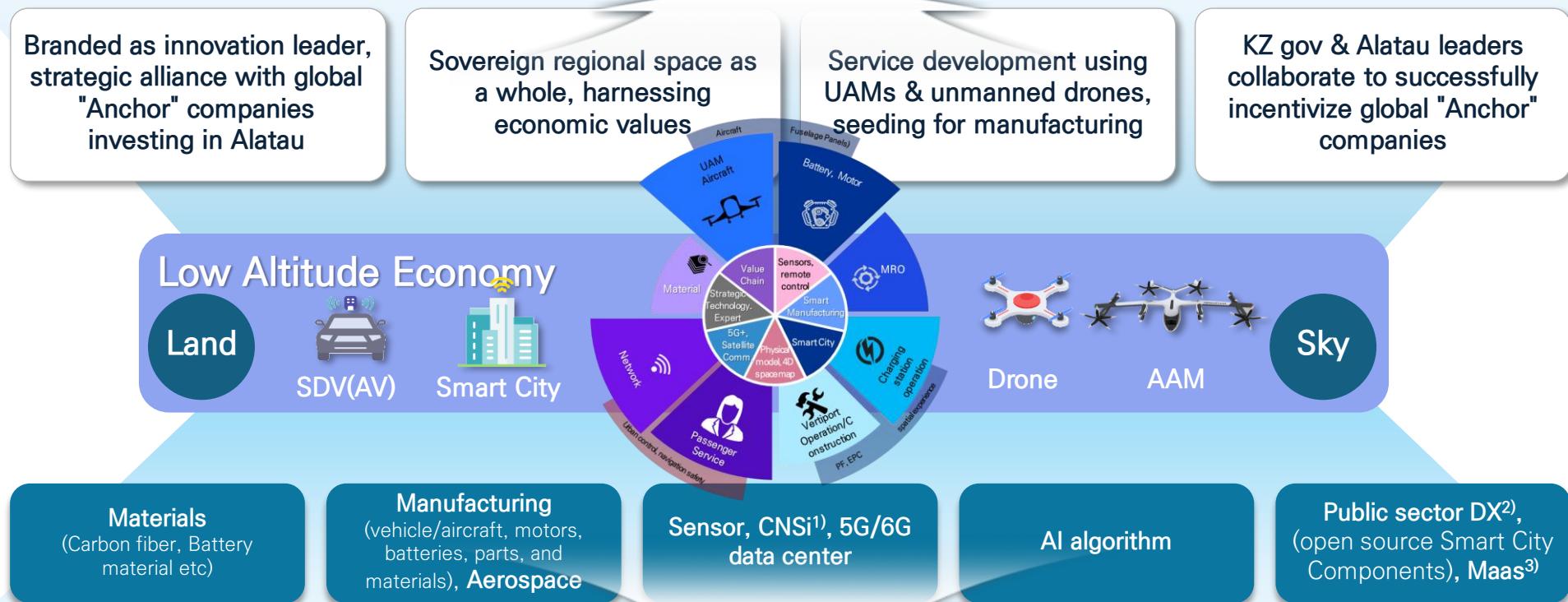


Appendix 2.

Alatau City will Drive the Future of the Low Altitude Economy (UAM & Robotaxi) Industry

LAE is an advanced low altitude air/ground tech economy system, aimed to attract global investment, drive economic growth, enhance quality of life through advanced services, and foster rapid value chain development and growth in related industries.

Benefit 1 : Lead Economic growth and improvement of people's quality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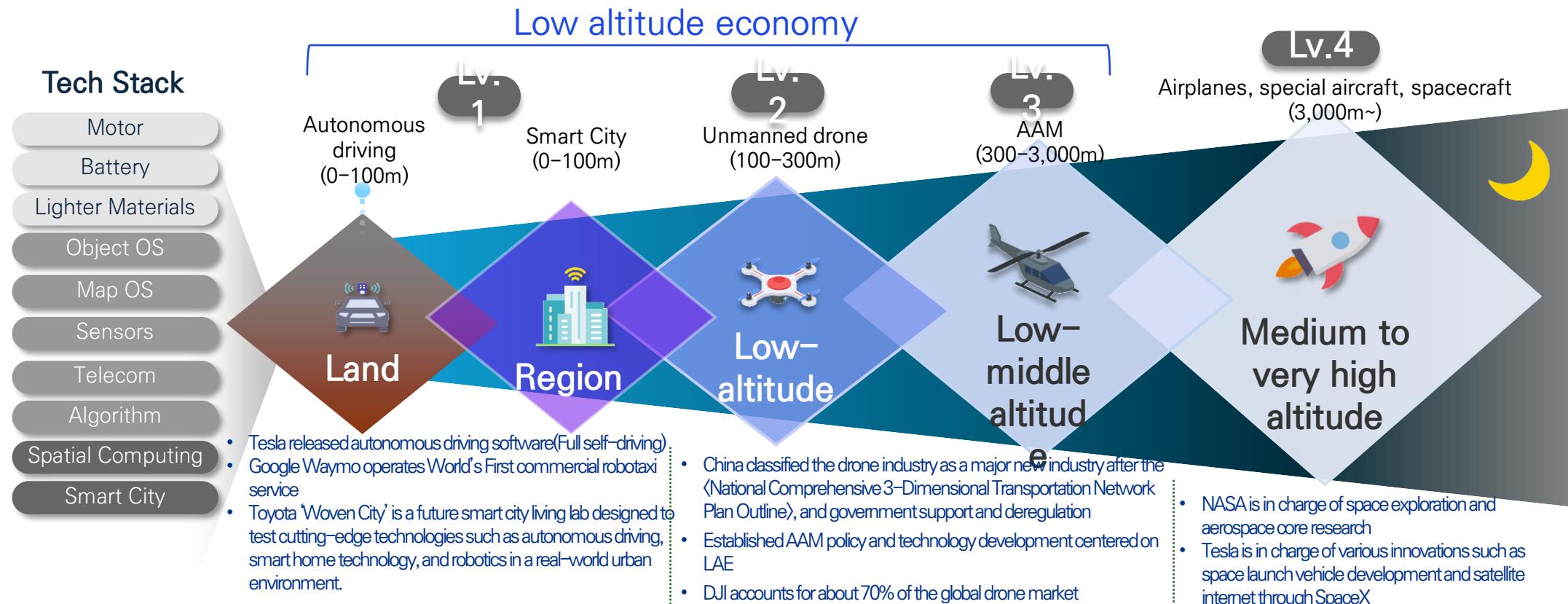
Benefit 2 : Establish a high-tech industry value chain and strengthen related industries

Source: KPMG Analysis; Bank of Korea(2023.08), Map of major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supply chains in our country; AAM image Source-HMG Supernal

1)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2) Digital transformation 3) Mobility as a Service

In a broad sense, LAE represents an economy that includes advanced industries such as Advanced Air Mobility (AAM), autonomous driving, and smart city development, covering the ground-level to low-altitude spaces

Meaning of LAE and Global Trends



Source: KOTRA, China's new growth engine, low-altitude economic development status and prospects, Global Market Report, 24-027.

① The LAE market is anticipated to experience substantial growth, emerging as a high-value-added industry, ② Securing future technologies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technological independence, ③ Moreover, the strategic advantage of effectively managing vast territorie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LAE as a key area of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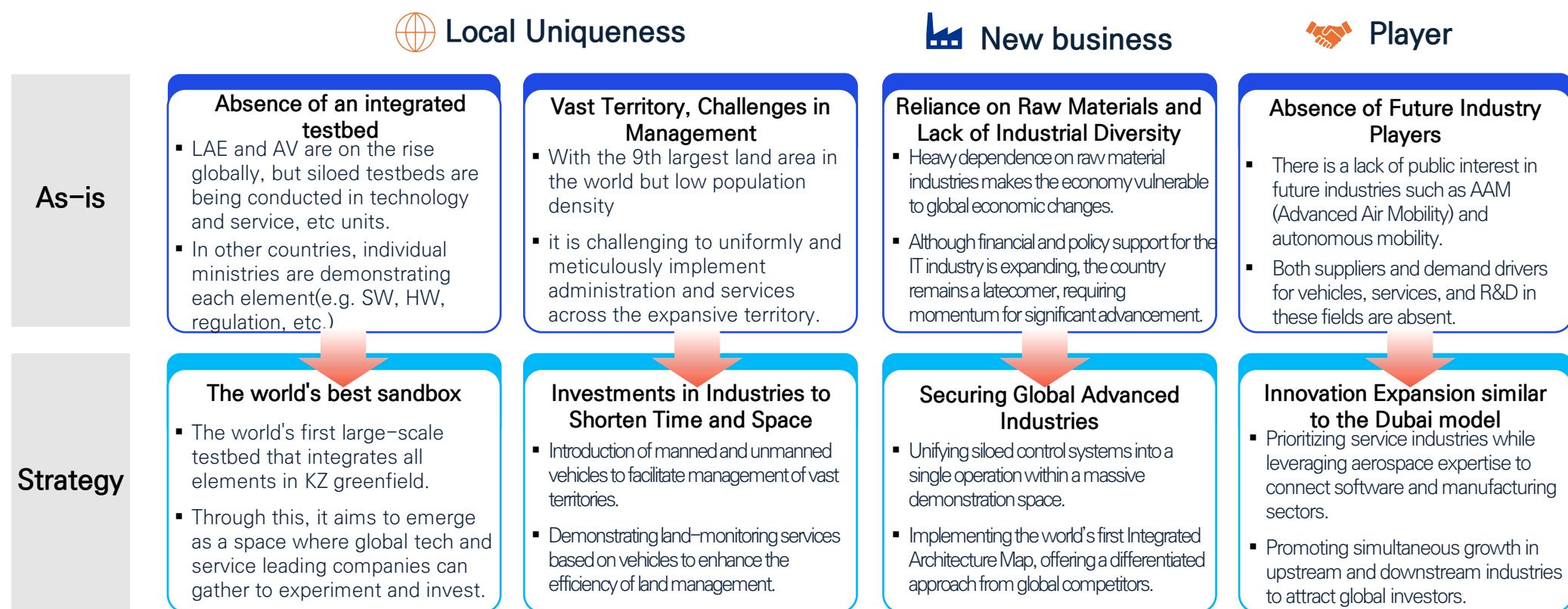
Advantages of LAE

1 Economic Benefits	Create New Industrial Eco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E creates a high value-added ecosystem covering various industries e.g. drone delivery, air taxi, autonomous taxi 	Seeking new growth by fostering a high value-added ecosystem	 [Drone Logistics] Amazon Prime Air	 [UAM] HMG Supernal UAM Aircraft: SA-2	 [Robotaxi] Waymo: Waymo Driver																											
	Participate in a Growing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na's LAE is projected to reach ¥2 trillion by 2030, with the global autonomous vehicle market expected to hit \$974.5 billion by 2028 at a CAGR of 58%, signaling massive growth 																															
2 Technical Benefits	Secure Leadership in future tech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y converging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AI, IoT, and 5G, we can secure leadership in cutting-edge industries and ensure long-term competitiveness. 	Easy to lead the global market when preempting standards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U.S.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defines autonomous driving levels, widely used as a global standard. These standards serve as a basis for developing and evaluating AV,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U.S. companies to lead in innovation. 																												
	Dominate Global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tect technology from latecomers through standard preemption and strengthen market dominance through royalties based on standard patents 																															
3 Geographical Benefits	Increase Efficiency in Land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By shortening the time and space of movement, we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ing the vast lands of the US and China and strengthen disaster and safety monitoring. 	Easy to invest in industrial space and time reduction	<table border="1"> <thead> <tr> <th>Ranking by land size</th> <th>Nation</th> </tr> </thead> <tbody> <tr> <td>1st</td> <td>Russia</td> </tr> <tr> <td>2nd</td> <td>Canada</td> </tr> <tr> <td>3rd</td> <td>China</td> </tr> <tr> <td>4th</td> <td>USA</td> </tr> <tr> <td>...</td> <td>...</td> </tr> <tr> <td>9th</td> <td>Kazakhstan</td> </tr> </tbody> </table>	Ranking by land size	Nation	1 st	Russia	2 nd	Canada	3 rd	China	4 th	USA	9 th	Kazakhstan	<table border="1"> <thead> <tr> <th>Ranking by land size</th> <th>Nation</th> </tr> </thead> <tbody> <tr> <td>1st</td> <td>Russia</td> </tr> <tr> <td>2nd</td> <td>Canada</td> </tr> <tr> <td>3rd</td> <td>China</td> </tr> <tr> <td>4th</td> <td>USA</td> </tr> <tr> <td>...</td> <td>...</td> </tr> <tr> <td>9th</td> <td>Kazakhstan</td> </tr> </tbody> </table>	Ranking by land size	Nation	1 st	Russia	2 nd	Canada	3 rd	China	4 th	USA	9 th	Kazakhstan
Ranking by land size	Nation																																
1 st	Russia																																
2 nd	Canada																																
3 rd	China																																
4 th	USA																																
...	...																																
9 th	Kazakhstan																																
Ranking by land size	Nation																																
1 st	Russia																																
2 nd	Canada																																
3 rd	China																																
4 th	USA																																
...	...																																
9 th	Kazakhstan																																
Expand Geopolitical Influ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lay a key role in the global supply chain by building smart transportation networks between major countries and regions 																																

Source: KOTRA, China's New Growth Engine,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Low-Altitude Economic Development, Global Market Report, 24-027; GTT KOREA (2024.06.23), Unstoppable Growth "Autonomous Vehicle Market" Surprising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58%; Image: Waymo, Hyundai Motor Group-Supernal, Amazon Prime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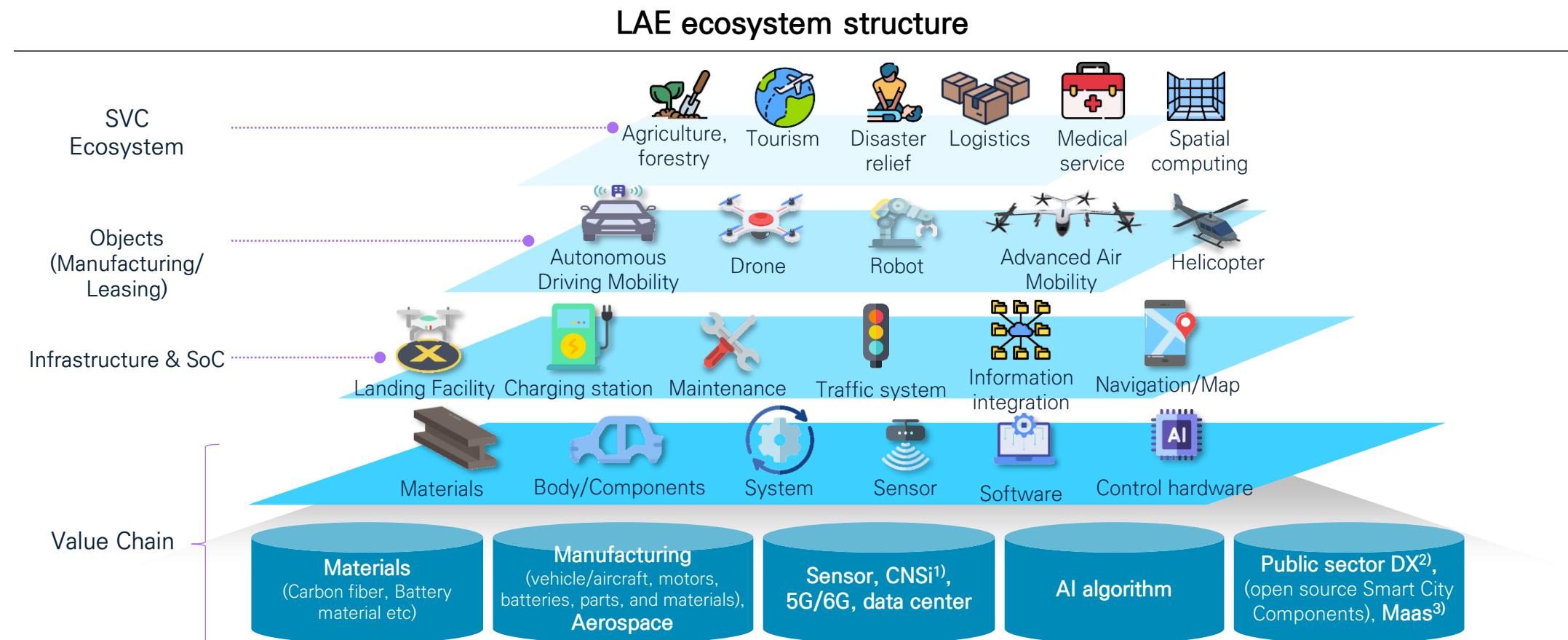
Alatau City, with its demand for new industrial development to efficiently manage vast territories and drive national growth, is expected to see LAE play a pivotal role as an industrial investment that accelerates both spatial and temporal dynamics, becoming a key momentum for the city's growth

Deriving future industrial strategies based on Alatau City analysis



Source: KPMG Analysis; Kim Sang-won (2019), Kazakhstan's economic growth and diversification strategy. Asia Review, 9(1), 71–100p.; KOTRA (2022.01.18), 2021 Kazakhstan IT Industry Information.

LAE is a must for Kazakhstan's future competitiveness, as it can foster the simultaneous growth of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while lay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lifestyles



UAM is an industry of hyper-convergence and hyper-connected future mobility that encompasses not only airframe but also infra, services, communications/systems, enabling the 3D logistics of passengers & cargo, use in military, emergency and etc.



Source : KPMG Analysis

1) Capable of transporting people to various locations such as airports and companies near Alatau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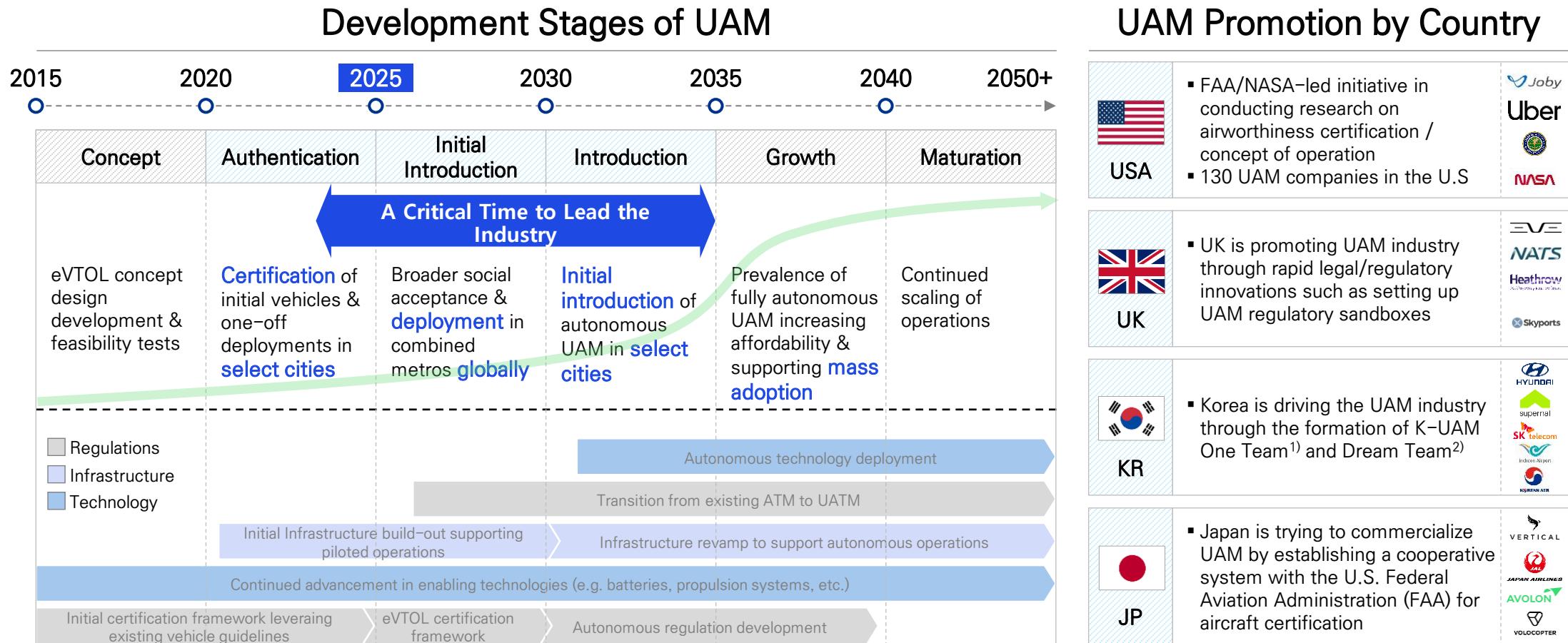
2) Capable of transporting parcels and medicines (<10kg) and used as "Last Mile Delivery"

3) Transport cargos weighing more than 10kg but less than 2,000kg

4) Transportation of troops and military supplies for military purposes

5)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and materials to respond to accidents, emergencies and disasters

The UAM industry is expected to develop and mature over the next 20 years, and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aim to become global UAM Initiative country/city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dustry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companies for industrial lead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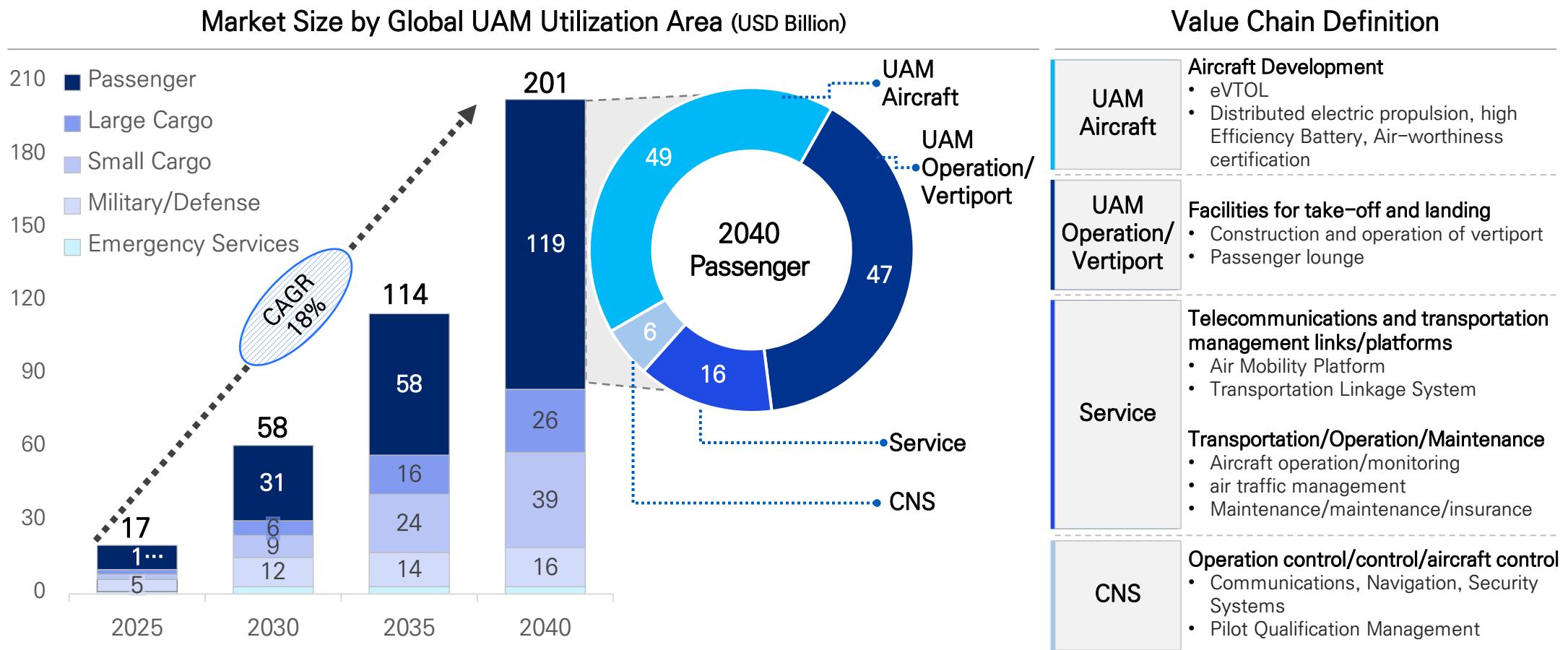


Source: KPMG Analysis

1) KT, Hyundai Motor Company,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Korean Air participated Corporation, and Hanwha Systems participated.

2) SK Telecom, T Map Mobility, Korea Air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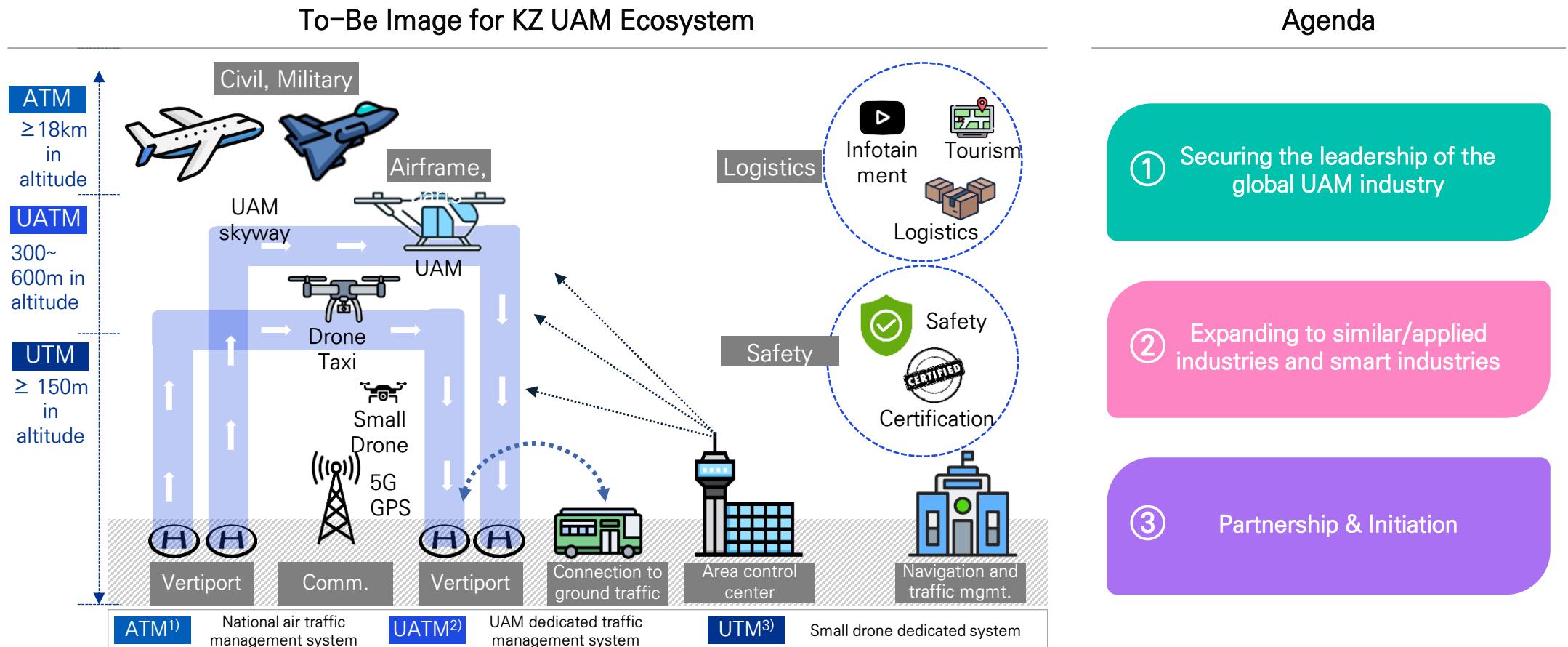
The global UAM market is expected to grow rapidly to \$201 billion (98.289 trillion KZT) in 40 years, with the Passenger Market accounting for 59.2% of the market's growth;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following areas : ① UAM Aircraft, ② Operation/Vertiport, ③ CNS1), and ④ Service



Source: KPMG Analysis

1)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As a cornerstone for the future industrial development of Kazakhstan, the aim is to introduce a UAM ecosystem and expand related industries within the Alatau Industrial Complex. The three main agendas for this are: ① Securing a leading position in the global UAM industry, ② Expanding into related and smart industries, and ③ Building partnerships and initiating projects



Agenda

① Securing the leadership of the global UAM industry

② Expanding to similar/applied industries and smart industries

③ Partnership & Initiation

1) Air Traffic Management 2) Urban Air Traffic Management 3) UAS Traffic Management, UAS는 Unmanned Aircraft System

KPMG Analysis, K-UAM Grand Challenge Project Demonstration Proje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 Referred to the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operation overview.

By executing the three main agendas, Kazakhstan will not only lead the global UAM industry but also lay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its industrial sector

Securing Future Industrial Ecosystem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azakhstan

Alatau State-of-the-art Industrial Complex

UAM industry is a door opening industry that can build the cornerstone of other high-tech industries

Public-private investment in industrial attraction/growth

Acquire UAM Initiative, as well as manufacturing capabilities

1 Securing the leadership of the global UAM industry

- Rapid conversion to an UAM testbed by utilizing existing infrastructure
 - Global leading companies have a strong need for rapid validation and data accumulation to secure industry leadership
 - Attracting UAM and collaborating on R&D and demonstration processes
- UAM Regulation/Certification System Innovation
 - Key to attracting leading global companies

2 Expanding to similar/applied industries and smart industries

- A full-fledged UAM industry can expand to similar industries such as aviation and military industries
- Cultivating smart industries such as robotics, autonomous driving, and unmanned drones based on digital backbone cap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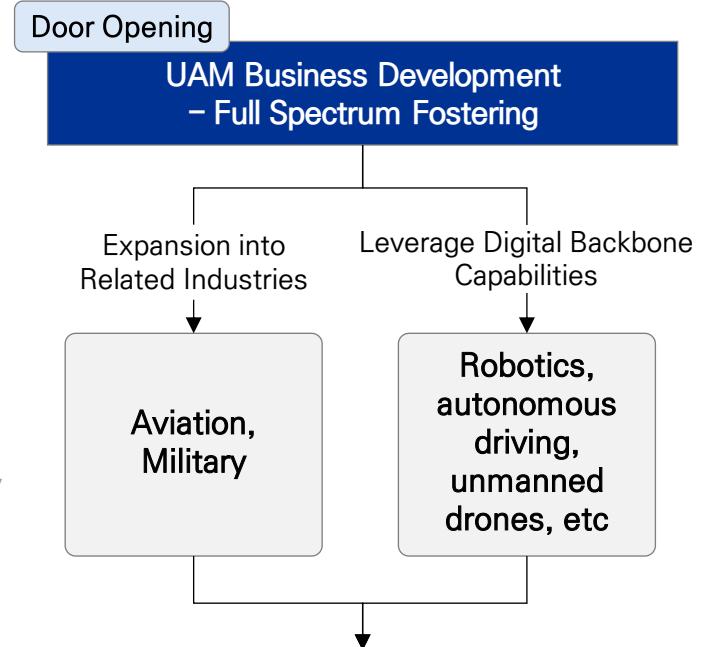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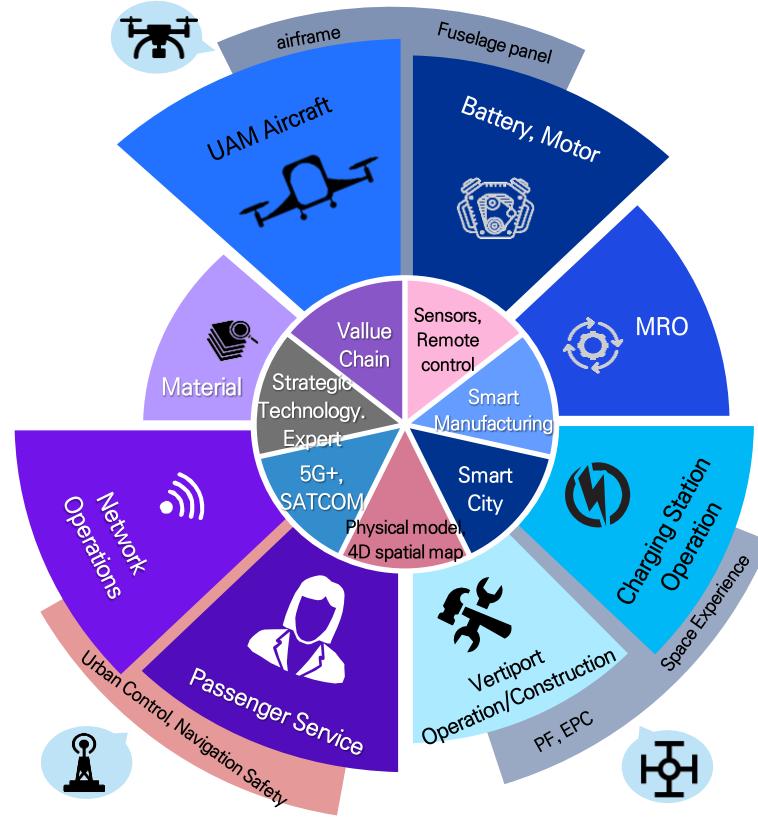
3 Partnership & Initiation

By fully developing the UAM industry, it can expand into related fields like aviation and defense, while also driving growth in smart industries such as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xample

Similarities in UAM & Aviation Industry

	UAM	Aviation
Value Chain View-point	Airframe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Fuselage panel Battery & Powertrain
	Required Control Fac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unication antenna Control tower
	Essential Struc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Vertiport Maintenance/ Charging Station
	Functional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ssenger Logistics Military/ Defense
	Biz View-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th the aviation industry and the UAM industry share a long product development cycle. There are significant entry barriers in terms of capital and technology. If successful, they have the potential to generate revenue over the long term.



“KZ’s Smart Industries Development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mid the instability in countries like Russia and China, Kazakhstan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to position itself as an innovation hub for the CIS by fostering the UAM industry

Big Picture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KZ's Industry

Fostering the UAM industry

- 1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solving urban issues
- 2 Revitalizing the industrial ecosystem through securing new growth engines

Growth of related/expanded industries

- 1 Strengthening the aviation industry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through the expertise and data accumulated from UAM
- 2 Growth of the robotics market associated with equipment /parts manufacturing and software development
- 3 Growth of the autonomous driving and unmanned drone market related to aviation technology, software, and AI/Big Data

Leap to a CIS Hub



Global sanctions are anticipated in the future due to the invasion of Ukraine

Difficulties in exports due to trade restrictions from the US and EU

Competitive disadvantage due to frequent conflicts and low economic levels

Uzbekistan

Actively growing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electric vehicle and critical minerals industries

Kazakhstan

Utilizing the current Golden Time, Kazakhstan needs to prepare to become an innovation hub for the CIS



blog.naver.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facebook.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youtube.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organization.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timeliness, no guarantee can be given that the information is complete, accurate as of the date received, or will remain accurate in the future. Participants should not act on this information without seeking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situation.

Th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name and logo are used exclusively for this event and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 2025 ALATAU RISE With Kazakhstan. All rights reserved. Th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name and logo are the property of the organizers and may not be used, reproduced, or distribute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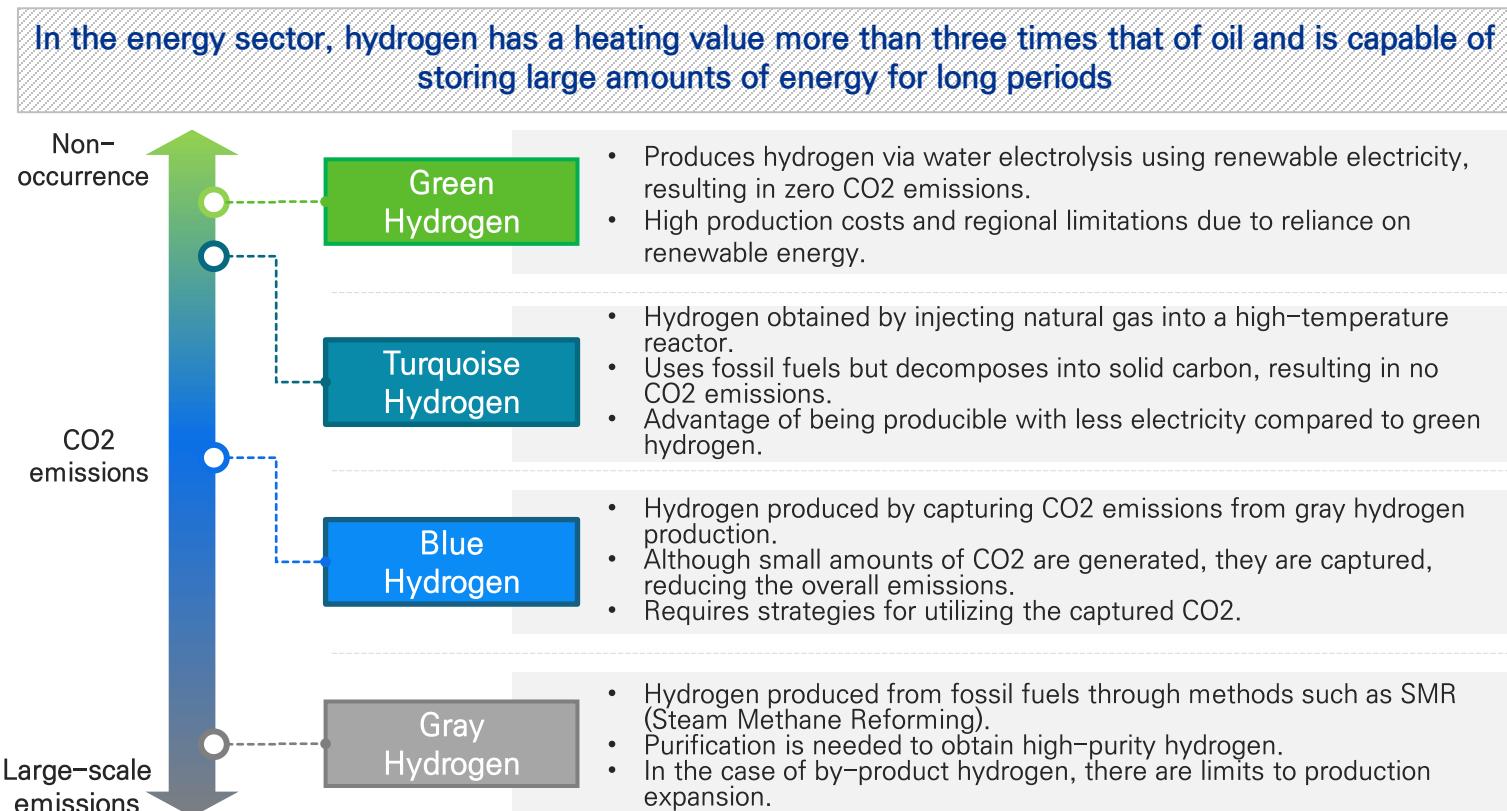


Appendix 3.

Alatau City Serves as a Balanced and Sustainable Hydrogen Economy City

Hydrogen types are classified as green, turquoise, blue, and gray based on CO2 emissions and production methods, moreover, Key issues at the production stage include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green hydrogen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cally viable hydrogen production methods

The four main types of hydrogen



Source: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석유화학 공정 등 특정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

Key Issues in the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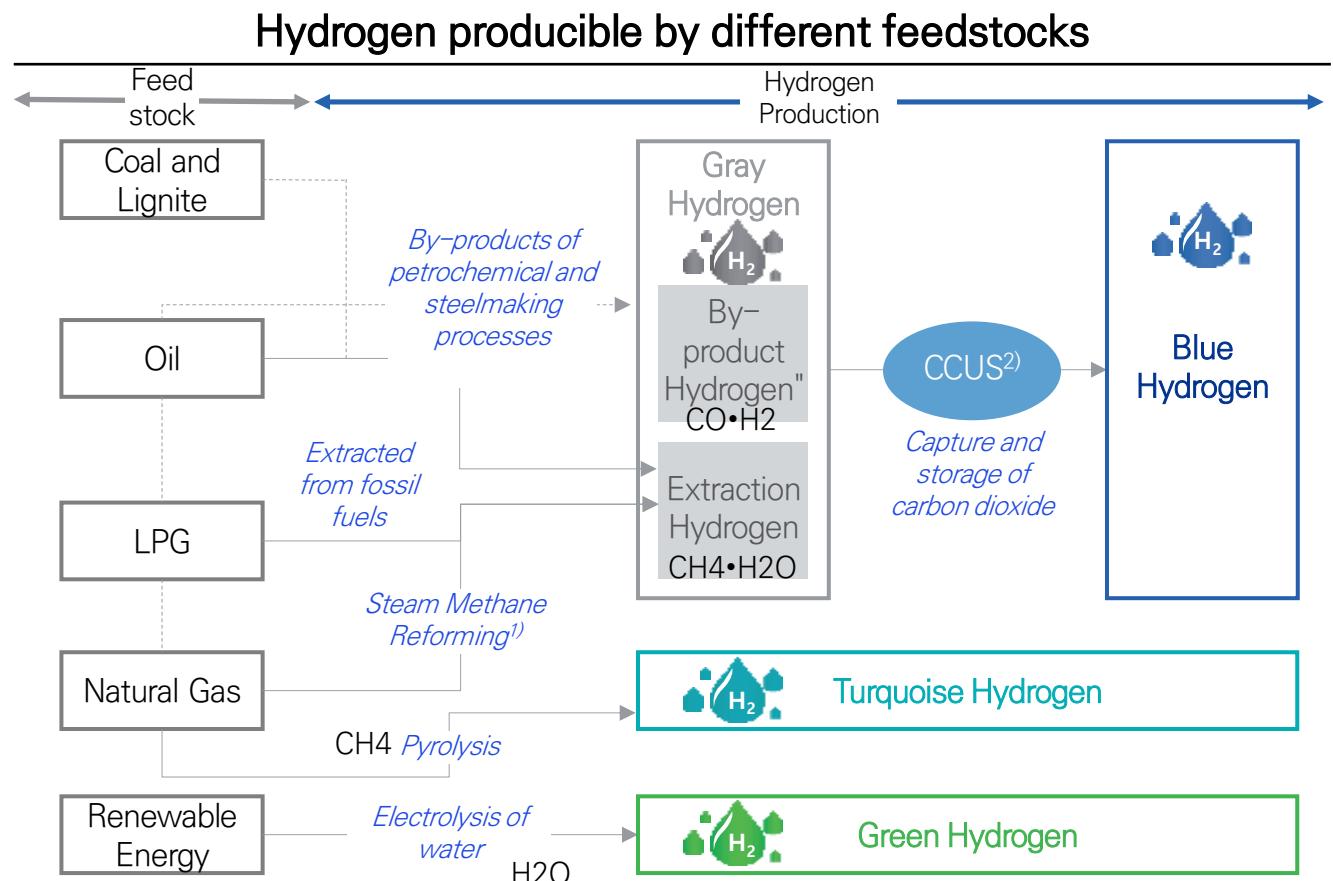
① Ultimately, the goal is green hydrogen.

- Dominating the gray/blue hydrogen ecosystem facilitates the transition to a green hydrogen ecosystem.
- If considering hydrogen as a means to achieve net zero, the ultimate goal must be green hydrogen.
- How should we respond to the expanding green hydrogen market?

② What are the cost-effective hydrogen production methods?

- In the short term, the focus is on hydrogen markets with economic viability
- This includes extracted hydrogen from gray hydrogen with lower CO2 emissions and blue hydrogen with captured CO2

To produce blue, turquoise, and green hydrogen, which are considered clean hydrogen, it is essential to have abundant natural gas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Carbon emissions by energy source

Energy	Carbon Emissions
Grey H ₂	8.6 ~ 9.8 kg
Blue H ₂	0.8 ~ 2 kg
Turquoise H ₂	0 kg
Green H ₂	0 kg

- Clean hydrogen standards by country: USA (4kg), Japan (3.4kg), EU (3.4kg), Korea (4kg)
- ➔ For low-carbon industrial growth, the use of blue, turquoise, and green hydrogen is essential.

1) Steam Methane Reforming

2)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장치

Source: '수소생산에서 활용까지, 수소경제에서 찾는 기회', KPMG, 2021

The hydrogen economy, with its low carbon emissions, supply stability, and ease of storage, has the potential for industrial expansion and economic activation. In regions like Europe, active in carbon neutrality, production shortages exist business opportunities for neighboring hydrogen producers

Hydrogen Economy

Economy based on an energy supply system that produces hydrogen from other energy sources, builds infrastructure for transporting and storing the produced hydrogen, and uses hydrogen through combustion or fuel cells to generate and consume electricity

Universality

Enhancing energy independence and energy security:

- Hydrogen fuel can replace fossil fuels, enabling domestic production.
- Diversifying energy sources mitigates energy supply risks.

Environmental

Contributing to a carbon-neutral society with eco-friendly energy:

- Hydrogen produces heat and electricity, generating water (H₂O) as a byproduct
- Realizes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nd fine dust

Ease of Storage

The role of an energy carrier

- Compared to other energy sources like electricity, hydrogen is relatively easier to store.
- This storage ease offers economic benefits in distribution and advantages in building refueling station infrastructure.

Scal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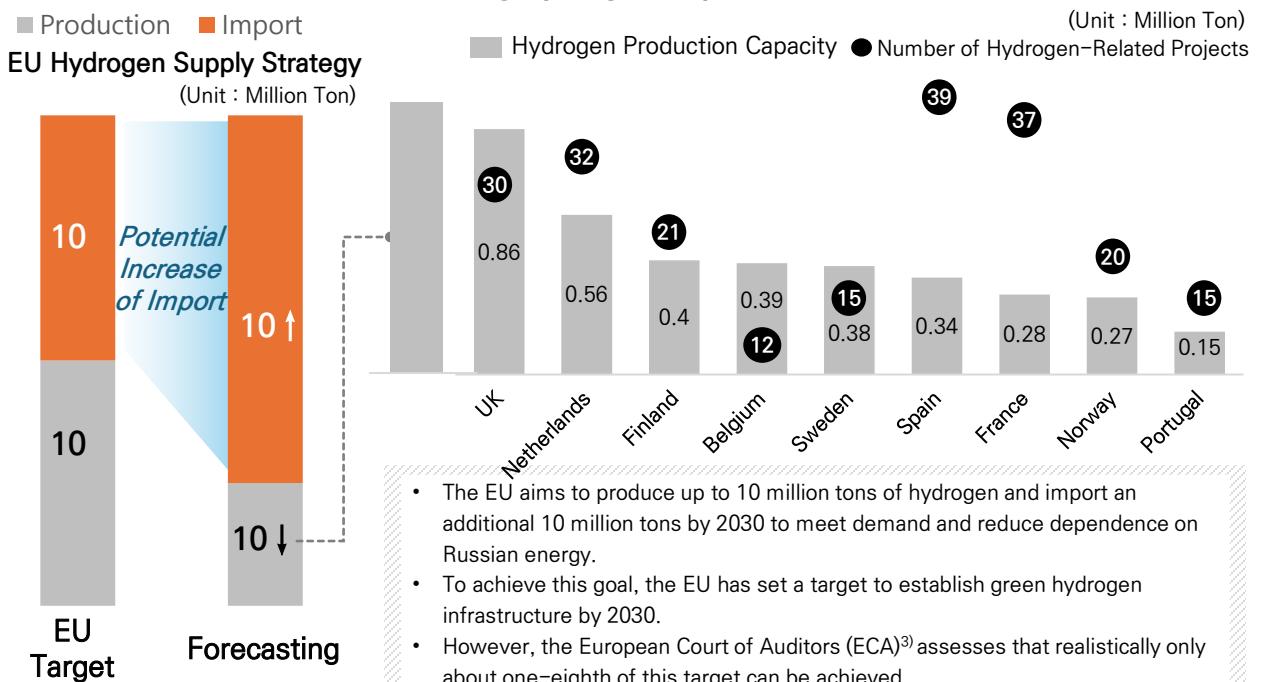
A future growth engine with significant impacts on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 Potential to create new future industries
- Can be linked to various industries across the value chain, promoting the expansion of related industries

1) EU Hydrogen Strategy (2022) 2) "Clean Hydrogen Monitor", Hydrogen Europe

2030 EU Hydrogen Import Strategy¹⁾ and Key Countries' Production Plans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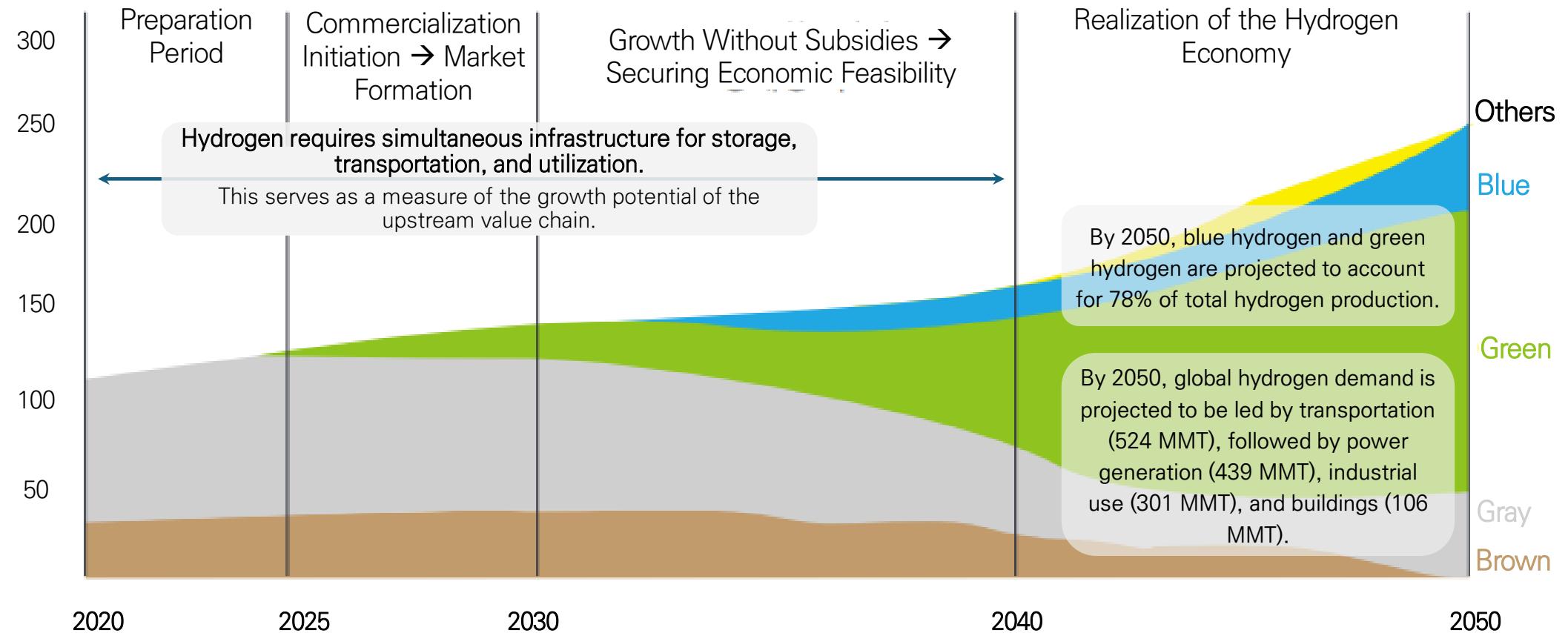
The production of 3.63 million tons by major countries falls significantly short of the EU's target of 10 million tons, making hydrogen imports inevitable



3) "ECA 'EU의 '30년까지 청정수소 1,000만톤 생산 계획… 비현실적'", ESG 경제

The global hydrogen market is expected to see the full realization of the hydrogen economy from 2040, primarily driven by blue hydrogen and green hydro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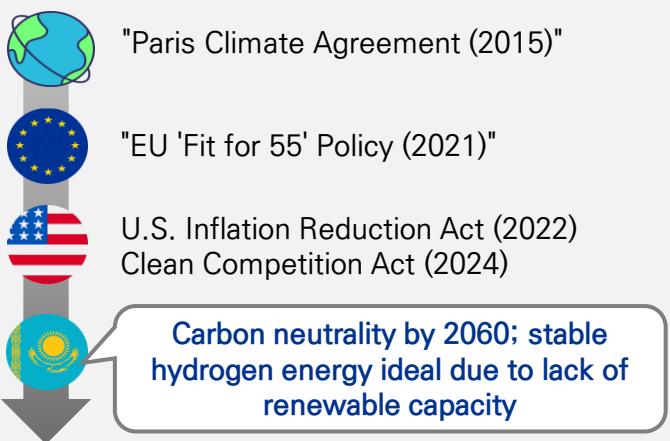
Unit: Million ton



Source: 1) Hydrogen Council(2022), 2) KPMG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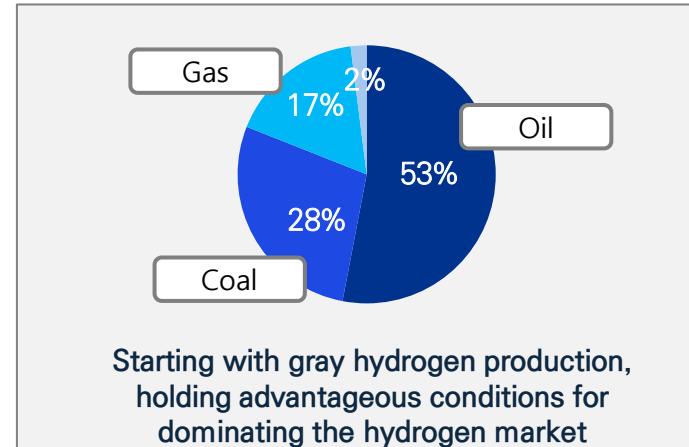
Kazakhstan utilizes renewable energy for carbon neutrality and possesses abundant resources for hydrogen production. Particularly, Alatau City is a key transport hub on the New Silk Road, enabling exports to both Europe and Asia. These factors highlight Kazakhstan's necessity and strengths in venturing into the hydrogen industry

Additional Energy Sources Needed for Carbon Neutrality



-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sistently announcing carbon neutrality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 Kazakhstan has also declared carbon neutrality by 2060 and announced plans to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from 4.7% to 50%.
- However, due to insufficient planned capacit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troduction of gray hydrogen utilizing by-products from power generation** can be considered.

Priority Utilization of By-products from Power Generation in Kazakhstan



- Kazakhstan is a country where the **main energy resources are oil, coal, and natural gas**, making it **advantageous for hydrogen production**.
- It also has high potential for renewable energy, enabling green hydrogen production.
- By producing gray hydrogen, Kazakhstan can become a key production hub in the **initial hydrogen market** and later dominate the global hydrogen market.

Possesses rail lines conducive to ex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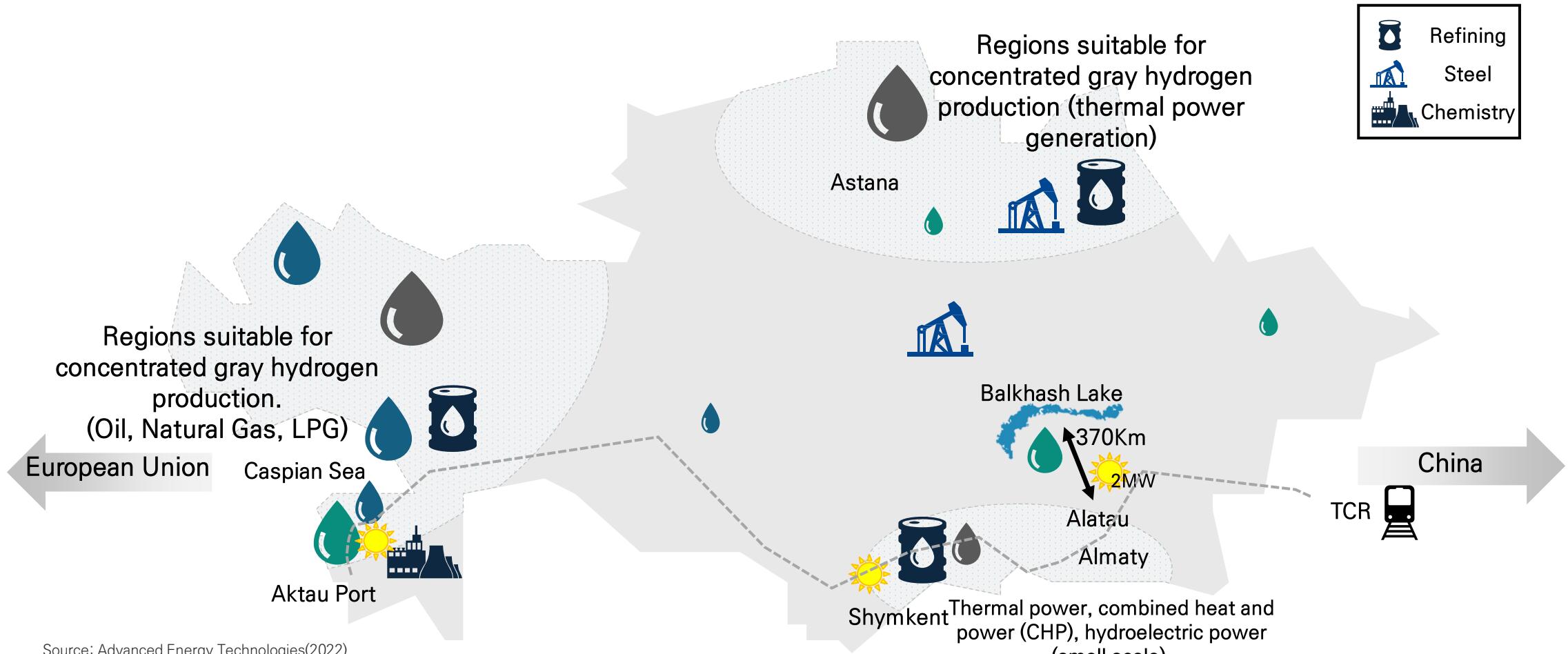


- Kazakhstan's strategic loc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provides easy access to the hydrogen market.
- **In the short term, green hydrogen can be produced by importing renewable energy from China, and in the long term, exporting clean hydrogen is feasible.**
- The future potential deman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hydrogen is expected to be high.

1) 시장 선점 기회 여부, 시장 성장성 고려, 2) 탄소중립에 달성을 위한 영향력, 3) 철강 제련 과정에 필요한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것
 Source: '수소생산에서 활용까지, 수소경제에서 찾는 기회', KPMG, 2021

Kazakhstan possesses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adoption of a hydrogen 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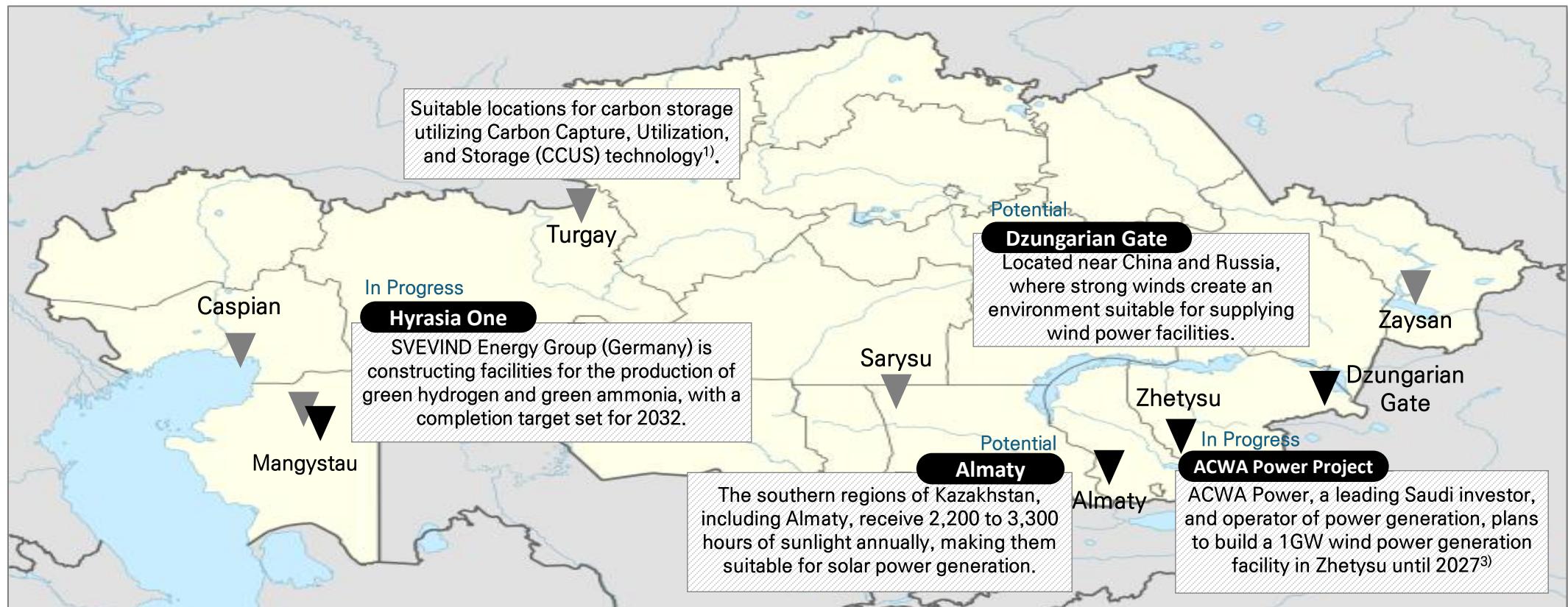
Gray hydrogen can be sourced from regions with gas and coal power plants, utilizing existing fossil fuels. Alatau can consider sourcing clean hydrogen (turquoise, green) using renewable energy sources from the Ulken area near Lake Balkhash



Securing renewable energy production capacity near Alatau is essential for producing green hydrogen, and Kazakhstan possesses various renewable energy sources suitable for green hydrogen production

Kazakhstan's Renewable Energy Sources

- ▼ Carbon landfills suitable for storing carbon dioxide
- ▼ Potential locations for a renewable energy project / Locations where a renewable energy project is in pro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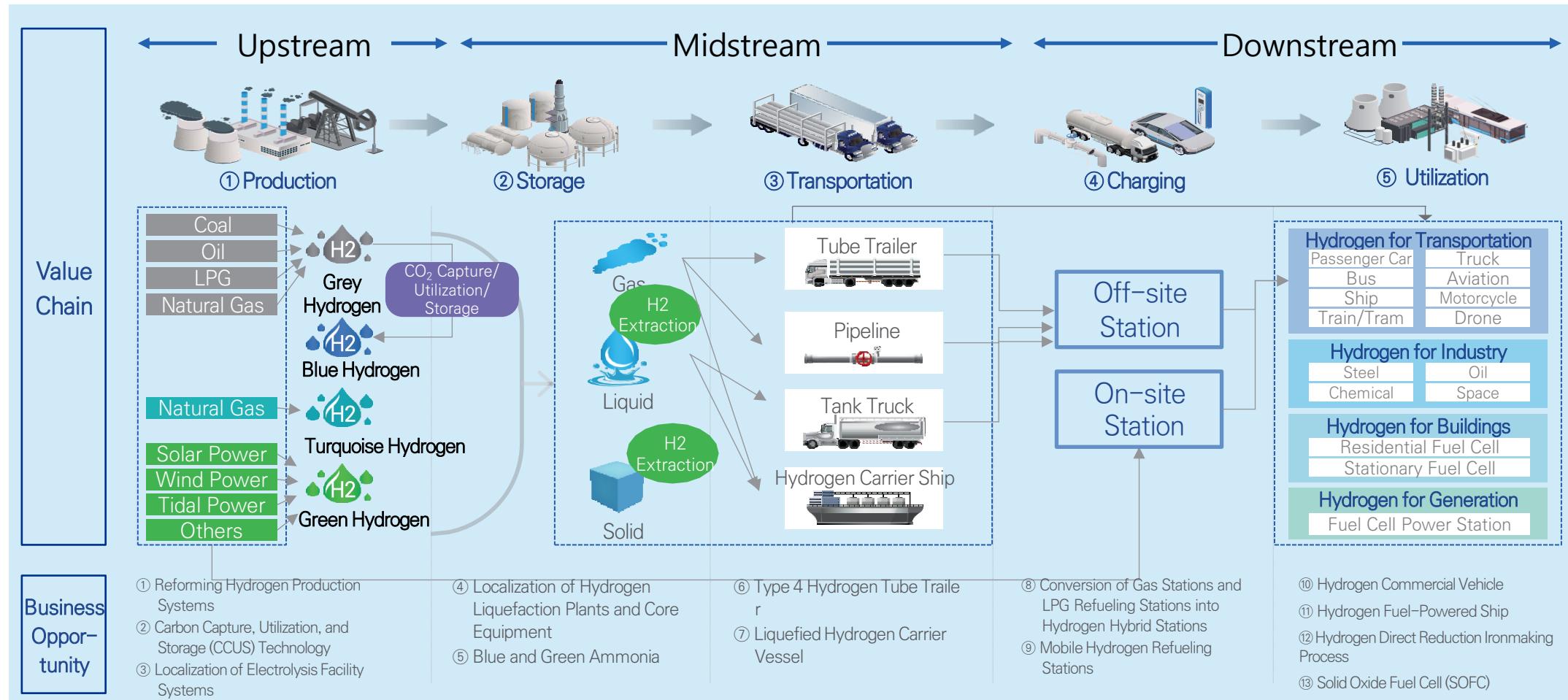


Source: 1) "Hydrogen energy in Kazakhstan : prospects for development and potential", Energy Policy Journal (2024.06)
Signs Roadmap Agreement for 1GW Wind Energy and Battery Storage Project in Kazakhstan", ACWA Power

2) "카자흐스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적극 개발추진", KI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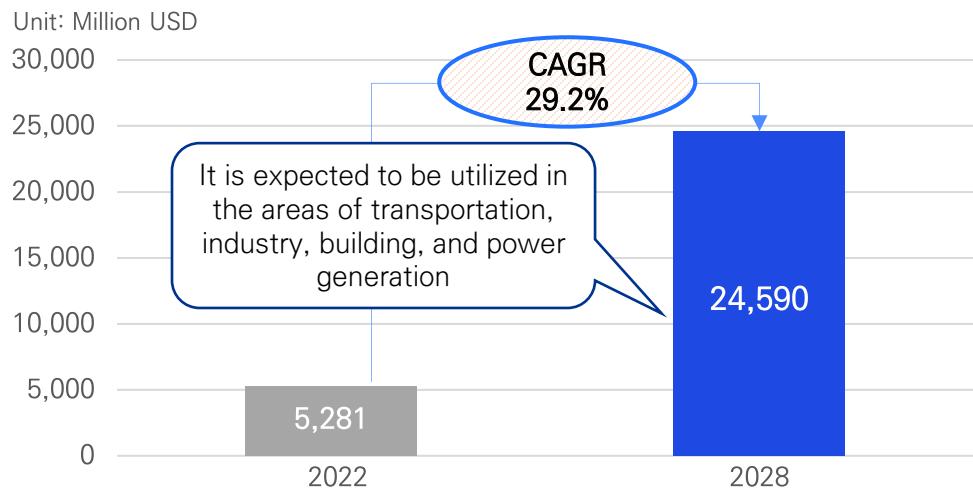
3) "ACWA Power

Hydrogen Economy Value-chain



Hydrogen fuel cells are the business item with the highest potential for future utilization

Hydrogen fuel cell market



Growth Drivers

- The hydrogen fuel cell market is also expected to grow in tandem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hydrogen industry by global countries, as it produces electricity using hydrogen as fuel
- Hydrogen fuel cells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have higher density and energy efficiency compared to batteries, leading to high deman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mobility and power generation.

Source: '수소 시대의 도래, 기업의 13가지 기회', KPMG, 2023

Areas of Application for Hydrogen Fuel Cells



- Providing power to hydrogen passenger cars, buses, vans, and trucks through the chemical reaction of hydrogen and oxygen in



- Developing hydrogen-fueled passenger and large vessels

- Utilizing hydrogen fuel cells, which have faster charging speeds compared to batteries, for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machinery

- Utilizing electricity and thermal energy produced by fuel cells for residential heating and electri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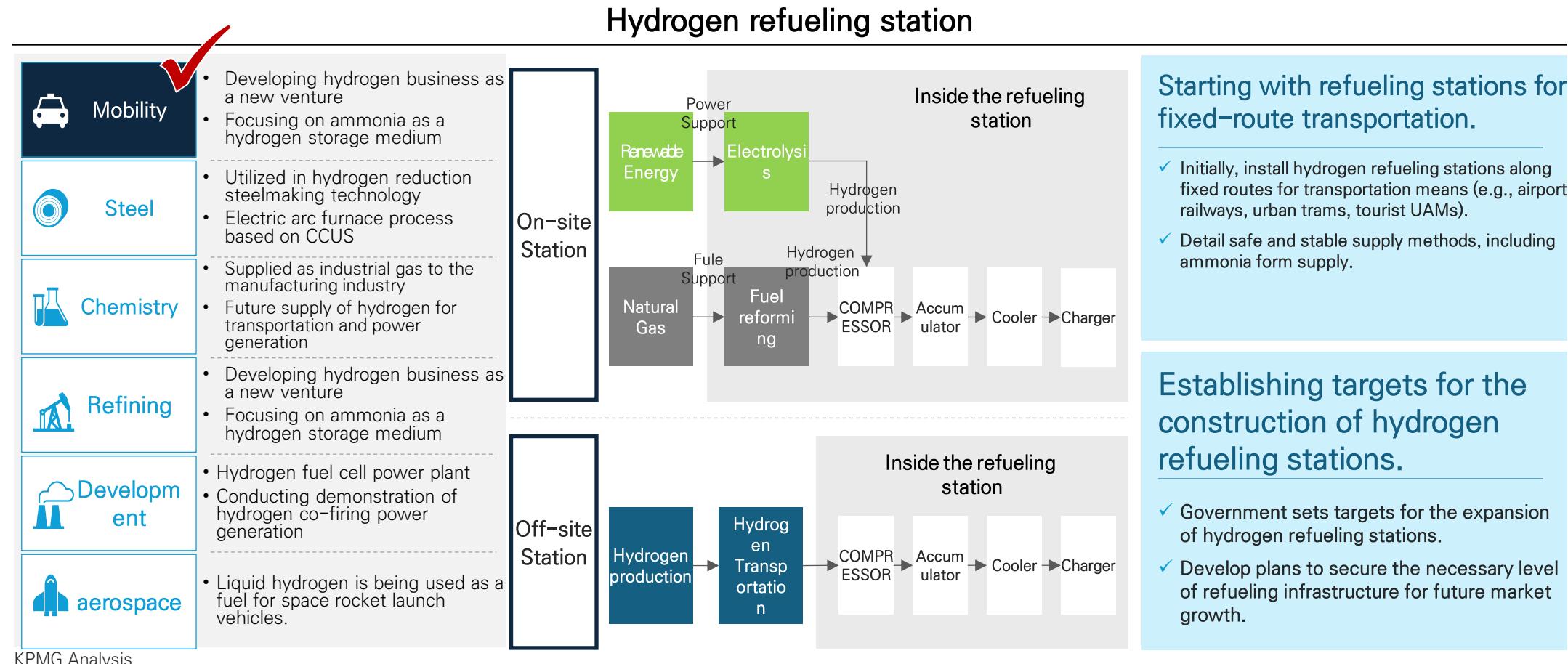
Hydrogen fuel cells are more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red to batteries

Battery Cell		Fuel Cell	
			
Main Raw Material	Lithium, Cobalt, Nickel, Graphite, and other metal raw material		Hydrogen, Oxygen
Areas of Application	Electric Vehicles, Smartphones, Laptops, ESS, AAM, etc.		Hydrogen commercial/passenger vehicles, ships, space launch vehicles, large-scale power generation, etc.
Operation principle	After injecting electricity from an external source and storing it internally, there is a risk of fire.		Hydrogen is injected from an external source, and electricity is generated through hydrogen decomposition.
Battery weight	Electric truck, 4.5 tons	● 500% Reduction →	Hydrogen electric truck, 150 kg
Charging speed ¹⁾	Car: Fast charging (80%): 20–30 minutes, slow charging: 3–6 hours Drone: 60 to 90 minutes	● Efficiency above 180% →	5 minutes to 20 minutes ³⁾ Within 10 minutes
Driving Range	Around 400 km	● X 2 →	Around 800 km
Cost	\$130 to \$150 per kWh	● X 2 →	\$200 to \$300 per 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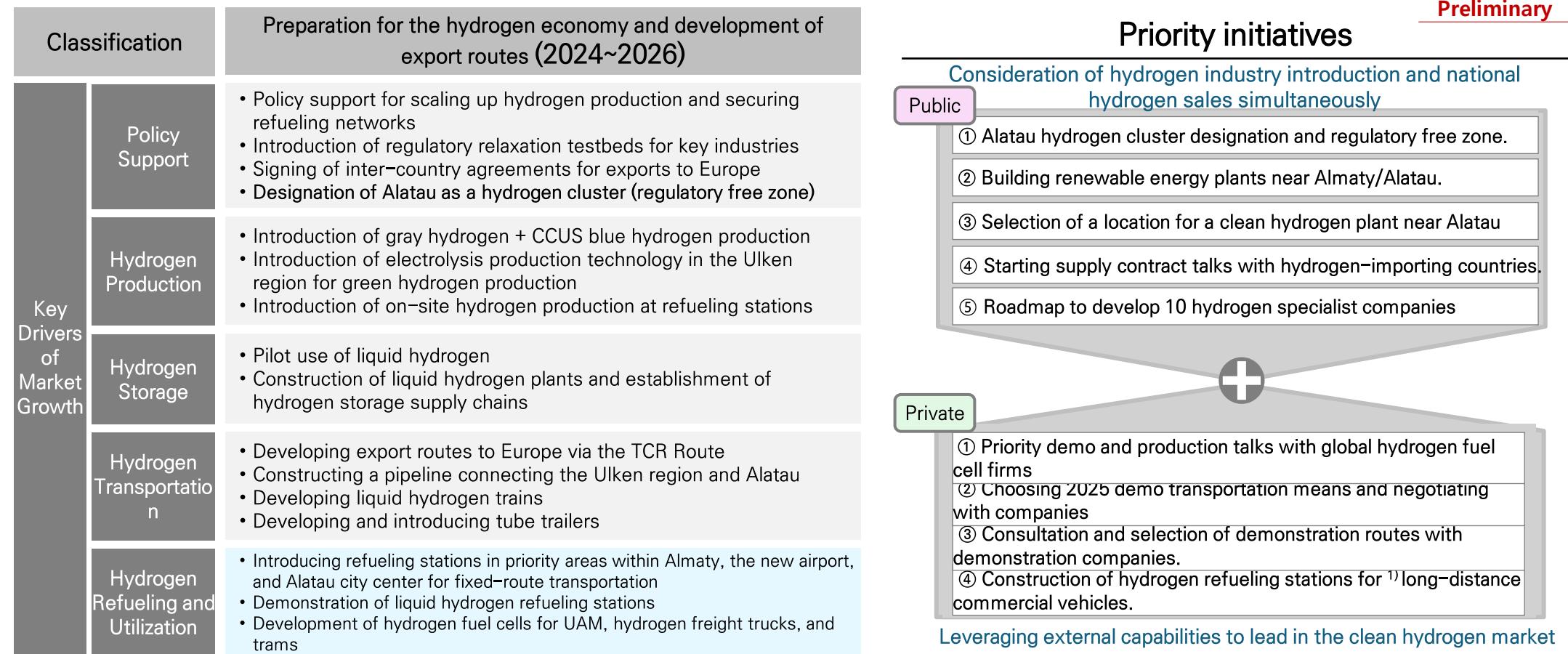
1) 현대자동차 버스 기준 각각 배터리(72분, 62kWh리튬폴리머 배터리 4개 장착, 최대 319km주행), 수소연료전지(15분, 90KW 수소탱크, 리튬폴리머배터리(78.4kWh), 최대 434Km 주행 609km 주행

2) 현대자동차 수소차 NEXO모델 5분 충전,

Hydrogen refueling stations are a business in which private entities can take a leading r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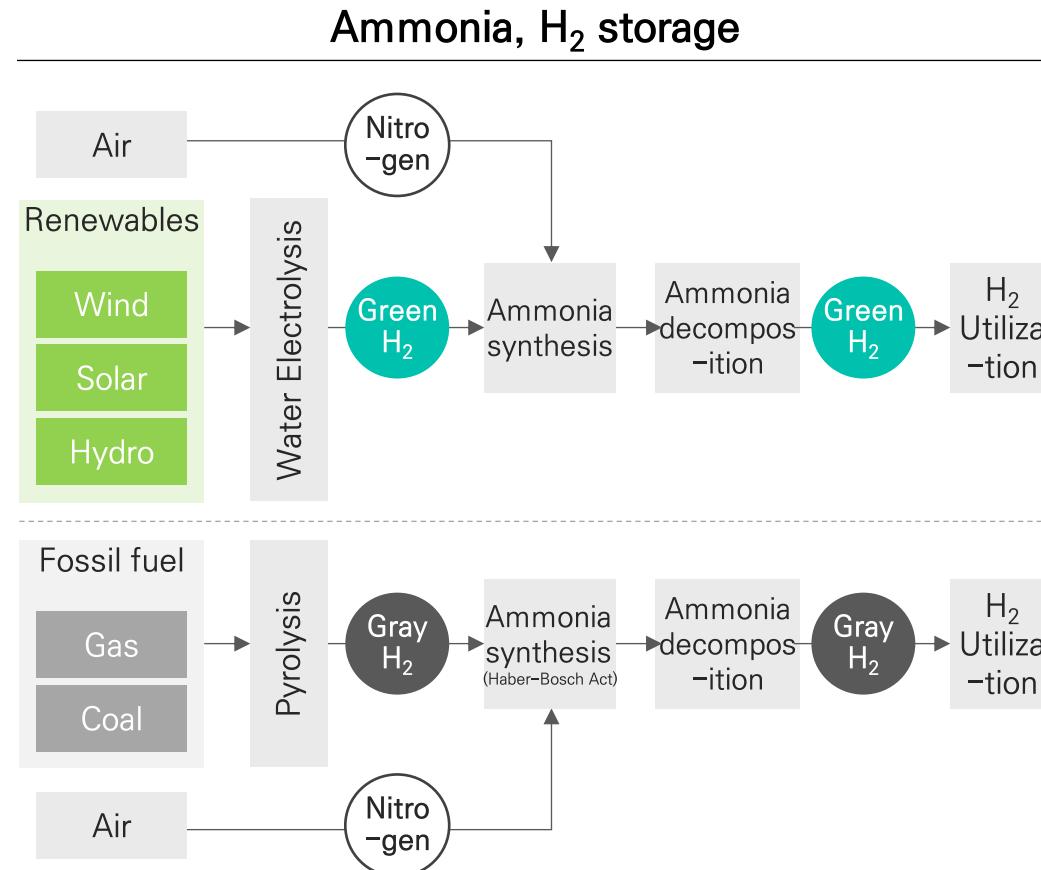


Entering the initial hydrogen market requires essential public-private collaboration



1) 시장 선점 기회 여부, 시장 성장성 고려, 2) 탄소중립에 달성을 위한 영향력, 3) 철강 제련 과정에 필요한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것
 Source: '수소생산에서 활용까지, 수소경제에서 찾는 기회', KPMG, 2021

Ammonia is an efficient way to store hydrogen



Source: KPMG Analysis

Ammonia for high volume H₂ long-distance transportation

Type	Liquid H	Ammonia	LOHC (MCH)
H ₂ storage density per volume (kg/m ³)	70.8	121	47.3
Key process technology maturity levels	Transition	High/Low	High
	Tank storage	High	High
	Transportation (ship/pipe/truck)	低/High /High	High/High /High
	Re-transition	High	Mid
	Supply-chain linkage level	Mid ~ High	High
Cost (USD/kgH ₂)	Conversion + transportation costs (by ship for a distance of 1,500 kilometers)	2.0	1.2
			0.6

In terms of H₂ storage density per volume, technological maturity of key processes, and cost Ammonia is most efficient in terms of long-distance transportation of large volumes of H₂

Increasing need for liquid hydro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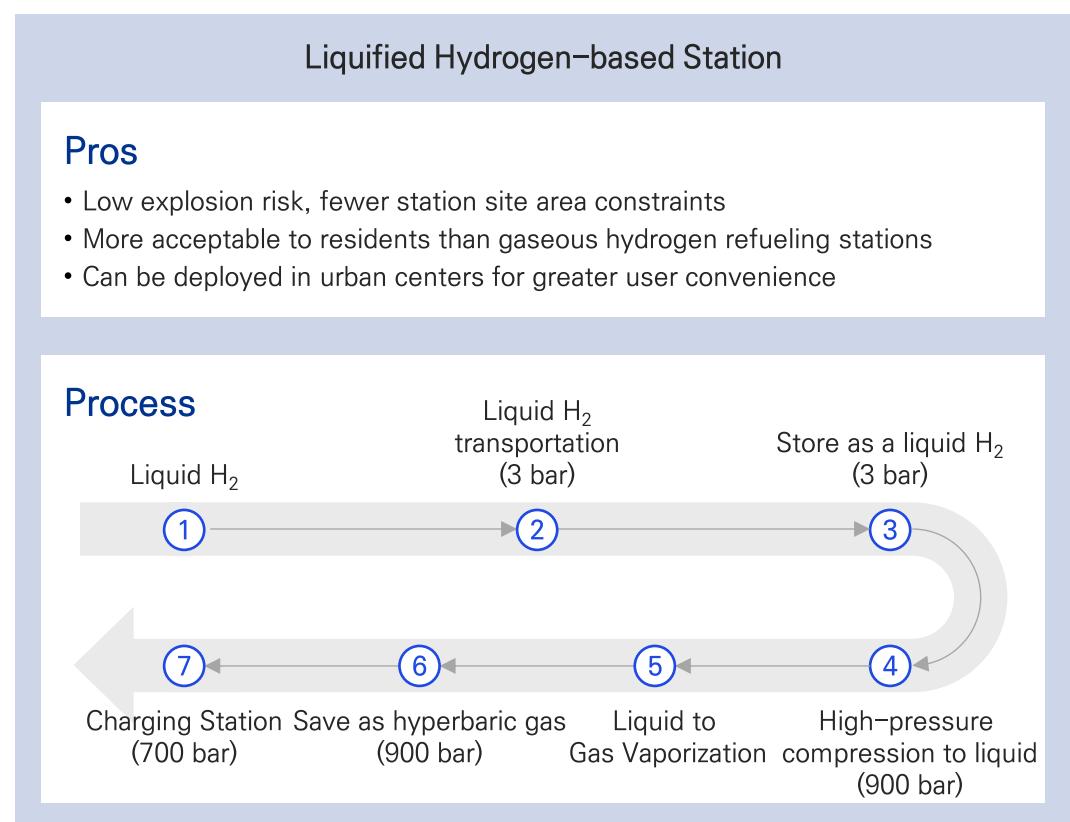
As liquid H₂ has advantages over gaseous H₂ in terms of storage, transportation, charging, and utiliza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transportation fuel through refueling stations, including national strategic projects currently being utilized

Ammonia as a hydrogen storage medium

Type	Gaseous Hydrogen	Liquid Hydrogen
H ₂ Stor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Store at room temperatureHigh pressure compression required (200–700 bar)High-pressure vessel requi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Storage at atmospheric pressureRequires -253°C to remain liquidCryogenic insulation required
H ₂ Transpor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High-pressure hydrogen transportation → High explosion riskSuitable for tubetrailers or pipel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Transportation at atmospheric pressure → Low explosion riskTransportation by tanker
H ₂ Char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Larger charging station footprint compared to liquid hydrogen st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Smaller station footprint compared to gaseous hydrogen stations
H ₂ Uti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Industrial, power generation, etc., but primarily pipeline-supplied industrial requires gaseous hydro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Mostly transportation fuelUtilized for national strategic projects (rocket propulsion fuel, etc.)

Source: 특허청, 한국가스기술공사
KPMG Analysis

Key applications of liquid H₂





blog.naver.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facebook.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youtube.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organization.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timeliness, no guarantee can be given that the information is complete, accurate as of the date received, or will remain accurate in the future. Participants should not act on this information without seeking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situation.

Th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name and logo are used exclusively for this event and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 2025 ALATAU RISE With Kazakhstan. All rights reserved. Th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name and logo are the property of the organizers and may not be used, reproduced, or distribute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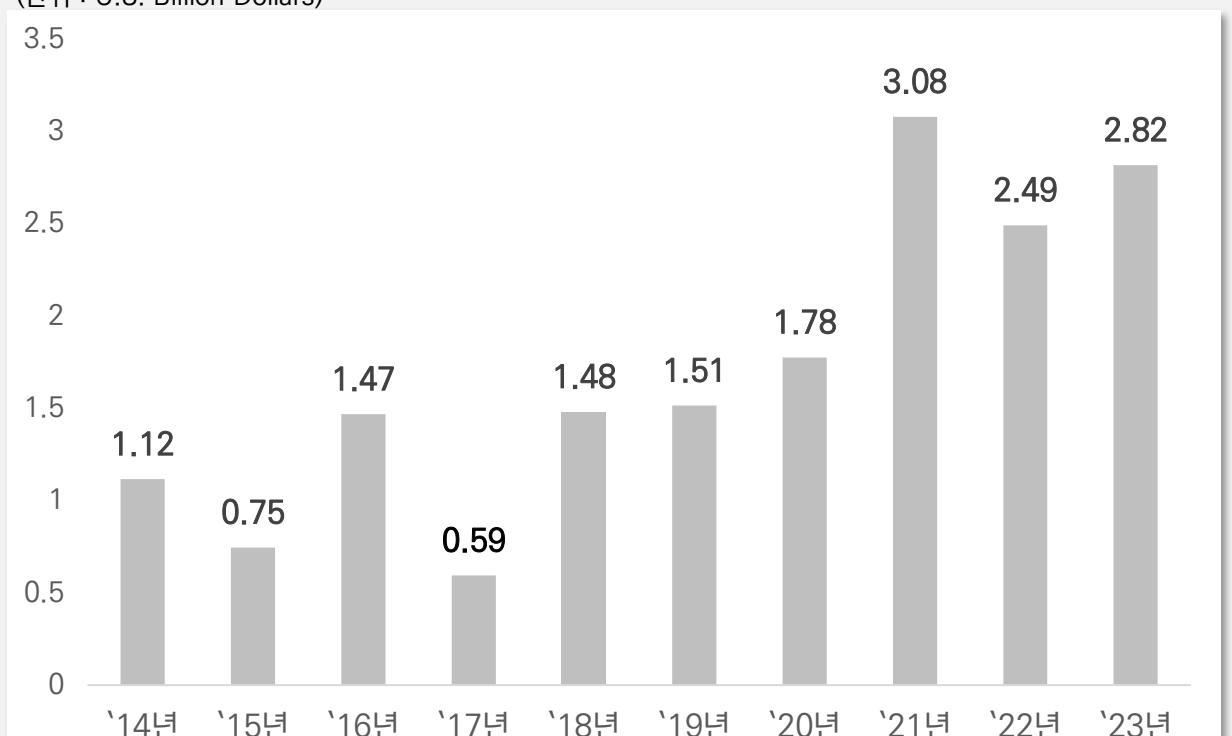
Appendix 4.

Alatau City brings Industrial Innovation with Circular Economy – Mining, Metallurgy, Battery

카자흐스탄 광물 산업 동향

광물 산업의 FDI History³⁾

(단위 : U.S. Billion Dollars)



Drivers

A

■ 카자흐스탄 광물에 대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 '19년까지 중국은 석유화학, 광산,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총 \$276억 규모의 FDI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광물 산업에 \$60억 투자³⁾

B

■ 카자흐스탄 투자청의 적극적인 광산관련 해외 기업 대상 유치 ('18년)

- '18년 내 500개 이상의 광물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진행¹⁾
- 18년 총 650,000톤의 구리 및 금 채굴 위해 러시아의 \$900억 달러 투자 진행²⁾
- '17년 대비 '18년에 광석 채굴 관련 FDI 규모 2배 증가 (\$3.4억 → \$8.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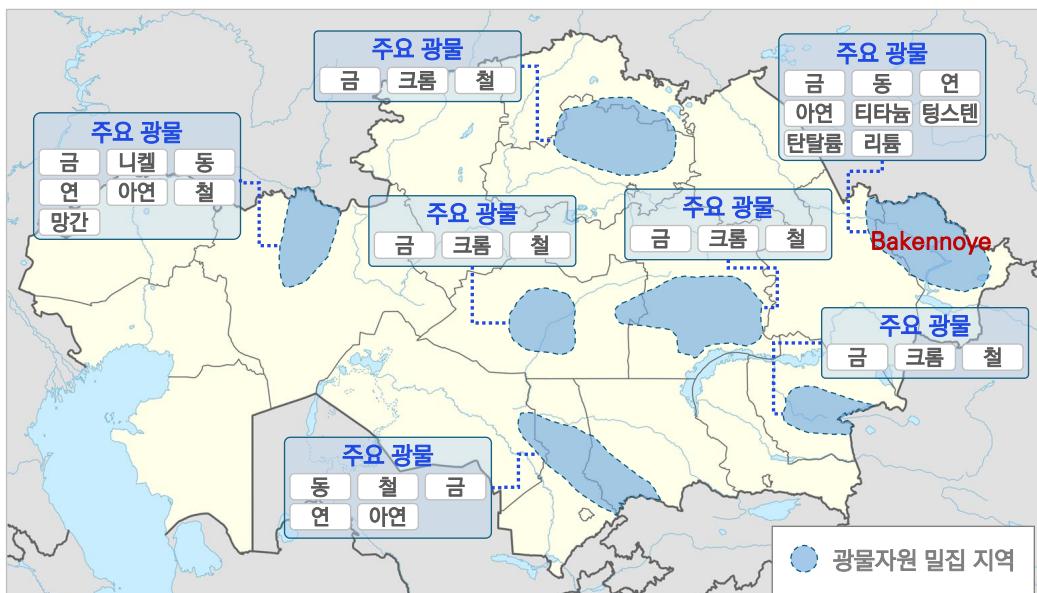
1) "Half China's Investment in Kazakhstan is in Oil and Gas", Dialogue Earth breakdown by residents' types of economic activities", Kazakh Invest, "광물 산업"에는 "Mining of coal and lignite", "Mining of metal ores", "Other mining and quarrying",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가 포함됨

2) AZERNEWS

3) "Gross inflow of direct investment in Kazakhstan from foreign direct investors:

카자흐스탄 시장매력도 – 광물

카자흐스탄 내 광물 매립 지도



- 카자흐스탄은 동, 아연, 철광석, 크롬, 은, 및 금 등의 광물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임 (광물 100여 종류 영토 내 매장)
- 매장량은 높으나 장비 노후화 및 기술력 한계로 인해 많은 양의 광물이 미채굴 상태거나 원료 그대로 수출됨

카자흐스탄 광물 자원 매장량

자원	확인 매장량	세계 순위	활용	비고
크롬 ¹⁾	23만 톤	1위	니켈-크롬 배터리	'23년
우라늄 ²⁾	84만 2,000톤	2위	원자력발전, SMR	'21년
연 ²⁾	200만 톤	2위	원자력 (방사선 차단)	'21년
리튬 ¹⁾	약 10만~18만 톤 ³⁾	//	전기차 배터리	'23년
아연 ²⁾	1,300만 톤	6위	가전제품 외판	'21년
철광석 ²⁾	3억 4,000만 톤	11위		'21년
원유 ²⁾	300억 배럴	12위	제조업 전반	'21년
가스 ²⁾	1조 1,000억 m ³	25위		'21년

- 카자흐스탄은 전세계 우라늄의 40%를 생산하며, 이외에도 리튬, 크롬 등 수요 높은 광물 등이 매장되어 있는 핵심 광물자원 보유국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매장 광물을 개발하여 채굴/제련/배터리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1)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USGS, 그 중 2024년 6월 KIGAM이 조사한 결과 바케노 광구 내 리튬 2만 5,000톤 매장량을 예측하였고, 독점 탐사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시추조사가 진행될 예정
2) "2021년 카자흐스탄 산업 개관", 외교부

3) "지질研, 카자흐스탄 리튬광산 발견 국내 기업 채굴권 확보 추진나서", 매일경제, 리튬을 함유한 페그마타이트 345만톤 중 리튬 함량은 2.7~5.3%이며, 해당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함

카자흐스탄 시장매력도 – 배터리

Bakennoye 리튬 광구



- Aral Sea 및 타 지역에 발견되지 않은 리튬 광구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
- '25년 상반기에는 탐사용 시추조사를 통해 리튬 매장 현황 확인할 계획¹⁾

글로벌 리튬 수요 및 카자흐스탄 리튬 개발

글로벌 리튬 수요 규모²⁾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수요는 연평균 25.2% 성장 ('21~'30) 예정
그 중, 리튬의 수요는 전 핵심광물 수요 중 약 50% 차지 예상

카자흐스탄 리튬 매장량 및 가치

카자흐스탄 Bakennoye 광구의 단독 리튬 예상 매장량은 2.5만톤으로, \$38억 이상의 가치 보유¹⁾

한국 기업 영향력 상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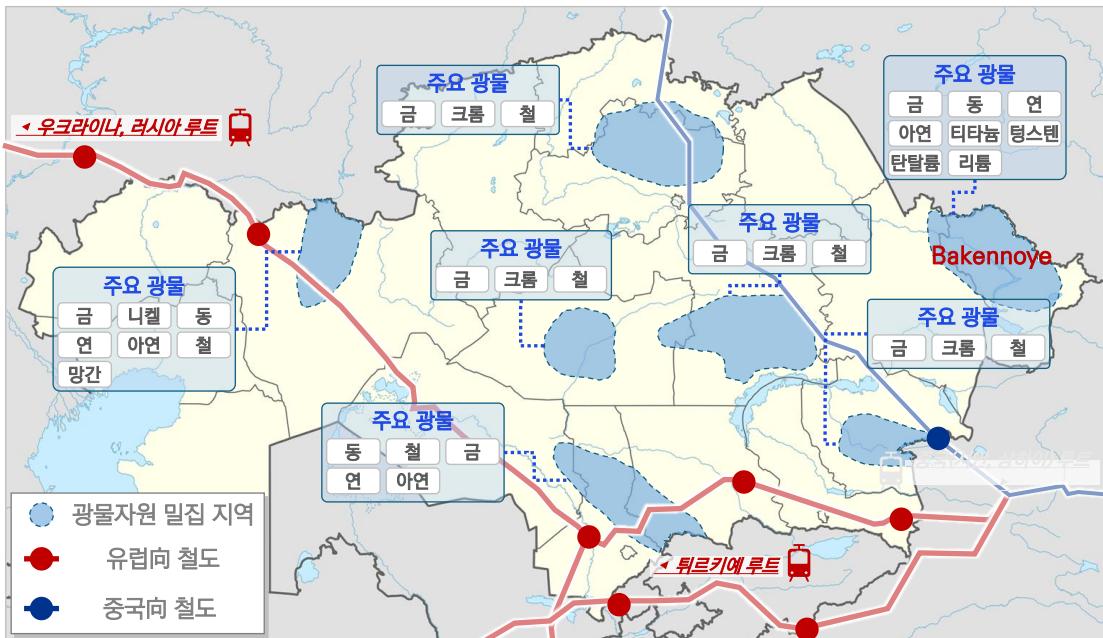
탐사권 확보는 실제 개발 시 한국의 영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개발 참여 투자자 선정 시 한국 기업 중심 구성 예상

1) “리튬이온배터리 수요 2035년까지 연 15.4% 증가”, Business Post

2) “전기차 330만대 분량 카자흐 리튬 탐사권 확보”, 조선일보

리사이클링 거점으로서의 카자흐스탄

CIS 내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위치



- 카자흐스탄 정부는 매장 광물을 개발하여 채굴/제련/배터리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CIS 지역 중심부 위치 및 유럽 및 중국으로 통하는 철도 존재

진출 시사점

카자흐스탄은 추후 배터리 밸류체인의 수직계열화가 가능한 환경적 구조 보유

카자흐스탄은 니켈, 우라늄, 리튬 등 원자력, 배터리 산업에 활용도 높은 광물의 높은 매장량을 기록하고 있음

CIS 지역 내 폐배터리 확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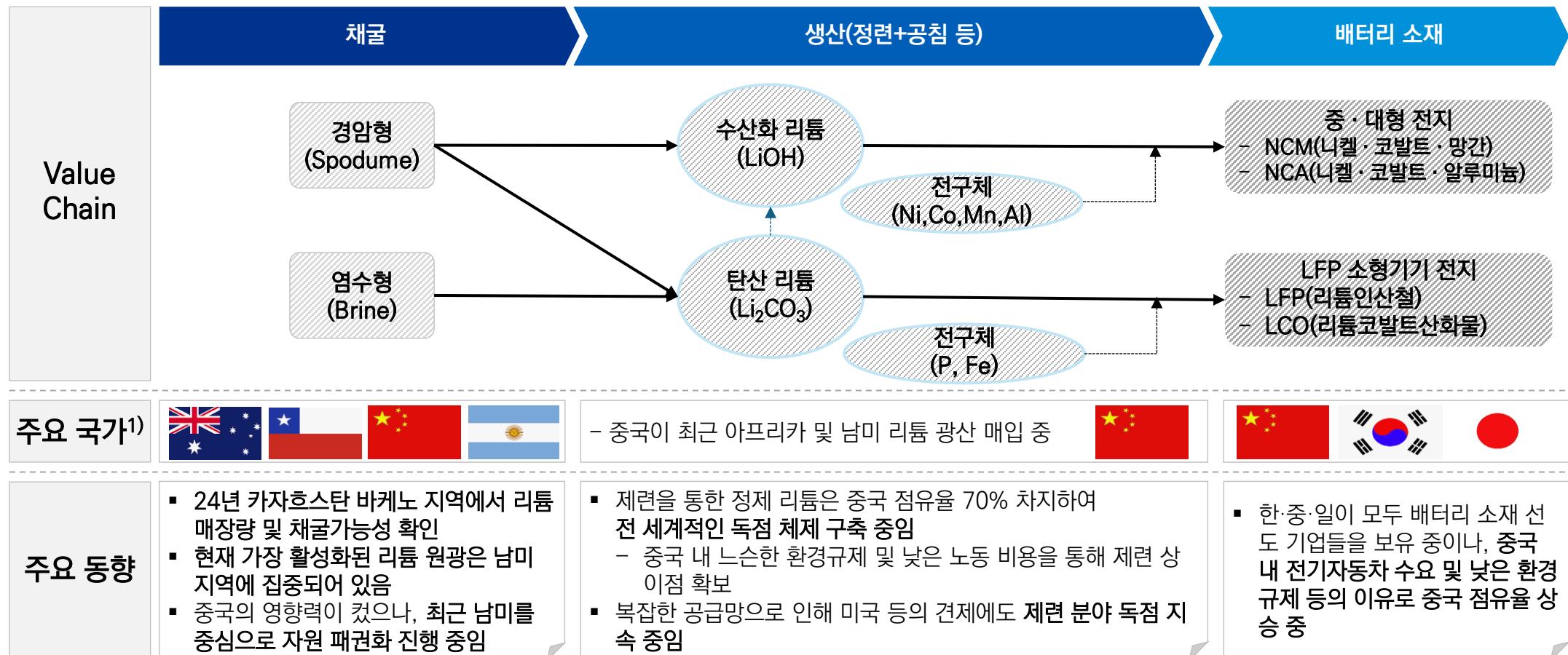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CIS 국가들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설립 추진 중인 만큼 추후 폐배터리 물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 진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인프라(도로), 광산 탐사 등 기존 사업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사업 연계 및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리튬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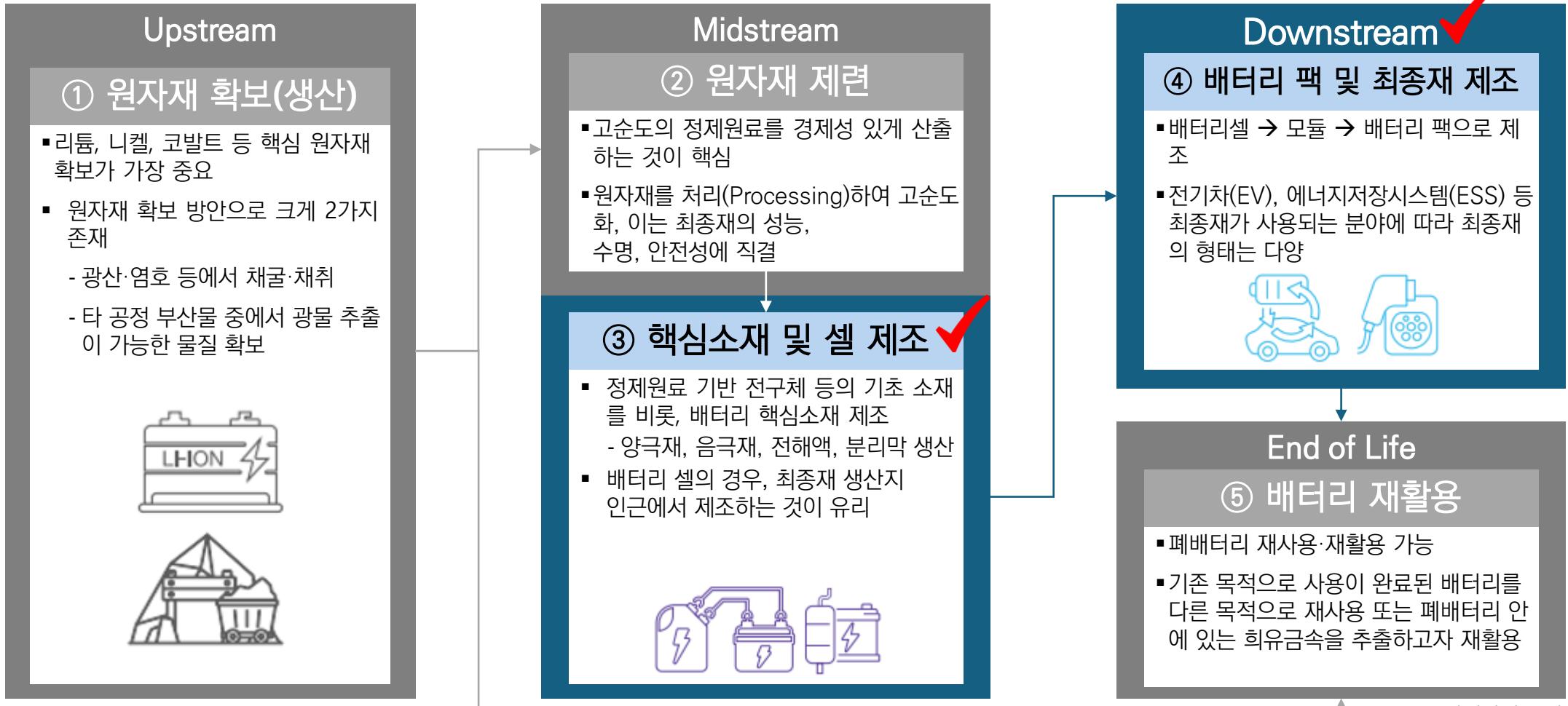
니켈은 리튬이온전지 양극활물질의 주요 소재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배터리 소재 등으로 사용범위 확대 추세에 있음



1) 2023년 기준, 미국지질조사국 통계

배터리 밸류체인 구성

✓ Alatau 산업단지 유치 가능 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필요성

글로벌 산업의 변화로 인한 핵심광물 수요 급증 및 자원공급국의 핵심광물 국유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이 필수임

국내외 공급망 동향

국내	공급 수요	■ 기업들은 장기공급계약, 해외자원개발, 국내생산, 재자원화, 정부는 광물 비축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중이지만 수요 증가 대응에 한계
해외	수요국	■ 첨단산업(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 ■ 원료 광물 처리를 위한 국내 기반(정·제련)의 부재로 특정국으로부터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증가
해외	공급국	■ 중국은 리튬·니켈·코발트·흑연 등 이차전지 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장악 ■ 칠레/인도네시아는 핵심광물 생산·수출 통제 강화
해외	수요국	■ 특정국 중심의 공급망 탈피를 위한 동맹국 중심의 협력 확대 ■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추진

핵심광물 확보 필요성

탄소중립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 친환경·전기화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 핵심광물 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공급망 재편 가속화
- 탄소중립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확대
→ 원료광물 수요 '20년 대비 '40년까지 4배 이상 급증 전망

특정국 편재성 및 자원무기화 확산으로 공급 불확실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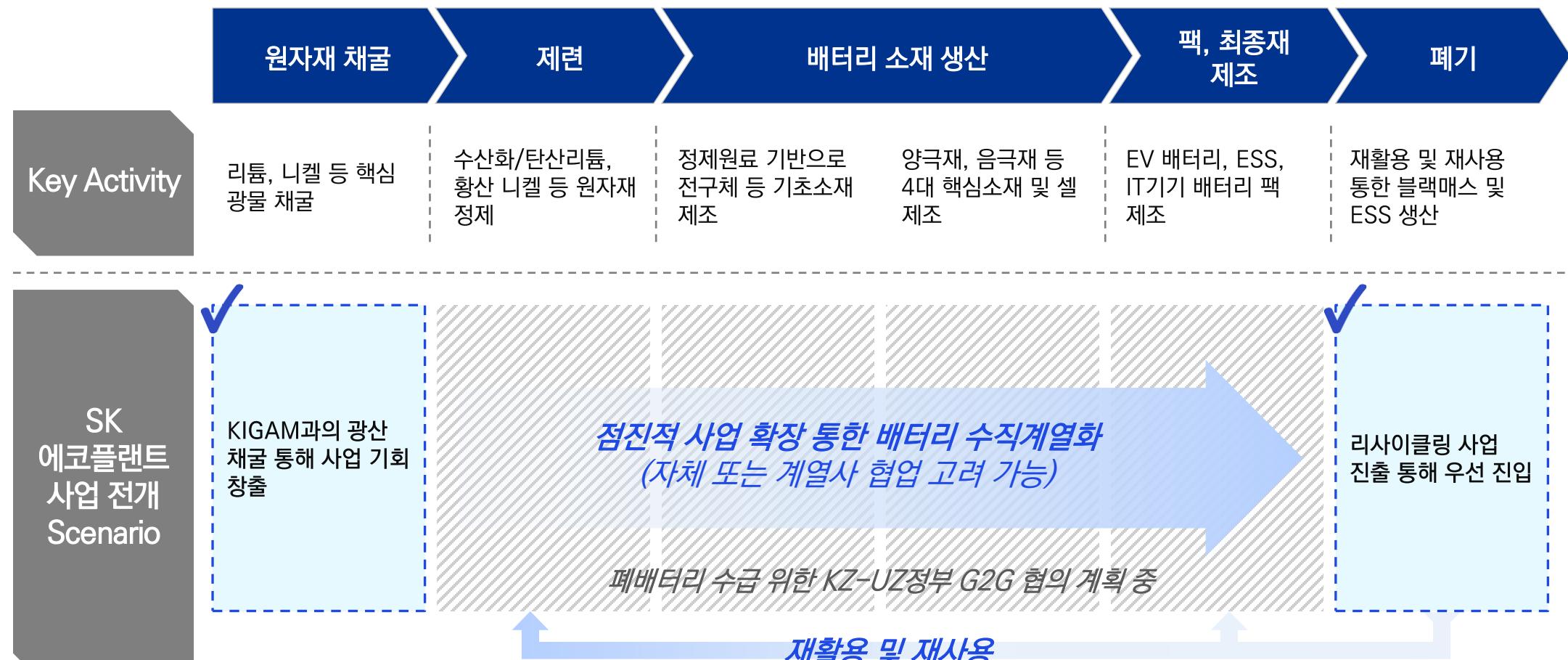
-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생산이 집중
→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주요 수입국 간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및 공급국의 수출통제 등 공급망 교란
→ 핵심광물의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급증 초래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필요

-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
→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 최근 美·中 간 공급망 재편,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블록화
→ 환경변화를 고려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 필요

Why 카자흐스탄 》 배터리 밸류체인 Closed Loop 구축

카자흐스탄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시 인프라(도로), 광산 탐사 등 기존 사업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사업 연계 및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



Source: KIGAM 홈페이지 및 KPMG Analysis

Why 카자흐스탄 》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CIS의 거점화 용이

전기차 친화적 정책 시행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중심으로 CIS 지역내 EV 차량 수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7~10년 내 폐배터리 처리 수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CIS 내 주요국 EV 현황

카자흐스탄 전기차 현황	EV 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 주도 정책 및 EV 브랜드 진출로 인해 높은 증가율 기록 중'29년까지 누적 EV 35,000~40,000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EV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EV 도입 촉진 위해 세금 (관세, 재활용 분담금) 혜택 제공 중EV 구매 시 대출 및 현금 보상 제도 운영 중
	EV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EV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KZ 정부는 '24년에 5년 로드맵 수립함EV 전용 인프라 (도로, 충전소, 차선 등) 구축 방안 설계
우즈베키스탄 전기차 현황	EV 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BYD社와의 계약 통해 '21년부터 전기차 물량 급격하게 증가함BYD 공장 설립 및 EV 공공차량 도입 예정
	EV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탄소 배출 정책과 연계. 친환경 혜택 강화EV 구매 시 세금 (관세, 소비세 등) 혜택 제공 중
	EV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中 기업과 협업 통해 충전소 확산 계획 수립 중 - '25년까지 EV 충전소 2,500개 설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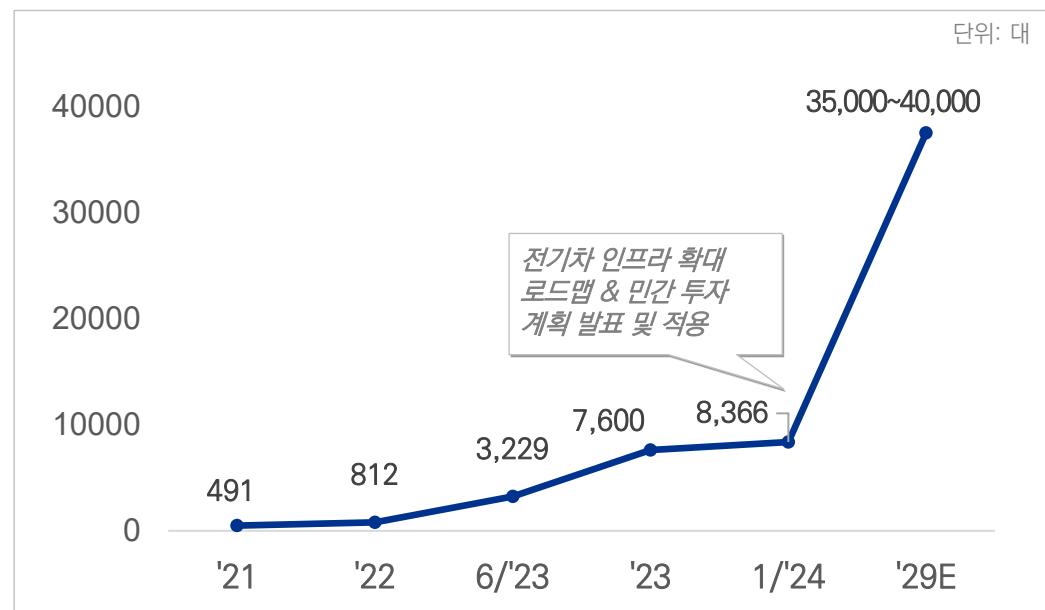


Source: 현지 언론미디어, Asian Transport Outlook

카자흐스탄 내 전기차 시장 동향

카자흐스탄의 전기차 시장은 2023년 전기차 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우대 정책 및 인프라 확장 로드맵을 통해 성장 중에 있음

카자흐스탄 연도별 전기차 대수



- 기존 전기차 시장은 1,000대 이하 수준을 유지했으나,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2023년 기점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 중
- 정부 정책 및 BYD, 기아(EV6) 등 주요 전기차 사업자들의 진출 및 현지 생산 확대로 인한 시장 활성화 진행 중

카자흐스탄 전기차 정책

전기차 확대 위한 우대 정책 수립

- KZ정부는 전기차 도입 촉진 위해 세금 면제 정책 시행 중임
→ 전기차는 관세, 재활용 분담금 등에서 면제됨
- 전기차 대출 제공 (低이자 대출 및 기업·개인 대상 10~15% 현금 보상)

전기차 인프라 구축 로드맵 수립 ('24~'29)

- 카자흐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 위한 로드맵 발표
- 인프라: 전용 인프라 설계 및 기술 사양 제공, 전기차 전용 차선 배정, 지역별 전기차 충전소 수량·위치 선정 및 충전소 생산 촉진 등 계획
→ '24 3월 기준 KZ 전국 269개의 충전소 존재 ('23년 대비 47% 증가)
- 정책: 유료 도로 통행료 면제, 초기 등록비 면제, 교통세 면제,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리스 옵션 제공 등 포함



blog.naver.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facebook.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youtube.com/ALATAU RISE With Kazakhstan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organization.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timeliness, no guarantee can be given that the information is complete, accurate as of the date received, or will remain accurate in the future. Participants should not act on this information without seeking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tailored to their specific situation.

Th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name and logo are used exclusively for this event and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without prior authorization.

© 2025 ALATAU RISE With Kazakhstan. All rights reserved. The ALATAU RISE With Kazakhstan name and logo are the property of the organizers and may not be used, reproduced, or distributed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End of Document

